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2권-1)

조앤 K 롤링 지음, 김혜원 옮김

제1장 최악의 생일

처음은 아니었지만, 프리벳가 4번지에서의 아침 식사시간은 말다툼으로 떠들썩했다. 버논 이모부가 조카 해리의 방에서 이른 아침부터 시끄럽게 울어대는 부엉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것이다.

"이번 주만도 벌써 세 번이다!" 그가 식탁을 앞에 두고 고함을 질렀다. "저 부엉이를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당장 내다 버려!"

해리는 그러나 다시 한번 해명하려고 애썼다.

"심심해서 그래요." 그가 말했다. "바깥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집에만 갇혀 있으니깐 그러는 거라구요. 밤만이라도 나가게 하면."

"내가 멍청이인 줄 아냐?" 버논 이모부가 달걀 프라이가 조금 매달린 텅수룩한 콧수염을 들이대며 호통을 쳤다. "저 부엉이를 나가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뻔해."

그는 아내 페투니아와 비밀스러운 눈길을 나눴다.

해리는 다시 설득해보려고 말을 꺼냈지만 그의 말은 더즐리 부부의 아들 두돌리의 시끄럽고 긴 트림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베이컨 더 줘."

"프라이팬에 있단다. 애야." 페투니아 이모가 그 똥보 아들을 눈물이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집에 있는 동안 잘 먹여야지. 학교 음식이 영 시원치 않아서 말야."

"당치않은 소리 말아요, 페투니아. 내가 스멜팅스에 있을 때는 굶주린 적이 한번도 없었다구." 버논 이모부가 힘차게 말했다. "두돌리는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을 거야, 안 그러니 애야?"

식탁 의자 옆으로 엉덩이가 축 늘어질 정도로 살이 뒤룩뒤룩 찢 두들 리가 씹 웃으며 해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프라이팬 좀 이리 줘."

"너 주문을 까먹었구나." 해리가 불쑥 말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그 나머지 가족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났다. 두돌리는 부엌을 뒤흔들 것 같은 굉장한 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쿵 떨어졌고, 더즐리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입을 막았으며, 더즐리 씨는 흥분해서 핏대를 세우며 벌떡 일어났다.

"제 말은 '주세요!'라고 하라는 뜻이었어요." 해리가 얼른 고쳐 말했다. "저 그런 뜻이 아니"

"내가 말했지." 버논 이모부가 식탁 너머로 침을 튀기며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에서 마법의 '마'자도 하지 말라구!"

"하지만 전"

"내가 어떻게 감히 두돌리를 협박해!" 버논 이모부가 주먹으로 식탁을 쿵 치며 소리소리 질렀다.

"전 그저"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이 지붕 밑에서는 너의 비정상적인 언행을 묵인하지 않겠다구!"

해리는 시뻘건 이모부의 얼굴과 두돌리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창백한 이모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알겠어요." 해리가 말했다. "알겠다구요."

버논 이모부가 숨찬 하마처럼 헐떡이면서 작고 날카로운 눈으로 해리를 흘금흘금 바라보며 자리에 다시 앉았다.

해리가 여름 방학을 지내기 위해 이 집에 온 이후로, 버논 이모부는 해리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마치 언제 어느 때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처럼 대해왔었다. 사실, 그는 평범한 아이는 아니었다.

해리 포터는 마법사였다. 그것도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서 첫 1년을 보내고 막 돌아온 마법사였다. 그러나 더즐리 가족이 그가 방학을 보내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을 아무리 못마땅하게 여긴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해리가 느끼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는 호그와트가 몹시 그리웠다. 유령들이 돌아다니고 여기저기에 비밀 통로가 있는 성도 그리웠고, 마법 수업들과(마법의 약 제조법 선생인 스네이프는 제외하고), 부엉이가 배달해 주는 우편물과, 연회장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도 그리웠다. 친구들과 함께 잠자던 그리핀도르 탑의 기숙사 방도 그리웠고, 정원의 금지된 숲 옆 오두막에 사는 사냥터지기 해그리드도 그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법사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인 퀴디치(여섯 개의 높은 골대와, 날아다니는 네 개의 공과, 빗자루를 탄 열네 명의 선수)가 그리웠다.

버논 이모부는 해리가 집에 오자마자 주문책과, 요술지팡이와, 망토와, 큰 냄비와, 최고급의 님부스 2000 빗자루를 계단 밑 벽장 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해리가 여름 내내 연습을 하지 않아 기숙사 퀴디치 팀에서 쫓겨난들 더즐리 가족에게 무슨 상관이었는가? 해리가 방학 숙제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간들 더즐리 가족에게 무슨 상관이었는가? 더즐리 가족은 마법사들이 머글(마법사의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있어, 가족 중에 마법사가 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런 일이었다. 버논 이모부는 심지어 해리의 부엉이 헤드위그가 마법사 세계의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리더라도 할까봐 새장에 가두어 잠가버리기까지 했다.

해리는 전혀 그 가족의 일원 같지가 않았다. 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뚱뚱한 체구에 유별난 까만 콧수염을 기른 버논 이모부, 말처럼 긴 얼굴에 비쩍 마른 페투니아 이모, 금발에 돼지처럼 살이 뒤룩뒤룩 찢 두들리. 그렇지만 해리는 작고 마른 체구에 가름한 얼굴, 그리고 항상 흐트러져 있는 까만 머리와 초록빛 눈을 가진 아이였다. 그는 동그란 안경을 껴이며, 이마에는 가느다란 번개 모양의 흉터가 나 있었다.

마법사들에게조차 해리를 그렇게 특별나게 보이게 한 건 바로 이 흉터였다. 해리가 11년 전에 더즐리 가족의 현관 앞에 놓여져야 했던 건, 그의 알 수 없는 과거의 유일한 흔적인 바로 이 흉터 때문이었다.

한 살 때, 해리는 대부분의 마녀와 마법사들이 이름조차 말하길 두려워하는 어둠의 마왕 볼드모트의 저주로부터 살아남았었다. 해리의 부모는 어둠의 마왕 볼드모트의 공격으로 돌아가셨지만, 해리는 번개 모양의 흉터만 남긴 채 그 저주에서 벗어

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볼드모트는 해리를 죽이는 데 실패하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해리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언니 부부에게 맡겨졌다. 그는 10년 동안 자신이 왜 뜻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으키는 건지도 전혀 모른 채,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자동차 사고 때문에 그 흉터를 갖게 된 것이라는 더즐리 가족의 이야기만 믿고 살았다.

그리고 그 뒤, 정확히 1년 전, 호그와트 마법 학교가 해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해리는 자신과 그 흉터에 대해 모두들 잘 알고 있는 그 마법사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기가 끝나자, 이렇게 여름 방학 동안 더즐리 가족에게로 돌아와, 또다시 뉘즈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에서 뒹굴었다 온 개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더즐리 가족은 오늘이 해리의 열두 번째 생일이라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물론, 큰 기대를 걸었던 건 아니었다. 그들은 늘 케이크는커녕, 아주 작은 선물 하나 해준 적이 없었고 그저 완전히 무시해버리기가 일쑤였으니까.

그 순간에, 버논 이모부가 거드름을 피우며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다. "자 모두들 알다시피,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해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내가 사상 최대의 거래를 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해리는 디시 토스트를 먹었다. 그러면 그렇지, 그는 씹쓸하게 생각했다. 버논 이모부는 그 따분한 디너 파티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는 2주 동안 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었다. 어떤 부자 건축업자 부부가 저녁식사를 하러 오는데 버논 이모부는 그에게 대량 주문을 받게 되길 바라고 있었다(버논 이모부의 회사는 드릴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그 계획을 한번 더 점검해야 할 것 같군."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8시에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해. 페투니아 당신은?"

"거실에 있을 거예요." 페투니아 이모가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 집에 온 걸 무척 환영한다는 뜻으로 상냥하게 웃을 준비를 하고 말이죠."

"좋아, 좋아. 그리고 두들리는?"

"난 기다리고 섰다가 문을 열어드릴 거예요." 두들 리가 구역질나는 선웃음을 지으면 말했다. "외투를 받아들일까요, 메이슨 아저씨, 메이슨 아줌마?"

"그들이 우리 아들을 마음에 쏙 들어하겠어요!" 페투니아 이모가 기뻐 날뛰며 외쳤다.

"잘했다. 두들리."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그리고는 해리에게로 휩 돌아섰다. "그러면 넌?"

"전 이곳에 없는 것처럼 소리없이 제방에 있을 거예요."

해리가 억양 없이 단조로운 어투로 말했다.

"바로 그거야." 버논 이모부가 거칠게 말했다. "난 그들을 거실로 안내해서, 페투니아 당신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음료를 따라줄거야. 8시 15분이 되면"

"전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알릴 거예요." 페투니아 이모가 말했다.

"그러면, 두들리, 넌 이렇게 말해야겠지."

"제가 식당으로 모셔도 될까요, 메이슨 아줌마?" 두들 리가 보이지도 않는 여인에게 살찐 팔을 내밀며 말했다.

"어쩌면 저렇게 신사다운까!" 페투니아 이모가 코를 훌쩍거리며 말했다.

"그러면 넌?" 버논 이모부가 해리에게 심술궂게 말했다.

"전 이곳에 없는 것처럼 소리 없이 제 방에 있을 거예요."

해리가 느릿느릿 말했다.

"바로 그거야. 자, 저녁 식사를 할 때 몇 가지 그럴듯한 찬사의 말을 집어넣어야겠는데. 페투니아, 뭐 좋은 거 없을까?"

"메이슨 씨, 버논이 그러는데 골프를 아주 잘 치신다면서요. 메이슨 부인, 그 웃은 어디서 사셨어요. 너무나 멋지네요."

"완벽해. 두들리?"

"이렇게 하면 안돼요, '메이슨 아저씨, 학교에서 우리의 영웅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전 아저씨에 대해 썼어요.'라고요."

해리와 페투니아 이모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페투니아 이모는 와락 눈물을 터뜨리며 아들을 안았지만, 해리는 웃는 걸 보이지 않기 위해 식탁 밑으로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 넌?"

해리는 웃지 않으려고 애써 정색을 하며 얼굴을 들었다.

"전 이곳에 없는 것처럼 소리 없이 제 방에 있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아주 잘했어." 버논 이모부가 힘있게 말했다. "메이슨 부부는 너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 해. 저녁 식사가 끝나면, 페투니아 당신은 메이슨 부인을 다시 거실로 모셔가 차를 대접하고, 난 드릴에 대한 사업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는 거야. 운만 좋으면 10시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일쯤 우린 신나게 쇼핑을 하고 있겠지. 마조르카의 휴양지로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야."

해리는 그러나 전혀 신나지 않았다. 마조르카에 있다고 해서 더즐리 가족이 그를 프리벳가에서보다 더 잘 대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좋아, 난 시내에 가서 두들리와 내가 입을 턱시도를 빌려 오겠어. 그리고 넌." 그가 해리에게 고함쳤다. "네 이모가 청소하는 동안 바깥에 나가 있거라."

해리는 뒷문으로 나갔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이었다. 그는 잔디밭을 가로질러가, 정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내 생일 축하합니다. 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카드나, 생일 선물은커녕, 그는 바로 자신의 생일날에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며 보내야 할 것이다. 그는 비참한 마음으로 울타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너무 외로웠다. 호그와트보다도, 퀴디치보다도, 단짝 친구들인 론 위즐리와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몹시 그리웠다. 그들은 그러나 그의 안부가 전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았다. 론은 해리에게 자기 집에 놀러오라는 말까지 해놓고, 여름 내내 편지 한 통이 없었다.

해리는 마법을 써서 헤드위그의 새장을 열고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편지를 보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미성년 마법사들은 학교 밖에서 마법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그러나 더줄리 가족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해리를 요술지팡이와 빗자루와 함께 계단 밑 벽장 속에 가두지 않았던 건 혹시나 그가 자신들을 쇠뿔구리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해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난 첫 두 주일 동안, 해리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중얼거리려 두들리가 그 뚱뚱한 몸을 이끌고 방에서 쏜살같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며 즐겼다. 하지만 론과 헤르미온느에게서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마법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제는 두들리를 놀리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었다. 더욱이 론과 헤르미온느는 그의 생일까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호그와트에서 연락이 온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구라도 좋았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심지어 정말 미운 녀석인, 드레이크 말포이를 본다 해도 기쁠 것 같았다.

물론 호그와트에서 보낸 1년이 언제나 재미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마지막 학기말에, 해리는 볼드모트와 마주쳤었다. 볼드모트는 갓난아기였던 해리 때문에 힘이 약해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교활했으며, 여전히 힘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해리는 또 한번 볼드모트의 마수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긴 했지만, 몇 주가 지난 지금도, 밤마다 식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잠에서 깨어나 볼드모트의 격노한 얼굴과 성난 커다란 눈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곤 했다.

해리는 갑자기 정원 벤치에 똑바로 앉았다. 아무 생각없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울타리에서 무언가가 그를 뺨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뭇잎들 사이로 커다란 초록빛 눈동자 두 개가 보였다.

해리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섰을 때 잔디밭에서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알지, 난 알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난 알지." 두들리가 노래를 부르며 그에게로 뒤통뒤통 걸어왔다.

그러자 그 커다란 눈동자들이 몇 번 깜박거리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뭐라구?" 해리가 그 눈동자들이 있었던 곳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안다구." 두들리가 그에게로 바짝 다가서며 말했다.

"좋겠다." 해리가 말했다. "이제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게 되었어."

"오늘은 바로 네 생일이야." 두들리가 비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카드 한 장 못 받았니? 그 괴상한 곳에는 친구가 하나도 없나부지?"

"우리 학교에 대해 말했다간 네 엄마에게 혼날걸." 해리가 냉정하게 말했다.

두들리가 살쥔 엉덩이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바지를 끌어 올렸다.

"왜 울타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니?" 그가 수상쩍다는 듯이 물었다.

"울타리에 불을 지르는 가장 좋은 주문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이었어." 해리가 말했다.

그러자 두들리의 그 피동피동한 얼굴이 금방 겁먹은 표정으로 변하더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넌 그 그럴 수 없을걸 아빠가 네게 마법을 부리면 안된다고 하셨잖아. 넌 집에서 쫓겨날 거야. 그리고 넌 달리 갈 곳도 없잖아. 널 데려갈 친구도 하나 없다구."

"지거리 포커리!" 해리가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다. "호쿠스 포쿠스 스퀴글리 위글리"

"어어어엄마!" 두들리가 집으로 출행량을 치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며 울부짖었다. "어어엄마! 해리가 그걸 하고 있어요!"

해리는 자신을 놀렸던 두들리에게 보란 듯이 양갈음을 해주었다. 두들리도 울타리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페투니아 이모는 그가 정말로 마법을 부렸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비누투성이의 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세게 때리려고 하는 바람에 그는 머리를 핵 숙여야했다. 그 뒤 그녀는 일을 다 끝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밥을 주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고, 그에게 집안 일들을 잔뜩 시켰다.

두들리가 빈둥거리며 지켜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동안, 해리는 창문을 닦고, 세차를 하고, 잔디를 깎고, 꽃밭을 손질하고, 장미 가지를 치고, 물을 주고, 정원 벤치에 페인트 칠을 다시 했다. 머리 위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햇살이 목덜미를 태웠다. 해리는 두들리의 미끼에 걸려들지 말았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두들리가 해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 아픈 부분을 찔렀으므로 어쩔 수가 없었다. 어쩌면 호그와트에는 정말로 그의 친구가 하나도 없는지도 몰랐다.

'그들은 평범한 해리 포터가 아니라 유명한 해리 포터를 친구로 삼고 싶은 거야', 그는 화가 나서 꽃밭에 거름을 주며 이렇게 생각했다. 등이 쭈셨고, 얼굴에서는 땀이 비오 했다.

저녁 7시 30분이 되어서야 페투니아 이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이제 그만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신문지 위로 걸아와!"

해리는 이제야 살았구나 하며 번쩍이는 부엌 한쪽으로 살그머니 들어갔다. 냉장고 위에는 오늘 밤 파티 때 먹을 보라색 제비꽃 설탕으로 장식된 커다란 생크림 푸딩이 올려져 있었다. 오븐에서는 또 돼지고기 요리가 지글거리고 있었다.

"얼른 먹어라! 메이슨 부부가 금방 오실 테니까!" 페투니아 이모가 부엌 식탁에 올려진 빵 두 쪽과 치즈 덩어리 하나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말했다. 그녀는 벌써 핑크빛 칵테일 파티용 드레스로 갈아 입고 있었다.

하찮았는 음식이었지만 해리는 너무 배가 고팠으므로 얼른 손을 씻고 허겁지겁 먹었다. 그가 다 먹자, 페투니아 이모가 접시를 핵 치워 버렸다. "이층으로 올라가거라! 해리!"

거실로 들어가는 문을 지나칠 때, 해리는 나비 넥타이에 턱시도를 입고 있는 버논 이모부와 두들리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가 이층 층계참에 막 도착했을 때 초인종이 울리자 계단 밑에 사나운 버논 이모부의 얼굴이 나타났다.

"명심해라 조금이라도 소릴 냈다간"

해리는 발소리를 죽이고 급히 방안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닫고는, 침대에 누우려고 획 돌아섰다.

그런데 침대에 이미 누군가가 앉아있었다.

제2장

도비의 경고

해리는 웅케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그럴 뻔했다. 침대 위에 앉아있는 그 작은 생물은 박쥐 같은 커다란 귀에 테니스 공 만한 톱 불거진 초록색 눈을 갖고 있었다. 해리는 이 생물이 바로 그날 아침에 정원 울타리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것이라는 걸 단번에 알았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때, 거실에서 두들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외투를 받아들일까요, 메이슨 아저씨, 메이슨 아줌마?"

그 생물은 미끄러지듯 침대에서 내려와 그 길고 가느다란 코끝이 카펫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푹 숙여 정중히 인사를 했다. 그것은 낡은 베갯잇에 팔과 다리가 들어갈 구멍을 뚫은 것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다.

"어 안녕." 해리가 약간 겁먹은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 포터!" 그 생물이 아래층까지도 들릴 것 같은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비가 당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고 싶어 했는데요, 이렇게 영광스러울 데가"

"고 고마워." 해리가 벽에 바짝 다가선 채로 조금씩 움직여가, 책상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 옆에 있는 커다란 새장 속에서는 헤그워그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넌 뭐지?"라고 묻고 싶었지만 너무 실례일 것 같았으므로, 대신 이렇게 물었다.

"넌 누구니?"

"도비예요. 그냥 도비요. 집의 꼬마요정이죠." 그 생물이 말했다.

"아 그래?" 해리가 말했다. "어 실례가 된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내 방에 네가 있기에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

거실에서 페투니아 이모의 꾸며낸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꼬마요정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널 만나서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해리가 얼른 말했다.

"어, 뭐랄까, 네가 여기에 온 특별한 이유라도 있니?"

"그럼요." 도비가 진지하게 말했다. "도비는 당신에게 말할 게 있어서 왔어요.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도비는 모르겠어요."

"앉아." 해리가 침대를 가리키며 점잖게 말했다.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꼬마요정이 불안간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 앉으라고요!" 그가 울면서 말했다. "한번도 단 한번도."

해리는 아래층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미안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냐"

"도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구요!" 꼬마요정은 목이 메었다.

"도비는 마법사들에게 앉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해리는 "싹!" 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기분을 돋우는 표정을 지으며, 도비를 다시 침대로 안내했다. 꼬마요정은 딸꾹질을 하며 마치 커다란 못생긴 인형처럼 앉아있었다. 그리고 그럭저럭 울음을 그치긴 했지만 커다란 눈에 여전히 눈물이 그렇그렁 맺힌 채 해리를 끝없이 동경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네가 많은 친절한 마법사들을 만나지 못했던 것뿐이야." 해리가 그의 기분을 달래려고 애쓰며 말했다.

도비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머리를 창문에 마구 부딪히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쁜 도비! 나쁜 도비!"

"그러지마 뭐하는 거야?" 해리가 달려가 도비를 다시 침대 위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그 와중에 헤드워그가 킁킁거리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나서는 새장 창살을 치며 거칠게 날갯짓을 했다.

"도비는 자학하는 거예요." 꼬마 요정이 두 눈동자를 안쪽으로 모아모들뜨기 눈을 하고 말했다. "도비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나쁜 말을 했으니까요."

"네 가족이라구?"

"도비가 모시는 마법사 가족이에요. 도비는 집의 꼬마요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 집과 한 가족만 영원히 모셔야 해요."

"그들은 네가 여기에 온 걸 아니?" 해리가 호기심에서 물었다.

도비는 진저리를 쳤다.

"아뇨, 몰라요. 당신을 만나러 온 걸 알게 되면 도비는 가장 심한 자학 행위를 해야 할 거예요. 도비는 심지어 뜨거운 오븐 속에 머리를 쳐박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들이 만약 알면"

"하지만 네가 오븐 속에 머리를 넣으면 그들이 알아채지 않을까?"

"도비도 그게 걱정이예요. 도비는 언제나 무언가 때문에 자학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비가 그렇게 하도록 해요. 가끔 그들은 내게 자학 행위를 하라고 일러주기까지 해요."

"그러면 떠나면 되잖아? 달아나란 말야."

"집의 꼬마요정은 그 주인이 놓아주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 가족은 도비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도비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가족을 모셔야 할 거예요."

해리가 뻘뻘 바라보았다.

"난 앞으로 4주 동안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굉장히 슬프다고 생각했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네 말을 듣고 나니 그들에 비하면 더즐리 가족이 굉장히 인간적인 것같이 생각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니?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말을 하자마자, 해리는 그 말을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비가 다시 감사의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제발." 해리가 극도로 흥분해서 속삭였다. "제발 조용히 해. 만약 더즐리 가족이 무슨 소리를 듣기라도 하면, 만약 그들이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한다면."

"해리 포터가 도비를 도울 수 있는지 묻잖아요. 도비는 당신이 위대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착하기까지 한 줄은, 도비는 전혀 몰랐어요."

해리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야. 난 호그와트에서 우리 학년 수석도 아니야. 그건 헤르미온드야. 그 애는."

하지만 그는 얼른 말을 멈췄다. 헤르미온드에 대해 생각하는 게 괴로웠기 때문이었다.

"해리 포터는 겸손하고 신중해요." 도비가 불타는 듯한 눈빛으로 공손히 말했다. "해리 포터는 이름을 말해서는 안될 그 사람을 물리치는 위대한 일을 했으면서도 그 업적에 대해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볼드모트?" 해리가 말했다.

도비는 양손으로 자신의 박쥐 같은 귀를 막고 끄끙거렸다.

"아아, 제발 그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그 이름만은 말하지 마세요!"

"미안해." 해리가 얼른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내 친구 론은"

그는 다시 말을 멈췄다. 론에 대한 생각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도비는 꼭 헤드라이트 같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해리 쪽으로 허리를 굽혔다.

"도비는 해리 포터가 바로 몇 주일 전에, 그 마왕을 두 번째로 만났으며 해리 포터가 다시 한번 죽음을 면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가 쉼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비의 눈이 갑자기 눈물로 변하였다.

"아아." 그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입고 있는 더러운 베갯잇 한쪽 끝으로 얼굴을 훔쳤다. "해리 포터는 용맹스럽고 훌륭해요! 그는 벌써 그렇게 많은 위험들에 맞서 용감히 싸웠잖아요! 그러나 도비는 설사 오븐 속에 머리를 쳐박는 일이 있어도, 해리 포터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주의를 주려고 말예요. 해리 포터는 호그와트로 돌아가선 안돼요."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그저 아래층에서 포크와 나이프가 땡그랑대는 소리와 나직이 울리는 버논 이모부의 어렴풋한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뭐 뭐라구?" 해리가 당혹해서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난 돌아가야만 해. 9월 1일에 학기가 시작된단 말야. 지금 날 버티게 하는 건 그것뿐이야. 난 이곳이 어떤지 몰라. 난 이곳에 속해 있지 않아. 난 너희들 세계에 속해 있다구. 호그와트에 말야."

"아니, 아니, 아니." 도비가 귀가 펄럭일 정도로 고개를 세게 가로 저으면서, 깉깉거리며 말했다. "해리 포터는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해요. 그는 목숨을 잃기엔 너무 위대하고, 너무 착해요. 호그와트로 돌아가면 해리 포터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될 거예요."

"왜지?" 해리가 놀라서 물었다.

"음모가 있어요, 해리 포터. 금년에 호그와트에선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도비가 갑자기 온몸을 떨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도비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요. 해리 포터는 그런 위험한 곳에 있으면 안돼요. 그는 너무 중요하니까요!"

"어떤 끔찍한 일들?" 해리가 즉시 물었다. "누가 그런 일들을 꾸민다는 거지?"

도비는 이상하게 숨넘어갈 것 같은 소리를 내더니 벽에다 미친 듯이 머리를 박았다.

"좋아!" 해리가 꼬마요정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 이끌며 외쳤다. "내게 말할 수 없다 이거지. 알겠어. 하지만 왜 내게 주의를 주고 있는 거지?" 그에게 불현듯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 이건 볼드 미안해 그 사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지, 그렇지? 난 그저 고개를 가로젓거나 끄덕이기만 하면 돼." 도비의 고개가 걱정스럽게도 다시 벽 쪽으로 기울어지자 그가 급히 덧붙였다.

도비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예요. 이름을 말해선 안될 그 사람은 아니예요."

그러나 도비의 눈이 동그레졌다. 해리에게 암시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에겐 형제가 없지, 그렇지?"

도비가 눈을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호그와트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 해리가 말했다. "내 말은, 덤블도어라는 말이야. 덤블도어가 누군진 알지?"

도비가 머리를 숙였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역대 호그와트의 교장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교장이예요. 그건 도비도 알아요. 도비는 덤블도어의 힘이 이름을 말해서는 안될 그 사람과 맞먹을 만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도비의 목소리가 다급한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덤블도어가 갖고 있지 못한 힘들이 있어요. 좋은 마법사들은 갖고 있지 못한 힘들이요."

그리고 해리가 미처 저지하기도 전에, 도비가 침대에서 튀어올라, 해리의 책상 스탠드를 움켜쥐더니, 귀청이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머리 이곳 저곳을 때리기 시작했다.

아래층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잠시 뒤 해리의 가슴이 쿵광쿵광 뛰고 있었다. 버논 이모부가 큰소리로 "두들리가 또 텔레비전을 켜놓았나 봅시다. 귀여운 녀석이죠!"라고 말하며 복도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얼른! 옷장 속으로 들어가!" 해리가 도비를 옷장 속에 밀어 넣고, 문을 닫은 뒤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자마자 문 손잡이가 돌려졌다.

"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버논 이모부가 해리에게로 얼굴을 바짝 들이대면서 이빨을 뿌드득 갈며 말했다. "내가 막 꺼낸 일본인 골퍼에 대한 농담이 너 때문에 망쳐버렸잖아. 한번만 소리를 냈다간 평생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테니 알아서 해!"

그는 발을 쿵쿵 구르며 방에서 걸어났다.

해리가 벌벌 떨면서, 도비를 옷장에서 나오게 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았지?" 그가 말했다. "내가 왜 호그와트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알았지? 내 친구가 있는 곳은, 아니, 그러니까, 내 친구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그곳뿐이야."

"해리 포터에게 편지도 쓰지 않는 친구들요?" 도비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난 그 애들이 그저 잠깐." 해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 친구들이 내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지?"

도비가 발을 질질 끌었다.

"해리 포터는 도비에게 화내면 안돼요. 도비는 되도록 잘하려고 그렇게 했을 뿐이."

"그럼 네가 내 편지들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었던 말야?"

"도비는 그 편지들을 여기에 이렇게 갖고 있어요." 꼬마요정은 이렇게 말하더니 재빨리 해리에게서 물러서며, 그가 입고 있는 베갯잇 속에서 두꺼운 봉투 뭉치를 끄집어냈다. 해리는 또박또박한 헤르미온느의 필체와, 삐뚤삐뚤한 론의 낙서와,

심지어 호그와트의 사냥터지기인 해그리드에게서 온 것 같은 휘갈겨 쓴 필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도비는 걱정스럽게 눈을 깜박이며 해리를 바라보았다.  
"해리포터는 화내면 안돼요. 도비는 해리 포터가 그 친구들이 그를 잊었다고 생각하길 바랐어요. 해리 포터가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말예요."  
해리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가 그 편지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도비는 날쌔게 피했다.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도비에게 약속하면, 해리 포터는 그 편지들을 가질 수 있어요. 아아, 이건 당신이 부딪혀선 안될 위험이에요! 당신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구요!"  
"아냐." 해리가 화가 나서 말했다. "내 친구들 편지를 이리줘!"  
"그러면 도비도 어쩔 수 없어요." 그 꼬마요정이 슬프게 말했다.  
해리가 미처 어떻게 하기도 전에, 도비가 쏜살같이 문앞으로 달려가더니 문을 핵 잡아당겨 열고, 계단 아래로 달려갔다. 입이 마르고, 속이 뒤틀렸지만, 해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를 쫓아 달려나갔다. 그는 마지막 여섯 계단을 펄쩍 뛰어, 고양이같이 날래게 거실 카펫 위에 내린 뒤,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식당에서 버논 이모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메이슨 씨, 저 미국인 배관공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페투니아에게 좀 해 주세요. 제 아내가 굉장히 듣고 싶어했거든요."  
그런데 부엌 쪽 복도로 달려간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페투니아 이모가 정성 들여 만든, 설탕 제비꽃으로 장식된 커다란 생크림 푸딩이 천장 근처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는 찬장 위에 도비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럴 수가." 해리가 쉼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리 포터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해야 해요."  
"도비 제발."  
"말하세요."  
"그럴 수 없어!"  
도비가 그에게 비장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면 도비는 해리 포터를 위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푸딩이 쿵 하며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접시가 박살이 나면서 크림이 창문과 벽으로 마구 튀었다. 그리고는 도비는 획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식당에서 비명 소리들이 들리더니 버논 이모부가 쏜살같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해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페투니아 이모의 푸딩을 뒤집어쓴 채, 충격으로 얼어붙은 듯 서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 버논 이모부는 그 전체 상황을 그럴듯한 말로 얼버무릴 것 같아 보였다. ("그저 저희 조카예요.-정서가 아주 불안한 아이죠-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당황해할까봐, 그 애더러 이층에 있으라고 했더니 그만.") 그는 놀란 메이슨 부부를 식당으로 다시 돌려보내고는, 해리에게 메이슨 부부가 가면 반쯤 죽을 줄 알라면서, 자루걸레를 건네주며 당장 깨끗이 치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해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부엌바닥을 닦는 동안 페투니아 이모가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갔다.  
버논 이모부는 어쩌면 무사히 그가 원하는 거래를 성사시킬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부엉이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페투니아 이모가 입가심으로 먹을 박하사탕 상자를 돌리고 있을 때 커다란 외양간 부엉이 한 마리가 식당 창문으로 획 날아들더니, 메이슨 부인의 머리 위에 편지 한 통을 떨어뜨리고는 다시 획 날아가 버렸다. 메이슨 부인은 공습경보 같은 비명을 지르더니 정신 이상자처럼 소리소리 지르며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메이슨 씨도 더줄리 가족에게 아내가 크기와 모양을 막론하고 새는 무엇이나 무서워한다면 이런 걸 재미난 장난이라고 생각하느냐며 화가 나서 곧바로 나가버렸다. 해리가 부엌에서 자루걸레를 짊 잡고 몸을 지탱하고 서 있을 때, 버논 이모부가 작은 눈을 흥포하게 치뜨고 그에게로 다가왔다.  
"읽어봐!" 그가 부엉이가 배달해준 편지를 흔들며 잡아먹을 듯이 사납게 소리쳤다. "어서 익으란 말야!"  
해리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그러나 기대했던 생일 축하 말은 들어있지 않았다.  
포터 씨에게  
우리는 오늘 저녁 9시 12분에 당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공중을 떠 다니는 마법이 사용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성년 마법사들은 학교 밖에서 마법을 부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마법을 더 부릴 경우 학교에서 제명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마법사의 행동 제한 법령. 185, c항).  
우리는 또한 마법사가 아닌 사람(머글)들이 눈치를 챌 위험이 있는 어떤 행동도 와목스의 국제적 비밀 법령집 13항에 심각하게 위반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즐거운 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마팔다 흡커크  
마법의 부적절한 사용 관리과  
마법부  
해리는 편지에서 고개를 들고 숨을 죽였다.  
"학교 밖에서는 마법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니." 버논 이모부가 성난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그 말을 하는 걸 잊었던 말이지 까맣게."  
그는 커다란 불독처럼 이를 다 드러내고 해리를 밀어붙였다.  
"그렇다면 이 녀석 널 가둬 버려야겠다. 그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건 꿈도 꾸지 마. 절대로 안돼. 그리고 만약 마법을 부리거나 해서 빠져 나왔다면 당장에 퇴학당할 테니 알아서 해!"  
그리고는 그는 미치광이처럼 웃으며, 해리를 다시 이층으로 끌고 갔다.  
버논 이모부는 말만큰이나 지독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는 사람을 불러 해리의 방 창문에 창살을 대게 했다. 그리고 하

루에 세 번 소량의 음식만을 밀어 넣을 수 있도록 방문에 직접 개구멍을 만들었다. 또 아침과 저녁 단 두 번만 나오게 해서 화장실에 가도록 했으므로 그는 화장실에 갈 때 말고는, 온종일 방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3일 뒤에도, 더즐리 가족은 화가 누그러지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해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창문의 창살 사이로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면서 불쌍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생각하고 있었다.

마법을 쓴 벌로 호그와트에서 퇴학당한다면 방에서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프리벳가에서의 삶은 최악의 상태에 도달해 있었다. 더즐리 가족이 자신들의 큰 박쥐가 되어 깨어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아버린 이상, 그는 유일한 무기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다. 도비는 호그와트에서 일어날 끔찍한 사건들로부터는 해리를 구했을지 모르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는 여하튼 굶어죽을 게 뻔했다.

개구멍이 덜커덕거리더니 페투니아 이모의 손이 나타나, 통조림 수프 한 그릇을 방안으로 밀어 넣었다. 해리는 속이 쓰릴 정도로 배가 고팠으므로,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려 그것을 덥석 잡았다. 수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는 단숨에 반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헤드위그의 새장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 수프 그릇 바닥에 있는 호물호물한 야채 건더기들을 텅 빈 부엉이 모이 그릇에 놓아 주었다. 부엉이는 깃털을 곤두세우며 질색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먹을 거라곤 그것뿐이니까." 해리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빈 그릇을 개구멍 옆 마룻바닥에 놓고 웬일인지 수프를 먹기 전보다 더 시장기를 느끼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가 앞으로 4주 뒤에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가정할 때, 호그와트에 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가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서 사람을 보내올까? 그들이 더즐리 가족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방안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었다. 지칠 대로 지치고, 배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고, 머리 속에서는 답변할 수 없는 똑같은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으므로, 해리는 불편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동물원에서 미성년 마법사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우리 속에 갇혀 있는 꿈을 꾸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야윈 모습으로 벗짚 침대에 누워 있는 그를 창살 사이로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 군중 속에서 도비의 얼굴을 보자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도비는 큰소리로 "해리 포터는 그 안에 있는 게 안전해요!"라고 말하고는 사라져버렸다. 그 뒤 더즐리 가족이 나타났고, 두들리가 비웃으며 우리의 창살을 잡고 덜컥덜컥 흔들었다.

"그만해." 덜컥거리는 소리가 육신육신 쑺시는 머리 속에서 시끄럽게 울리는 걸 느끼며 해리가 중얼거렸다. "날 내버려둬. 그만둬. 잠 좀 자게 해줘."

그는 눈을 떴다. 창문의 창살 사이로 달빛이 새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창살 사이로 누군가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근깨 투성이에, 빨간 머리에, 긴 코를 가진 사람이었다.

해리의 방 창문에는 놀랍게도 론 위즐 리가 와 있었다.

제3장

벼로우

"론!" 해리가 창가로 살금살금 걸어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창살 사이로 속삭이듯이 말했다. "론, 네가 어떻게, 저건 도대체?"

해리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너무나 놀라 입이 딱 벌어졌다. 론은 공중에 떠 있는 낡은 하늘색 차의 뒤쪽 창문에 기대고 서 있었다. 앞좌석에서는 론의 쌍둥이 형들인 프레드와 조지가 해리에게 씩 웃어 보였다.

"괜찮니, 해리?" 조지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론이 말했다. "내 편지에 왜 답장을 하지 않은 거야? 내가 편지로 열 번도 넘게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며칠 전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네가 머글들 앞에서 마법을 사용해서 공식적인 주의를 받았다고 하시는 뭐야."

"내가 그런 게 아냐. 그런데 네 아버지는 어떻게 아셨대?"

"아버지께선 마법부에서 일하시거든." 론이 말했다. "우리가 학교 밖에서 마법을 부려선 안 된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아."

"남 말하네." 해리가 뚱뚱 떠 있는 자동차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 이건 별거 아냐." 론이 말했다. "이건 잠깐 빌린 것뿐이야. 아버지 거거든, 우리가 마법을 부린 건 아냐. 하지만 네가 함께 살고 있는 머글들 앞에서 마법을 부리는 건."

"말했잖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설명하긴엔 얘기가 너무 길어. 그런데, 더즐리 가족이 날 감금해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호그와트에 말해줄 수 있지. 내가 직접 마법을 써서 나갈 수 없는 건 뻔한 사실이잖아. 그랬다간 마법부가 내가 경고한 지 얼마 되지ado 않아 또 마법을 부렸다고 생각할 테니까 말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마." 론이 말했다. "우린 널 우리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야."

"하지만 너희들도 마법을 부려 날 꺼낼 수 없기는 마찬가지잖아."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 론이 고개로 앞좌석 쪽을 가리키며 씩 웃으며 말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왔는지 잊었구나."

"이걸 창살에 묶어." 프레드가 해리에게 밧줄 끝을 던지며 말했다.

"더즐리 가족이 깬다간, 난 끝장이야." 해리가 이렇게 말하며 그 밧줄을 창살에 단단히 묶자 프레드가 자동차 엔진의 회전속도를 빨리 했다.

"걱정 마." 프레드가 말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

해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기라도 한 듯 조용히 있는 헤드위그 옆으로 움직였다. 자동차의 엔진이 점점 더 큰소리를 내며 빠르게 회전했다. 그대 프레드가 하늘 높이 차를 몰고 올라가자 갑자기 우두둑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창문에서 창살들이 깨끗이 떨어져 나갔다. 다시 창가로 다려가 내려다보자 창살들이 지상 몇 미터 높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론이 헐떡거리며 그것들을 차 안으로 끌어올렸다. 해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가만히 귀기울여 보았지만, 더즐리 가족의 방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창살들이 론과 함께 뒷좌석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자, 프레드가 가능한 한 해리의 방 창문에 가깝게 후진을 해왔다.

"타." 론이 말했다.

"하지만 요술지팡이며 빗자루며 내 호그와트 물건이 다."

"어디에 있는데?"

"계단 밑 벽장 속에 들어 있는데, 난 이 방에서 나갈 수가 없어."

"문제없어." 조수석에 앉아있던 조지가 말했다. "창문에서 비켜 서, 해리."

프레드와 조지가 고양이처럼 날래게 창문으로 기어올라갔다. 해리가 그들은 도저히 못 당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조지가 주머니에서 보통 머리핀 하나를 꺼내 자물쇠를 쿡쿡 쑤시기 시작했다.

"많은 마법사들은 머글들이 쓰는 이런 기교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프레드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이야, 조금 느리긴 하지만 말야."

그리고는 찰칵하더니 문이 확 열렸다.

"그러면 우리 네 가방을 가져올 테니까, 넌 네 방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 론에게 넘겨줘." 조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방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그러모아 창문 밖에 있는 론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프레드와 조지가 그의 가방을 계단 위로 들어올리는 것을 도와주러 갔다. 버논 이모부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그들은 혈떡이며 총계참에 도달한 뒤 그 가방을 해리의 방으로 가져가 열린 창문으로 내보냈다. 프레드는 다시 차 안으로 기어 들어가 론과 함께 가방을 잡아당겼고, 해리와 조지는 방 쪽에서 밀어냈다. 조금씩 조금씩, 가방이 창문 밖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버논 이모부가 다시 기침을 했다.

"조금만 더." 프레드가 차 안에서 잡아끌면서 숨을 혈떡이며 말했다. "한번만 더 밀어봐."

해리와 조지가 어깨로 가방을 힘껏 밀자 가방이 창문 밖으로 미끄러지듯 나가 차 뒷좌석으로 쏙 들어갔다.

"좋았어, 자 가자." 조지가 속삭였다.

하지만 해리가 창턱 위로 기어올라갔을 때 뒤에서 갑자기 날카롭게 킁킁대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우레 같은 버논 이모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긋지긋한 부영이 같으니라구!"

"헤드위그를 잊었어!"

해리가 다시 방으로 쏙살같이 들어갔을 때 총계참의 전등이 탁 하고 켜졌다. 그는 헤드위그의 새장을 열린 잡아, 창문으로 달려가 론에게 넘겨주었다. 그가 다시 서랍장 위로 기어올라가고 있을 때 버논 이모부가 자물쇠가 열린 문을 주먹으로 탕탕 쳤다. 그리고 문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열렸다.

잠시, 버논 이모부가 문간을 짝 메운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성난 황소처럼 고함을 지르며 해리에게로 달려들어 그의 발목을 덥석 잡았다.

론과 프레드와 조지는 해리의 팔을 잡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페투니아!" 버논 이모부가 큰소리로 외쳤다. "녀석이 달아나고 있어! 녀석이 달아나고 있다구!"

하지만 위즐리 형제들이 한번 힘껏 당기자 버논 이모부가 붙잡고 있던 해리의 다리가 그의 손에서 주르르 미끄러져 나왔다. 해리는 차안에 있었다. 그는 문을 쿵 닫았다.

"빨아, 프레드!" 론이 이렇게 외치자, 차가 갑자기 달 쪽으로 내달렸다.

해리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다. 그는 창문을 돌려 내리고, 프리벳가의 작아지는 지붕들을 돌아 보았다. 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휘감기했다. 버논 이모부와 페투니아 이모와 두들리 모두 해리의 방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기가 막힌 듯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내년 여름에 봐요!" 해리가 소리쳤다.

위즐리 형제는 큰소리로 웃어댔고, 해리는 앓은 채로 입이 찢어지게 씩 웃었다.

"헤드위그를 내보내." 그가 론에게 말했다. "우리 뒤를 따라 날아오게 말야. 녀석은 오랫동안 날개를 쭉 펴고 날아보지 못했거든."

조지는 론에게 머리핀을 건네주었고, 잠시 뒤, 헤드위그는 창문 밖에서 즐겁게 하늘을 날며 그들 옆으로 휙 날아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니, 해리?" 론이 몹시 궁금한 듯 조바심내며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냐구?"

해리는 도비가 해리에게 경고했던 일과, 제비꽃 푸딩에 얹힌 실수 등을 그들에게 모두 말해주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얼떨떨한 긴 침묵이 흘렀다.

"정말 수상해." 프레드가 마침내 말했다.

"속임수가 확실해." 조지가 동의했다. "그러니까 그 요정이 네게 누가 이 모든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는 말하지도 않으려 했단 말이지?"

"내가 볼 땐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 해리가 말했다. "실제로, 그 요정은 무심코 무슨 말인가를 뱉어내려고 할 때마다, 머리를 벽에다 쳐대곤 했거든."

그는 프레드와 조지가 서로 바라보는 걸 보았다.

"뭐야, 요정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해리가 말했다.

"글세." 프레드가 말했다. "정리해보면 이래. 집의 꼬마요정들은 강력한 마법을 부릴 수 있지만, 주인의 허락없이 보통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볼 땐 네가 호그와트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누군가가 도비를 보낸 것 같아. 우스꽝스런 생각이지. 학교에 혹시 네게 원한을 품고 있는 녀석이라도 있니?"

"응."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해리와 론이 동시에 말했다.

"드레이크 말포이야." 해리가 설명했다. "그 녀석은 날 무척 싫어해."

"드레이크 말포이?" 조지가 옆을 보며 말했다. "설마 그애의 아버지가 루시우스 말포이는 아니겠지?"

"맞을 걸, 그게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 안 그래?" 해리가 말했다. "그건 왜?"

"아버지가 그에 대해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 조지가 말했다. "그는 그사람의 대단한 지지자였대."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을 때." 프레드가 목을 쭉 빼고 해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루시우스 말포이가 글세 자기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천연덕스럽게 돌아왔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아버지는 그가 그 사람의 측근이었다고 생각해"



서."

해리는 전에도 말포이 가족에 대한 이런 소문들을 들은 적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말들이 전혀 놀랍지 않았다. 말포이는 두 들리 더줄리 같은 아이조차 아주 친절하고, 인정 많고, 섬세한 아이로 보이게 할 정도로 못된 녀석이었다.

"하지만 말포이 가족에게 집 꼬마요정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해리가 말했다.

"그 요정의 주인이 누구든 아마 오랜 전통이 있는 마법사 가족일 거야. 그리고 매우 부자일 거구." 프레드가 말했다.

"맞아, 엄마는 늘 우리에게 집 꼬마요정이 있어서 다림질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 조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지붕 밑에 사는 굴 귀신(동방 회교국에서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귀신 : 윙킨이)과 정원 여기저기에 있는 땅 신령들밖에 없잖아. 집의 꼬마요정들은 커다란 영지와 성들과 같은 곳에는 으레 따르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하나도 잡지 못할 거야."

해리는 말이 없었다. 드레이코 말포이가 보통 모든 것에서 최고만 갖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의 가족은 황금 더미에 파묻혀 사는 엄청난 부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말포이가 커다란 저택에서 거들먹거리며 걸터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다. 해리가 호그와트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위해 그 가족의 하인을 보내는 것 또한 정확히 말포이 같은 족속이 하는 일처럼 보였다. 해리가 어리석게도 도비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걸까?

"어쨌든 너와 함께 있게 되어서 기뻐." 론이 말했다. "네가 내 편지에 아무 답장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애당초 예물을 보냈던 게 잘못이었지만 말야."

"예물이 누구야?"

"내 부엉이야. 하지만 그 녀석은 아주 늙었어. 녀석이 배달하다가 쓰러졌던 건 그게 처음이 아닐 거야. 그래서 그때 해리 메스를 빌리려고 했었는데."

"누구?"

"퍼시 형이 반장이 되었을 때 엄마와 아빠가 사주신 부엉이야." 앞에 앉은 프레드가 말했다.

"하지만 퍼시 형은 그 부엉이를 내게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어." 론이 말했다. "형에게도 그 부엉이가 필요하다면서 말야."

"퍼시 형은 이번 여름에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 조지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많은 편지들을 보내는가 하면 온종일 방안에 틀어박혀 있기가 일쑤야. 반장 배지는 이미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았을 텐데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차를 너무 왼쪽으로 몰고 있잖아, 프레드." 그가 계기반에 있는 나침반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프레드가 핸들을 비틀어 돌렸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차를 가져온 걸 알고 계시니?" 해리가 대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넌지시 물었다.

"어, 아니." 론이 말했다. "아버진 오늘 밤 근무서. 잘만 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 날았다는 걸 엄마에게 들키지 않고 감쪽같이 차고로 다시 가져다놓을 수 있을 거야."

"너희 아버지는 마법부에서 어떤 일을 하시니?"

"아버진 제일 할 일 없는 부서에서 일하셔." 론이 말했다.

"머글 문화유물 오용 관리과."

"뭐?"

"그건 머글들이 만들었지만 마법이 걸려있는 물건들을 관리하는 곳이야. 그 물건들이 머글 가게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봐. 예컨대 작년에는, 어떤 마녀 노파가 죽었는데 그 노파의 찻잔 세트가 골동품 가게에서 팔렸어. 어떤 머글 여자가 그것을 사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는 친구들을 초대해 그 찻잔으로 차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건 악몽이었어. 아빠는 몇 주일 동안 야간근무를 하셔야 했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차주전자가 신들린 듯이 광포해져서는 펄펄 끓는 차를 여기저기에 내뿜은 데다 남자 한 명은 각설탕 집게에 코를 꽂 집혀서 병원으로 실려 가는 소동이 벌어졌거든. 아버지는 극도로 흥분해서 출동하셨어. 사무실엔 아버지와 퍼킨스라는 노인 마법사 한 명밖에 없었거든. 아버진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 머글들의 기억력을 없애버리는 '기억력 마술'을 비롯해 온갖 일을 다 하셔야 했어."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이 차,"

프레드가 웃었다. "맞아, 아버지는 머글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에건 흥미를 갖고 계셔. 아버진 그것을 분해해서, 마법을 건 뒤 다시 조립하시지. 아버지가 만약 우리 집을 불시 단속한다면 아버진 자신을 체포해야 할 거야. 엄마는 그것 때문에 미칠 지경이셔."

"저게 중심가야." 조지가 자동차 앞 유리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10분 후면 저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야. 운이 아주 좋았어. 날이 밝아오고 있거든."

동쪽 지평선을 따라 어렴풋이 타오르고 있는 핑크빛 빛줄기가 보였다.

프레드가 차의 고도를 좀더 낮추자, 거무스름한 들판과 나무숲이 보였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조지가 말했다. "오테리 세인트 캐치폴."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갔다. 이제 눈부신 붉은 태양의 가장자리가 나무들 사이로 살짝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차지!" 가볍게 쿵 하며 차가 땅에 내려앉자 프레드가 말했다. 그들은 작은 마당에 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차고 옆에 내렸고, 해리는 처음으로 론의 집을 내다보았다.

그것은 꼭 한때 커다란 돼지우리였던 것을, 여기저기에 여분의 방을 덧붙여서 몇 층을 더 높인 것처럼 보였고, 어찌나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던지 꼭 마법의 힘으로 지탱되고 있는 것 같았다. (해리는 십중팔구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빨간 지붕 꼭대기에는 네 다섯 개의 굴뚝이 있었다. 현관 근처에는 버로우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삐딱하게 꽃혀 있었다. 현관 주변에는 고무 장화들과 녹슨 커다란 냄비 하나가 아무렇게나 놓여있었다. 차가 마당으로 들어갈 때 살이 통통하게 찐 갈색 닭 몇 마리가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다.

"몇 마리 안돼." 론이 말했다.

"멋지다." 해리가 프리벳가를 생각하며 유쾌히 말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렸다.

"자, 이제 이층으로 아주 조용히 올라가서," 프레드가 말했다. "엄마가 아침 먹으라고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론, 너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서, '엄마, 밤사이 누가 왔는지 보세요!'라고 말해. 엄마는 해리를 보면 굉장히 기뻐하실 테고 우리가 차를 타고 날았다는 건 아무도 모를 거야."

"맞아." 론이 말했다. "어서, 해리, 난 위에서 잘게."

그런데 집을 올라다본 론의 낮빛이 새파래졌다. 다른 세 명도 돌아섰다.

위즐리 부인이 닭들을 흠어지게 하며, 마당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땅딸막하고 뚱뚱하지만, 한없이 인자하게 생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변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웠다.

"아아," 프레드가 신음했다.

"오, 이럴 수가." 조지가 말했다.

위즐리 부인이 뒷짐을 지고 그들 앞에 와서 딱 멈추더니 죄지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그녀는 꽃무늬가 있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주머니에는 요술지팡이가 꽂혀 있었다.

"이 녀석들." 그녀가 말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 조지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주 쾌활하고, 애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위즐리 부인이 화가 대단히 난 듯 소리를 버럭 질렀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보세요, 저흰."

위즐리 부인의 세 아들 모두 그녀보다 키가 컸지만, 그녀가 마구 퍼부어 대자 몸을 움츠렸다.

"침대는 비었지! 메모는 없지! 차는 사라졌지. 박살이 났을 지도 모르지. 내가 걱정이 돼서 얼마나 미칠 지경이었는지 알기나 하니. 하긴 너희들이 언제 그런 걸 신경이나 썼니? 여태껏 사는 동안 한번도 없었지.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빌이나 찰리나 퍼시를 키울 때는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한번도 없었어."

"퍼시 형은 완벽하니까요." 프레드가 투덜투덜 댔다.

"넌 퍼시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거야!" 위즐리 부인이 손가락으로 프레드의 가슴을 찌르며 소리쳤다. "그랬다가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발견되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너희들 때문에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셨으면 어떡할 뻔했냐구."

그런 잔소리는 몇 시간동안 계속되는 것 같았다. 위즐리 부인은 쉼 목소리로 소리치다가 뒤로 물러서 있는 해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만나서 정말 반갑다, 해리." 그녀가 말했다. "안으로 들어와 아침 좀 먹어라."

그리고는 그녀는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해리는 안절부절못하며 론을 흘끗 쳐다보고는, 그가 그렇게 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를 따라갔다.

부엌은 작고 다소 갑갑하기까지 했다. 한가운데에 여기저기 굵은 자국이 있는 나무 식탁 하나와 의자들이 있었으므로, 해리는 한 의자에 앉아서 주위를 훑 둘러보았다.

맞은 편 벽에 걸려있는 시계에는 바늘만 하나 있을 뿐 숫자는 없었다. 가장자리에는 차 끓일 시간, 닭 모이 줄 시간, 지각과 같은 말들이 쓰여져 있었다. 벽난로 위 선반에는 '치즈에 마법을', '빵 구울 때 마법 걸기', '1분 만에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 그게 바로 마법이다!' 같은 책들이 세 겹으로 겹쳐서 쌓여 있었다. 그리고 해리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싱크대 옆에 있는 낡은 라디오에서는 "곧이어 인기 절정의 노래하는 마녀, 셀레스티나 와베크와 함께하는 <마녀들이 활동하는 시각>"이 방영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위즐리 부인은 달가달가달가거리며, 다소 되는대로 아침 식사를 요리하면서 프라이팬에 소시지들을 던질 때마다 아들들을 매서운 눈길로 훑아보았다. 간혹 가다 그녀는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느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라며 혼자말로 중얼거리곤 했다.

"네 탓을 하는 게 아니란다, 애야." 그녀가 해리의 접시에 여덟 갠지 아홉 갠지 되는 소시지를 덜어주며 안심시켰다.

"아서 아저씨와 난 너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던단다. 어젯밤에도 우린 네가 금요일까지 론에게 답장을 쓰지 않는다면 직접 가서 널 데려와야겠다고 말했단다. 하지만 정말이지", (그녀는 이제 그의 접시에 달걀 프라이를 세 개나 더 담아주고 있었다) "불법인 차를 타고 나라를 반쯤 날아다닌다는 것은, 누구라도 널 보았다면 어떡할 뻔했니."

"날씨가 흐려요, 엄마!" 프레드가 말했다.

"먹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입 좀 다물어라!" 위즐리 부인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해리를 굶기고 있었어요, 엄마!" 조지가 말했다.

"너도!"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빵을 잘라서 해리를 위해 버터를 발라주는 그녀의 표정은 이제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바로 그 때, 긴 잠옷을 입은 빨간 머리의 자그마한 아이가 부엌에 나타났고 모두가 그리로 눈길을 돌리자, 그 아이가 비명을 썩 지르며, 얼른 달아나 버렸다.

"지니야." 론이 해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여동생이야. 저 애는 여름 내내 너에 대해 말했었어."

"맞아. 지니는 네 사인을 받고 싶어할 거야, 해리." 프레드가 씩 웃으며 이렇게 말하지만,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두말없이 접시로 얼굴을 숙였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네 접시 모두 깨끗이 비워질 때까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아, 피곤해." 프레드가 마침내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으며 하품을 했다. "전 가서 좀 잤다가."

"그렇게는 안되지." 위즐리 부인이 말을 탁 끊었다. "밤새도록 잠자지 않은 건 제 사정이니 내가 알 바 아니고, 너 오늘 엄마를 위해 정원에서 땅 신령들을 좀 없애야겠다. 그것들이 어찌나 극성을 부리는지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거든."

"아, 엄마."

"너희 둘도 마찬가지야." 그녀가 론과 프레드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는 가서 자도 된다. 애야." 그녀가 해리에게 덧붙였다. "네가 그 애들에게 형편없는 저 차를 타고 날아오라고 한 건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해리가 잠이 싹 달아나서 얼른 말했다. "론을 돕겠어요. 전 땅 신령 없애는 걸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마음은 고맙지만, 애야. 그건 재미없는 일이란다."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자, 록허트가 그것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어디 좀 보자."

그리고는 그녀는 벽난로 위에 있는 책 더미에서 무거운 책 한 권을 꺼냈다. 조지가 투덜댔다.

"엄마, 저흰 정원에서 땅 신령을 어떻게 없애는지 알아요."

해리는 위즐리 부인의 책표지를 바라보았다. 멋진 황금색 글씨로 질데로이 록허트가 말하는 집안의 골칫거리 퇴치법이라고 쓰여 있었다. 앞면에는 구불구불한 금발 머리에 하늘빛 눈을 가진 잘생긴 마법사의 커다란 사진이 있었다. 마법사 세계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 사진도 움직이고 있었다. 해리가 생각하기에 질데로이 록허트인 것 같은 그 마법사는 그들 모두에게 계속 기분 좋게 눈짓을 하고 있었다. 위즐리 부인이 그에게 밝게 미소지었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는 정말 집안의 골칫거리들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있단 말야, 그래. 정말 훌륭한 책이야."

"엄마는 그를 좋아하셔." 프레드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쓸데없는 말 마라, 프레드." 위즐리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좋아, 네가 록허트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그 책 없이 가서 해라. 하지만 내가 검사하여 나갔을 때 정원에 땅 신령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각오해라."

위즐리 형제들은 하품을 하며 구시렁구시렁 대면서 몸을 축 늘어뜨리고 밖으로 걸어갔다. 해리는 그들 뒤를 따라갔다. 정원은 컷으며, 해리의 눈에는, 정원이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즐리 가족이라면 이런 정원을 좋아하지 않았겠지만, 잡초가 많았으며, 잔디는 자랄 대로 자라 있었다. 가장자리에는 웅이진 나무들이 죽 심어져 있었으며, 꽃밭마다 해리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커다란 초록빛 연못에는 개구리들이 그득했다.

"너도 알겠지만, 머글들에게도 정원 땅 신령들이 있어."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며 해리가 론에게 말했다.

"그래, 나도 그들이 땅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 론이 한 작약 관목 앞에서 머리를 푹 숙이고 나가며 말했다. "늪싹대를 들고 있는 똥똥한 작은 산타클로스 같은 것 말야."

발을 질질 끌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나고, 작약 관목이 흔들리더니, 론이 다시 똑바로 일어섰다. "하지만 이게 바로 땅 신령이야." 그가 험악하게 말했다.

"그건 확실히 산타클로스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것은 작았으며 꼭 감자처럼 커다랗고 우툴두툴한 대머리에 가죽빛 얼굴을 갖고 있었다. 땅신령이 뿔 모양의 작은 발로 걸어차려고 하자 론은 그것을 멀리하여 잡았다. 그리고는 그것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뒤집었다.

"너도 이렇게 해야 해." 그가 말했다. 그는 땅신령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는("날 놔줘!") 올가미를 던질 때 하듯 큰 원을 그리며 빙빙 돌리기 시작했다. 해리가 얼떨떨한 표정을 짓자, 론은 덧붙였다. "이렇게 해도 땅신령들은 다치지 않아. 그저 땅신령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아주 아주 어지럽게 만드는 것 뿐이야."

그가 그 땅신령의 발목을 놓았다. 그러자 그것이 공중으로 6미터 정도 날아가 울타리 너머에 있는 밭에 쿵 하고 떨어졌다.

"불쌍하다." 프레드가 말했다. "저 그루터기에서도 분명 하나쯤 잡을 수 있을 거야."

해리는 땅신령들에 대해 너무 불쌍하게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금방 배웠다. 그는 땅신령이 해리가 마음이 약하다는 걸 알아챘는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해리의 손가락을 콕 찌르는 바람에 그 땅신령을 흔들어 떼어내느라 혼이 났던 것이다. 그런데,

"와, 해리 그거 15미터는 되겠는데."

주위가 곧 날아다니는 땅신령들로 뿌연게 되었다.

"봐, 녀석들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 조지가 한번에 대 여섯 개의 땅신령을 잡으며 말했다. "땅신령 없애는 작업을 하다 보면, 녀석들은 꼭 무슨 일인지 보려고 저렇게 마구 떴이러 올라온단 말야. 지금쯤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걸 알만도 한데 말야."

곧, 밭에 있는 땅신령들 떼가 작은 어깨들을 구부리고 뿔뿔이 흩어져 걸어가기 시작했다.

"다시 돌아올 거야." 땅신령들이 밭 맞은 편에 있는 울타리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론이 말했다. "그것들은 여기 있는 걸 좋아하거든. 아빠가 너무 관대하게 대해주시니까 말야. 아빤 그것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시거든."

바로 그 때,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다!" 조지가 말했다. "아빠가 집에 오셨어!"

그들은 급히 집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위즐리 씨는 안경을 벗더니 눈을 감은채로 부엌 의자에 무너지듯이 앉았다. 그는 호리호리한 몸매에 머리는 거의 대머리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머리카락은 역시 그의 아이들처럼 빨갛다. 그는 돌아다니느라 먼지투성이가 되어 버린 긴 초록색 망토를 입고 있었다.

"정말 지겨운 밤이야." 그들이 모두 탁자 주위에 빙 둘러앉자 그가 찻주전자를 찾으며 중얼거렸다. " 불시 단속을 아홉 번이나 했어! 아홉 번! 그리고 내가 등을 돌리자 문둔구스 플레처 영감이 글세 내게 마법을 걸려고 하지 않겠니."

위즐리 씨가 차를 한모금 죽 들이켜며 한숨을 지었다.

"뭐라도 찾으셨어요, 아빠?" 프레드가 몹시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그저 오그라든 문 열쇠 몇 개와 물어뜯는 주전자가 다란다." 위즐리 씨가 하품을 했다. "하지만 우리 부서와 관련된 게 아니긴 해도 아주 고역스러운 물건이 하나 있었던단다. 모틀레이크가 아주 이상한 족제비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소환됐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건 실험 마법 분과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었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왜 귀찮게 문 열쇠들을 오그라들게 하는 거죠?" 조지가 말했다.

"그저 머글들을 굴리려는 거지." 위즐리 씨가 말했다. "머글들이 필요할 때 찾지 못하도록 계속 오그라들어서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열쇠를 그들에게 파는 거지. 물론, 머글들은 아무도 자신들의 열쇠가 계속 오그라든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들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단다. 그들은 그냥 계속해서 열쇠를 잃어버린다고 주장할 테니까 말야. 불쌍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바로 눈앞에서 마법이 벌어져도 애써 무시하려 들다니. 하지만 우리 마법사들이 마법을 걸기 위해 가져갔던 물건들은, 너희들은 믿으려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요?"

위즐리 부인이 어느새 칼 같은 길다란 부지깽이를 들고 나타났다. 위즐리 씨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는 아내를 죄진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자, 자동차라고, 물리?"

"그래요, 어서, 자동차요." 위즐리 부인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녹슨 낡은 차를 사면서 아내에게는 그저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려고 뜯어보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말해 놓고는, 실은 그 차에 마법을 걸어 날아다니게 하는 어떤 마법사를 한 번 생각해봐요."

위즐리 씨가 눈을 깜작거렸다.

"그런데, 여보, 당신은 그가 법을 위반하지는 않으리란 걸 알게 될 거야. 어, 그가 아내에게 사실로 말했다면, 음, 더 좋았을 지 모르겠지만 말야. 법에는 허점이 있어. 당신도 알게 될 거야. 그가 그 차를 날아다니게 하지 않는 한, 그차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 알려지지 않."

"아서 위즐리 씨, 그럼 당신이 그 법을 만들었을 때 허점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계셨단 말이군요!" 위즐리 부인이 소리쳤다. "당신이 창고에 있는 저 머글의 잡동사니들을 가지고 어설프게 만지작거릴 수 있도록 말이죠! 보세요, 당신이 날아다니게 하지 않는 바로 저 차로 해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왔어요!"

"해리?" 위즐리 씨가 멍하니 말했다. "해리 누구?"

그가 주위를 휩 둘러보다가 해리를 보자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오오, 해리 포터니? 만나서 정말 반갑다. 론이 우리에게 너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했."

"당신의 아들들이 어젯밤에 저 차를 타고 해리의 집으로 날아갔다가 돌아왔어요!" 위즐리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죠, 네?"

"정말이니?" 위즐리 씨가 몹시 궁금한 듯 말했다. "그게 잘가든? 내, 내말은," 위즐리 부인이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자 그가 머뭇거렸다. "그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야, 애들아. 정말로 아주 잘못된 거야."

"두분은 그러시도록 그냥 놔두고 우린 올라가자." 위즐리 부인이 불독처럼 화를 내자 론이 해리에게 비밀히 말했다.

"자, 내 방을 보여줄게."

그들은 슬그머니 부엌을 빠져나와 좁다란 복도를 따라갔다. 고르지 않은 계단이 집 꼭대기까지 지그재그 모양으로 돌돌 말려져 있었다. 3층 층계참에 올라갔을 때, 조금 열려진 문이 하나 있었다. 해리가 연한 갈색 눈 한 쌍이 자기를 뺴히 바라보고 있는 걸 알아챈 순간 그 문이 쿵 하고 닫혔다.

"지니야." 론이 말했다. "그 애가 이렇게 수줍어하는 게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넌 모를 거야. 그 애는 보통은 절대로 입을 다물지 않는 아이거든."

이층을 더 올라가서야 그들은 론의 방이라고 쓰여진 명판이 붙어있는, 페인트가 다 벗겨진 문에 도달했다.

해리는 머리가 천장에 닿을락 말락 하는 그 방안으로 걸어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다. 꼭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방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강렬한 오렌지 빛이었다. 침대덮개도, 벽도, 심지어 천장까지. 지저분한 벽지에는 밝은 오렌지빛 망토를 입은 일곱 명의 마녀와 마법사가 빗자루를 들고, 활기차게 손을 흔들고 있는 똑같은 포스터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네가 좋아하는 퀴디치 팀이니?" 해리가 물었다.

"처들리 캐논이야." 론이 두 개의 커다란 검정색 C자와 고속으로 움직이는 탄환으로 꾸며진 오렌지 빛 침대 덮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리그전에서 현재 9위야."

한쪽 구석에는 론의 마법책들이 난잡하게 쌓여있었고, 그 옆에는 미치광이 머글 마틴 미그의 모험을 주제로 삼은 것 같은 만화책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론의 요술지팡이는 창턱에 있는 알을 낳은 개구리들이 잔뜩 들어있는 수족관 위에 놓여 있었고, 그의 불룩한 회색 모자 옆에서는, 쥐 스캐버스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졸고 있었다.

해리는 마룻바닥에서 저절로 움직이고 있는 카드들을 넘어가 조그만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저 밑 밭에서는 땅신령들 한 떼가 다시 하나씩 위즐리네 집 울타리로 살금살금 들어오고 있었다. 그 뒤 그는 방을 본 소감을 듣기를 기다리길라도 하는 듯,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론에게로 돌아섰다.

"방이 좀 작지." 론이 얼른 말했다. "네가 머글들과 함께 썼던 방과는 다르지. 그리고 내 방은 지붕 밑에 사는 굴귀신 바로 밑이야. 그 귀신은 항상 통을 탕탕 치거나 공공거리며 신음소리를 내."

그러나 해리가 환하게 씩 웃으며 말했다. "난 이렇게 멋진 집을 처음이야."

론의 콧볼이 새빨개졌다.

#### 제4장

플러리시와 블러트 서점에서

버로우에서의 생활은 프리벳가에서의 생활과는 사뭇 달랐다. 더즐리 가족은 모든 것이 단정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는 걸 좋아했지만 위즐리네 집에서는 이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쑥불쑥 터졌다. 해리는 부엌 벽난로 위의 선반에 있는 거울을 처음 들여다 보았을 때 그것이 "셔츠 좀 밀어넣어, 이 덜렁아!"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깜짝 놀랐었다. 지붕 밑에 사는 굴귀신은 주위가 좀 너무 조용하다싶을 때마다 한바탕 울부짖으며 통을 떨어뜨려서, 프레드와 조지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폭파 사건들이 오히려 정상으로 여겨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해리가 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가장 이상한 일은 말하는거울도, 절거덕절거덕 소리나게 하는 굴귀신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르 좋아한다는 사실이었다.

위즐리 부인은 그의 양말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야단법석을 떨었고, 식시시간마다 그에게 억지로 네 그릇이나 먹이려고 했다. 위즐리 씨는 저녁 식사시간마다 그를 옆자리에 앉혀놓고 머글들과의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며, 소화전이나 우편 업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듣는 걸 좋아했다.

"재미있구나!" 해리가 전화를 귀에 대고 사용법을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독창적이야, 대단해. 머글들은 마법 없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정말로 많이 찾아냈어."

해리는 버로우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뒤인 어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아침에 호그와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론과 함께

아침을 먹으러 내려가자 위즐리 부부와 지니가 벌써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해리를 본 순간, 지니가 잘못하여 포리지 그릇을 치는 바람에 그릇이 마룻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지니는 해리가 방으로 들어올 때마다 물건들을 쳐서 떨어뜨리기 일쑤였다. 그녀는 급히 식탁 밑으로 들어가 그릇을 되찾아서는 꼭 지는 해처럼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타났다. 해리는 이것을 보지 못한 척하며, 자리에 앉아서 위즐리 부인이 주는 토스트를 받았다.

"학교에서 편지가 왔다." 위즐리 씨가 해리와 론에게 초록색 잉크로 주소가 쓰여진 똑같이 생긴 누르스름한 양피지 봉투를 건네주었다. "덤블도어 교수는 이미 네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단다. 해리. 그 분에게는 속임수가 전혀 통하지 않지. 너희들 둘에게도 편지가 왔다." 프레드와 조지가 잠옷 바람으로 느릿느릿 걸어 들어오자 그가 덧붙였다.

그들이 편지를 읽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해리의 편지엔 예전처럼 9월 1일에 킹스 크로스 역에서 호그와트 급행 열차를 잡아타라고 쓰여 있었다. 또한 2학년 때 필요한 새책들의 목록도 있었다.

2학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책들이 필요합니다.

<표준 마법서(2학년)> 미란다 고시오크 지음

<밴시(죽을 사람이 있음을 통곡으로 예고한다는 여자 요정 : 옮긴이)와 보내는 휴식 시간>, 질데로이 록허트 지음

<지붕 밑에 사는 굴귀신과 돌아다니기>, 질데로이 록허트 지음

<마녀와 보내는 휴일>, 질데로이 록허트 지음

<트롤과의 여행>, 질데로이 록허트 지음

<흡혈귀와의 여행>, 질데로이 록허트 지음

<늑대인간과 돌아다니기>, 질데로이 록허트 지음

<설인과 보낸 일년>, 질데로이 록허트 지음

프레드는 자신의 책 목록을 다 읽자, 해리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너도 록허트의 책을 모두 가져오라고 했구나!" 그가 말했다. "새로 오신 어둠의 마법 방어법 선생님은 마녀광인 게 분명해."

이순간에, 프레드는 그의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마멀레이드 잼을 바르는 척했다.

"책값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조지가 부모님 얼굴을 슬쩍 보며 말했다. "록허트의 책들은 정말 비싸거든요."

"이력저력 될게다." 위즐리 부인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걱정스런 표정이었다. "내가 볼 때 중고가게에 가면 지니의 물건들은 대부분 구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아, 금년엔 너도 호그와트에 가니?" 해리가 지니에게 물었다.

그녀는 머릿속까지 새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만 버터 그릇에 팔꿈치를 넣고 말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론의 형 퍼시가 걸어 들어왔으므로 다행히 해리 말고는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이미 옷을 다 차려입고, 스웨터 조끼에는 호그와트 반장 배지까지 달고 있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퍼시가 기분 좋게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 남아있는 의자에 앉는 순간 화들짝 놀라며, 엉덩이 밑에서 털이 다 빠진 회색빛 깃털 총채 하나를 꺼냈다. 아니 적어도, 그것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는 해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에롤!" 론이 퍼시에게서 절뚝거리는 부엉이를 받아 날개 밑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마침내, 이 녀석이 헤르미온느의 답장을 가져왔군. 내가 그 애에게 더즐리 가족에게서 널 구하러 갈 거라고 편지 썼었거든."

에롤을 뒷문 바로 안쪽에 있는 헛대로 가져가 세워놓으려고 했지만 다시 곧바로 떨어지자, 론이 그 부엉이를 개수대 옆의 그릇 건조대에 올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가없기도 하지." 그리곤 그는 헤르미온느의 편지를 작 뜯어 큰소리로 읽었다.

사랑하는 론, 그리고 만일 그곳에 있다면 사랑하는 해리에게.

모든게 잘되었길 바래. 그런데 혹시 해리를 빠져 나오게 하는 데 불법적인 일은 저지르지 않았겠지, 론. 그랬다간 해리를 또다시 곤란에 빠뜨리게 될거야. 정말로 걱정했었는데 만일 해리가 괜찮다면, 내게 즉시 알려줘. 하지만 다른 부엉이를 이용한다면 더 좋겠어. 한번만 더 배달을 시켰다간 네 부엉이는 아마 죽을 지도 몰라.

난 물론, 학교 공부하느라 무척 바빠.

"그 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론이 놀라며 말했다. "지금은 방학중이잖아!"

그리고 난 다음 주 수요일에 부모님과 함께 내 새책들을 사러 런던에 갈거야. 우리 아이애건 엘리에서 만나지 않을까?

가능한 한 빨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려줘. 헤르미온느가.

"아주 잘됐구나. 우리도 그때 가서 물품들을 구입하도록 하자." 위즐리 부인이 식탁을 치우며 말했다. "너희들 오늘은 뭐 할 거니?"

해리와 론과 프레드와 조지는 언덕 위에 있는 위즐리 가족 소유의 조그마한 목장으로 갈 계획이었다. 그것은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빙 돌아가며 죽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너무 높이만 날지 않는다면 쿼디치 연습까지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들이 마을로 달아났을 때 설명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진짜 공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대신 쉽게 잡을 수 있는 사과를 이용했다. 그들은 해리의 님부스 2000을 번갈아 탔는데, 확실히 최고의 빗자루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론의 낡은 슈팅 스타는 종종 지나가는 나비들보다도 뒤로 처지곤 했다.

5분쯤 뒤 그들은 어깨에 빗자루를 메고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들은 퍼시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는 바쁘다며 거절했다. 해리는 퍼시를 식사시간밖에 볼 수 없었다. 그는 그 시간 이외에는 온종일 방안에 틀어박혀있었다.

"형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걸까." 프레드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형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네가 오기 직전에 형의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o. w. l.이 열두 개나 되는 데도 전혀 흠족해하지 않았어."

"표준 마법사 수준이라는 거야." 해리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자, 조지가 설명했다. "빌 형도 열두 개 받았지. 잘못하다간, 우리 가족 중에서 수석이 또 한 명 나오겠어. 난 창피해서 못 견딜 거야."

빌은 위즐리 형제들 중 맏이었다. 그와 둘째형인 찰리는 이미 호그와트를 졸업했다. 해리는 두 사람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찰리는 루마니아에서 용을 공부하고 있고, 빌은 이집트에서 마법사 은행인 그린고트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금년에 우리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어떻게 다 사실 수 있을 지 모르겠어." 조지가 한참 뒤 말했다. "다섯

질 의 록허트 책이라! 그리고 지니에게도 망토며 요술지팡이며 필요한 게 한두가지가 아닐 텐데."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않았다. 그는 약간 거북한 느낌이 들었다. 런던 그린고트의 지하 금고에는 그의 부모가 물려주신 많은 돈이 보관되어 있었다. 물론, 그가 돈을 가진 건 마법사 세계에서 뿐이었다. 머글들의 가게에서는 갈레온과 시클과 크넛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더즐리 가족에게는 그의 그린고트 은행 예금계좌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었다. 마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질색을 하는 그들이었지만 산더미 같은 황금까지도 싫어하지는 않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위즐리 부인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을 모두 깨웠다. 베이컨 샌드위치를 하나씩 서둘러 먹은 뒤, 외투를 걸치자 위즐리 부인이 부엌 벽난로 선반에서 화분 하나를 제쳐놓고 그 안을 뚫어지게 들여다 보았다.

"다 떨어져 가네요, 아서." 그녀가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 조금 더 사야겠어요. 그러면, 손님 먼저! 너 먼저 해라, 해리!"

그러더니 그녀가 그에게 그 화분을 건네주었다.

해리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들 모두를 바라보았다.

"날더러 뭐, 뭘 하라는 거죠?" 그가 더듬으며 말했다.

"그 애는 플루 가루를 타고 여행해 본 적이 없어요." 론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미안해, 해리, 내가 깜박했어."

"정말이니?" 위즐리 씨가 말했다. "그러면 작년에 학교 물품들을 살 때는 다이애건 앨리에 어떻게 갔니?"

"그때는 일단 지하철로 들어가서요."

"그래?" 위즐리 씨가 몹시 궁금한 듯 물었다. "거기에 비상구들이 있었니? 정확히 어떻게."

"나중에 물어봐요, 아서."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플루 가루는 훨씬 더 빠르단다, 애야, 하지만 어찌지, 네가 그걸 한번도 써 본 적이 없다면."

"괜찮을 거예요, 엄마." 프레드가 말했다. "해리, 먼저 우리가 하는 걸 잘 지켜봐."

그가 화분에서 반짝이는 가루를 조금 꺼내더니, 불 앞으로 걸어가, 그 가루를 불꽃 속으로 던졌다.

그러자 평 하더니, 불이 에메랄드 빛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프레드의 키보다 더 높이 치솟았다. 그는 불길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며 "다이애건 앨리!" 라고 외쳤다. 그게 다였다. 그리고 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똑똑히 말해야 한다. 애야." 조지가 화분 속에서 손을 집어넣자 위즐리 부인이 해리에게 말했다. "그리고 꼭 오른쪽 벽난로로 나와야 해."

"오른쪽 뭐요?" 불길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조지까지 휩 데려가 버리자 해리가 초조하게 물었다.

"글세, 출구가 굉장히 많거든, 하지만 똑똑히 말하기만 하면."

"그 앤 괜찮을 거요, 물리. 애태우지 말아요." 위즐리 씨가 플루 가루를 조금 집어들면서 말했다.

"하지만, 여보, 그 애가 만약 길을 잃는다면, 그 애의 이모와 이모부에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들은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해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제가 굴뚝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면 두들리는 아주 재미있어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 마세요."

"글세, 알았다. 그럼 아서 아저씨 다음에 가거라."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자, 불 속으로 들어갈 때, 네가 갈 장소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팔꿈치는 손으로 계속 감싸고 있어." 론이 거들었다.

"눈은 감거라."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그을음은"

"긴장하지마." 론이 말했다. "그랬다간 다른 벽난로로 나갈 지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겁먹고 너무 일찍 나오지 말고 프레드와 조지를 볼 때까지 기다리거라."

이 모든 걸 명심하려고 애쓰면서, 해리는 플루 가루를 조금 집어 불가로 걸어갔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루를 불꽃 속으로 뿌리고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불길이 꼭 따뜻한 바람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입을 벌리자마자 뜨겁누 재가 한 움큼 입속으로 들어왔다.

"다, 다이애, 건 앨리." 그가 기침을 했다.

그건 꼭 거대한 배수로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아주 빨리 빙글 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았다. 귀에 들리는 굉음 때문에 귀청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눈을 뜨고 있으려고 했지만 소용돌이치는 초록빛 불꽃 때문에 자꾸 눈이 감겼고, 속이 울렁울렁 났다. 딱딱한 무언가가 팔꿈치를 치자 그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와중에도 팔꿈치를 꼭 감싸안았다. 이제는 차가운 손이 뺨을 찰싹찰싹 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안경을 통해 죽 늘어선 벽난로들과 그 너머에 있는 방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아침에 먹은 베이컨 샌드위치가 넘어올 것 같았다. 그는 멈추길 바라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차가운 돌 바닥으로 엎어지는 순간 안경다리가 툭 하고 부러지는게 느껴졌다.

현기증이 났다.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그는 그을음으로 뒤덮인 채 부러진 안경을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어디에 와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확실한건 그가 불이 어스레하게 밝혀진 커다란 마법사 가게 처럼 보이는 곳의 돌 벽난로에 서 있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호그와트 학교 목록에 써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가까운 유리 케이스 안에는 쿠션 위에 놓인 말라빠진 손 하나와, 피로 얼룩진 카드 한 벌과, 노려보는 유리 눈알 하나가 들어 있었다. 벽에서는 기분 나쁜 가면들이 내려다보고 있었고, 카운터에는 여러 가지 종류를 한데 모아놓은 사람의 종합 뼈 세트들이 놓여 있는가 하면, 천장에는 녹슨 뾰족한 도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더러운 가게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저 어둡고, 좁다란 길은 확실히 다이애건 앨 리가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빨리 나갈수록 좋을 것 같았다. 벽난로 바닥에 엎어질 때 부딪힌 코가 아직도 얼얼했다. 해리가 서둘러 그리고 조용히 문 쪽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채 반도 가기 전에, 유리 반대편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해리가 이렇게 길을 잃고, 그을음을 뒤집어쓰고 부러진 안경을 낀 모습으로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드레이코 말포이였다.

얼른 주위를 둘러보자 왼쪽에 있는 커다란 까만색 캐비닛이 눈에 들어왔다. 해리는 그안으로 달려들어가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작은 틈만 남기고, 문을 끌어당겨 닫았다. 잠시 뒤, 종이 땡그렁 하고 울리더니 말포이가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따라 들어온 남자는 드레이코의 아버지인 게 분명했다. 그는 말포이와 똑같이 창백하고, 뾰족한 얼굴과 차가운 회색

빛 눈을 갖고 있었다. 말포이 씨는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빈들빈들 둘러보며 가게를 돌아다니다가, 카운터에 있는 종을 울리며 아들에게 돌아서 말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드레이코."

말포이가 유리 눈알을 발견하고 말했다. "선물하나 사주시면 안돼요?"

"경주용 빗자루를 사주겠다고 했잖니." 그의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카운터를 따각따각 두드리며 말했다.

"전 기숙사 퀴디치 팀도 아닌데 그런 거 가져봤자 뭐해요?"

말포이가 부루퉁하게 토라진 얼굴로 말했다. "해리 포터는 작년에 님부스 2000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녀석은 그리핀도르 선수로 될 수 있도록 덤블도어 교수님에게서 특별 허가까지 받았어요. 그 녀석은 그렇게 잘하지도 않은데, 그건 다 그 애가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이마에 멍청한 흉터 하나 가진 것 때문이라구요."

말포이가 허리를 굽혀 해골들로 가득 찬 선반을 이리저리 살폈다.

"모두들 그 녀석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해요. 흉터에다 빗자루까지 가진 멋진 포터라면서 말예요."

"그 말은 벌써 열 번도 더 했을 거다." 말포이씨가 이제 그 말은 그만두라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마법사들 대부분이 해리 포터를 마왕을 사라져버리게 한 영웅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남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해리 포터를 싫어하는 건 현명하지 못해. 아, 보진씨."

기름을 바른 머리를 올백으로 매끄럽게 넘긴, 구부정한 남자 하나가 카운터 뒤에 나타났다.

"말포이 씨, 다시 만나다니 이렇게 반가울 데가." 보진 씨가 그의 머리 만큼이나 기름이 줄줄 흐르는 구변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기쁘군요. 그리고 아드님도 만나서 기뻐요. 제가 도와드릴게 어떨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막 들어왔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보진 씨, 오늘은 사려는 게 아니라, 팔려는 겁니다." 말포이 씨가 말했다.

"파신다구요?" 보진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약간 사라졌다.

"마법부의 불시 단속이 심해졌다는 말은 당신도 물론 들었을 거요." 말포이 씨가 안주머니에서 양피지 두루마리를 꺼내 보진 씨가 읽도록 풀면서 말했다. "우리 집에도, 어, 마법부가 만약 소환한다면, 좀 난처한 것들이, 아아, 몇 가지 있어서,"

보진 씨가 코에 코안경을 갖다대고 그 목록을 훑어보았다.

"마법부가 설마 말포이 씨를 성가시게야 하겠어요?"

말포이 씨의 입술이 비틀렸다.

"아직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았소. 말포이 가문이 아직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마법부가 요즈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고 있어서 말ियो. 머글 보호 법령을 새로 제정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머글을 사냥하는 저 형편없는 아서 위즐 리가 그 뒤에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죠."

해리는 뜨거운 분노가 치솟는 걸 느꼈다.

"그런데 말ियो, 이들 가운데 오해를 살 여지가,"

"물론 잘 압니다, 말포이 씨." 보진 씨가 말했다. "어디 보자,"

"저거 가져도 돼요?" 드레이코가 쿠션 위에 있는 말라빠진 손을 가리키며 끼어 들었다.

"아아, 영광의 손!" 보진 씨가 말포이 씨의 목록을 내려놓고, 허둥지둥 드레이코에게로 걸어가며 말했다. "초를 넣으면 그걸 잡고 있는 사람에게만 불을 비취주는 거란다! 도둑들의 가장 좋은 친구지! 아드님께서 물건 볼 줄을 아는데, 말포이 씨."

"내 아들이 도둑보다는 더 훌륭하게 되길 바랄 뿐이오, 보진." 말포이 씨가 차갑게 으라하자 보진 씨가 얼른 말했다.

"악의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물론 그 애의 성적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말포이 씨가 더욱 냉정하게 말했다.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겠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드레이코가 말대꾸를 했다. "선생님들마다 다 가장 예뻐하는 애들이 있는데,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는,"

"아빠 마법사 집안 출신도 아닌 여자아이가 모든 시험에서 너를 이겼다는 점에 대해 네가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았다." 말포이 씨가 날카롭게 말했다.

"아하하!" 해리는 드레이코가 무안해하면서도 화난 표정을 짓는 걸 보자 기분이 좋아져서 속으로 웃었다.

"그건 어디나 똑같아요." 보진 씨가 기름이 찰찰 흐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법사 혈통은 어디에서나 손해보는 법이잖아요."

"난 안 그렇소." 말포이 씨가 긴 콧구멍을 깔때기 모양으로 벌름거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말포이 씨. 물론 저도 안 그렇죠." 보진 씨가 굽실거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목록 얘기로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군요." 말포이 씨가 쌀쌀하게 말했다. "내가 좀 바빠서 말ियो, 보진, 오늘 무척 중요한 불일이 있어서."

그들은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다. 해리는 드레이코가 진열된 물건들을 살피며 그가 숨어있는 장소로 점점 더 가까이하오자,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드레이코는 돌돌 말려있는 교수형 집행인의 긴 밧줄을 살피려고 멈췄다가 긴 오팔 목걸이에 기대어 세워 놓은 카드에 주의 : 만지지 마시오. 저주받은 것임. 지금까지 머글 주인 열 아홉 명의 목숨을 앗아갔음이라고 쓰인 카드를 읽자 능글맞게 히죽히죽 웃었다.

얼굴을 돌린 드레이코는 바로 앞에 캐비닛이 있는 걸 보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됐소." 카운터에서 말포이 씨가 말했다. "가자, 드레이코!"

아슬아슬한 순간에 드레이코가 돌아서 가버리자 해리는 안도하며 소매로 이마를 훔쳤다.

"좋은 하루 되시오, 보진 씨. 그럼 내일 그 물건들을 가지러 저희 집에 오길 기다리겠소."

문이 닫히자마자, 기름이 찰찰 흐르던 보진 씨의 태도가 싹 바뀌었다.

"하하 웃기는 사람이군.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 사람이 숨기고 있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말야."

험악하게 투덜대면서, 보진 씨가 뒷방 쪽으로 사라졌다. 해리는 그가 다시 돌아올 경우를 생각해 잠시 기다렸다가, 될 수 있는 한 조용히 캐비닛에서 빠져 나와, 유리 케이스를 지나서 가게문 밖으로 나갔다.

해리는 부러진 안경이 얼굴에서 떨어지지않도록 움켜잡은 채, 주위를 뚫히 보았다. 그곳은 완전히 어둠의 마법 물건들만 취급하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거무죽죽한 골목이었다. 그가 막 나온 '보진과 버크'라는 가게가 가장 큰 것처럼 보였다. 맞은 편 창가에는 불쾌하게 생긴 주름 진 얼굴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두 집 내려가서는, 검은 색의 커다란 거미들이 살고 있는 대형 우리가 있었다. 협수룩한 차림의 마법사 두명이 어떤 가게의 문간 그늘에서 그를 지켜보며, 서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해리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안경이 똑바로 붙어있도록 잡고 이곳에서 나가는 길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며 자위하면서 걸었다.

독이 든 초를 파는 어떤 가게에 걸린 낡은 거리 표지판은 그곳이 녹턴 앨리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해리는 그러한 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으므로 아무 도움이 되지않았다. 그는 위즐리네 집 벽난로 불에서 재를 한입 가득 물고 있었으므로 똑똑히 말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침착하려고 하면서, 그는 어떻게 할 지 생각했다.

"길을 잃은 건 아니니, 애야?" 불쑥 누군가가 그의 귓가에 대고 말하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앞에, 늙은 마녀 하나가 사람의 손톱인 것처럼 보이는 끔찍한 것들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심술궂은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해리는 뒤로 물러섰다.

"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전 그저"

"해리! 너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해리는 가슴이 뛰었다. 그 마녀도 그랬는지 손톱들이 그녀의 발로 우수수 떨어졌다. 오그와트의 사냥터지기인 거구의 헤그리드가 딱정벌레 같은 까만 눈을 번뜩이며 턱수염을 곤두세우고 그들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오자 그 마녀가 욕지거리를 했다.

"해그리드!" 해리가 마음이 놓인 듯 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길을 잃었어요, 플루 가루가"

해그리드가 해리의 목덜미를 잡고 그 마녀에게서 잡아끄는 바람에 쟁반이 마녀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들이 구불구불한 골목에서 밝은 햇빛으로 나오는 동안 내내 그 마녀의 비명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저 멀리 어디서 본 듯한, 눈처럼 하얀 대리석 빌딩이 보였다. 그린고트 은행이었다. 해그리드가 그를 다이애건 앨리로 데려간 것이었다.

"이 멍청아!" 해그리드가 해리를 어떤 약국 밖에 있는 용의 똥통 속으로 넘어뜨릴 정도로 세게 그을음을 털어내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녹턴 앨리에서 걸어나다니, 세상에! 위험한 곳이야, 해리. 그런 곳에 가는 건 좋지 않아."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해그리드가 또다시 털어 주기 위해 손을 올리자 해리가 몸으 꺾이며 말했다. "말했잖아요, 길을 잃었다구요. 그런데 거기서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육식성 민달팽이 살충제를 찾고 있었어." 해그리드가 딱딱거렸다. "그것들이 학교에 심은 배추들을 다 망쳐놓고 있거든. 설마 혼자 온 건 아니겠지?"

"위즐리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헤어졌어요." 해리가 설명했다. "그들을 찾아야 해요." 그들은 함께 거리를 따라 내려갔다.

"어떻게 답장 한 장 안 쓸 수가 있니?" 해리가 옆에서 터벅터벅 걸어갈 때 해그리드가 말했다(해그리드가 한 발짝을 떼면 해리는 세발짝을 걸어야 했다.) 해리는 도비와 더즐리 가족에 대해 모두 설명했다.

"몸쉴 머글들 같으니라구." 해그리드가 성내어 말했다.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해리! 해리! 여기야."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자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그린고트의 하얀 계단 꼭대기에 서있었다. 그녀가 갈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뛰어 내려왔다.

"네 안경이 어떻게 된 거니? 안녕하세요, 해그리드 아,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그린고트에 들어가려는 거니, 해리?"

"위즐리 가족을 찾으면." 해리가 말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야." 해그리드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론, 프레드, 조지, 퍼시, 그리고 위즐리 부부가 혼잡한 거리를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다.

"해리." 위즐리 씨가 헐떡거리며 말했다. "벽난로 하나만 더 지나갔으면 됐는데 말야." 그가 번쩍이는 대머리에서 땀을 닦았다. "몰리 아줌마가 아주 흥분해 있단다. 아줌마는 이제 곧 올게다."

"너 어디로 나왔니?" 론이 물었다.

"녹턴 앨리." 해그리드가 험악하게 말했다.

"대단해." 프레드와 조지가 일제히 말했다.

"우린 거기에 가면 혼나는데." 론이 부러워하며 말했다.

"가면 당연히 안되지." 해그리드가 투덜거렸다.

그때 먼발치에서 위즐리 부인이 한쪽 손에 든 핸드백을 앞뒤로 세게 흔들며, 다른 쪽 손으로는 지니를 붙잡고 뛰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오, 해리 오, 애야. 어디에 있었던 거니."

숨을 헐떡이며 그녀가 핸드백에서 커다란 옷술을 꺼내더니 해그리드가 미처 털어내지 못한 그을음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즐리 씨가 해리의 안경을 가져가, 요술지팡이로 가볍게 건드리자 다시 새 안경처럼 변했다.

"전 이만 가봐야겠군요." 해그리드가 위즐리 부인에게 손이 붙들린 채 말했다. ("녹턴 앨리라고요! 해그리드 당신이 그 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떡할 뻔 했어요!"). "그럼 다들 호그와트에서 보자!" 그리고는 그는 커다란 몸집을 흔들며 성큼성큼 걸어갔다.

"내가 '보진과 버크'라는 가게에서 누굴 봤는지 알아?" 그린고트 계단을 올라가며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말포이와 그 애 아버지야."

"루시우스 말포이가 뭐라도 샀니?" 그들 뒤에 있던 위즐리 씨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뇨, 산 게 아니라 팔았어요."

"그래서 그가 걱정했던 거로군." 위즐리 씨가 아주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루시우스 말포이를 어떻게든 잡아넣어"



야겠는데."

"조심하세요. 아서." 은행으로 들어갈 때 문 앞에 있는 도깨비들의 인사를 받으며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그 가족은 골칫거리잖아요. 힘에 겨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루시우스 말포이의 상대가 안 된다, 이거야?" 위즐리 씨는 버럭 성을 내며 말하다가, 헤르미온느의 부모를 보자 반색을 했다. 그들은 커다란 대리석 홀로 통하는 카운터 앞에 초조하게 서서 헤르미온느가 그들을 소개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머글들이시군요!" 위즐리 씨가 친근하게 말했다. "술 한잔 해야겠군요! 그런데 그건 뭐죠? 아, 머글 돈을 바꾸시려는 거로군요, 몰리, 봐요!" 그가 흥분해서 그레이저 씨의 손에 든 10파운드 지폐들을 가리켰다.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나자." 위즐리 형제와 해리가 또 다른 그린고트 도깨비의 안내를 받아 지하 금고로 내려갈 때 론이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금고에 가려면 도깨비들이 모는 작은 고속 궤도차를 타고 소규모의 기차길을 따라 은행의 지하 터널을 지나가야 했다. 해리는 위즐리네 금고로 내려가는 위험천만한 여행을 오히려 즐겼지만, 금고가 열렸을 때는 녹턴 엘리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무거운 참담함을 느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약간의 은 시클과 단 한 개의 금 갈레온이 다였다. 위즐리 부인은 그 금고에 있는 돈을 닥닥 긁어모아 몽땅 핸드백속으로 쓸어 넣었다. 그러나 그의 금고에 도달했을 때의 기분은 훨씬 더 참담했다. 해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려고 애쓰며 허둥지둥 한줌의 동전을 가죽 가방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들은 대리석 계단이 있는 바깥으로 다시 나온 뒤 모두 헤어졌다. 퍼시는 새 깃펜이 필요하다고 막연히 중얼거리며 가버렸고, 프레드와 조지는 호그와트의 친구인 리 조던을 만났다. 위즐리 부인과 지니는 중고 망토 가게로 갈 계획이었다. 위즐리 씨는 그레이저 부부를 리키 콜드런으로 데려가 한잔 해야겠다고 고집하고 있었다.

"그럼 한 시간 뒤 '플러리시와 블러트' 서점에서 만나 교과서들을 사도록 하자." 위즐리 부인이 지니와 함께 출발하며 말했다. "그리고 녹턴 엘리에는 한 발짝도 들어놓지 말고!" 그녀가 친구와 함께 떠나는 쌍둥이들의 등에 대고 큰소리로 말했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꼬불꼬불한 자갈길을 따라 한가로이 걸었다. 해리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금과, 은과, 청동 돈들이 기분 좋게 땡그랑대며 제발 써달라고 아우성을 쳐대고 있었다. 그는 커다란 딸기 땅콩 아이스크림을 세 개 사서는, 셋이서 유쾌히 아이스크림을 빨아먹으면서 휘황찬란한 가게 쇼윈도들을 가웃거리며 걸었다. 론이 고급 퀴디치 용품점 창문 앞에서 쳐들리 캐논 망토를 동경의 눈초리로 한없이 바라보자 헤르미온느가 잉크와 양피지를 사러 가자며 그들을 옆 가게로 끌고 갔다. 마법사들의 놀이 가게인 '갬볼과 제이프'에서는, 프레드와 조지와 리 조던을 만났는데, 그들은 '필리버스터 박사의 놀라운 습식 스타트'와 '차가운 불꽃놀이'를 사고 있었다. 그리고 부러진 요술지팡이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과, 마법의 약으로 뒤덮인 낡은 망토들로 가득한 작은 고물상에서는 '힘을 얻은 반장들'이라는 작고 굉장히 재미없는 책에 촉빠져있는 퍼시를 발견했다.

"호그와트의 반장들과 그들의 그 후 진로에 대한 연구." 론이 그 뒷면 책표지를 큰소리로 읽었다.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리는데."

"저리가." 퍼시가 날카롭게 말했다.

"물론 퍼시 형은 포부가 아주 거창해. 모든 계획을 다 짜놓았어. 형은 마법부 장관이 되고 싶어하지." 퍼시를 내버려 두고 나오며 론이 해리와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한 시간쯤 뒤, 그들은 '플러리시와 블러트'로 향했다. 하지만 그 서점에 다다르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서 서로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위쪽 창문에 붙여져 있는 커다란 광고문을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오늘 12:30pm부터 4:30pm까지

질데로이 록허트가

그의 자서전 '신비한 나'를 사시는 분에게

직접 사인을 해드립니다.

"그를 실제로 만날 수 있겠다!" 헤르미온느가 짹짹거리며 말했다. "그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 교과서들을 거의 대부분 쓴 사람이잖아!"

몰려있는 사람들은 주로 위즐리 부인 연령대의 마녀들인 것 같았다. 어떤 마법사 하나가 매우 초조한 얼굴로 문앞에 서서 큰소리로 말했다. "숙녀 여러분, 침착하세요. 밀지 마세요, 저기 책들 조심하세요. 자"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도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가게 저 안쪽까지 긴 줄이 꼬불꼬불 늘어서 있었고, 그 끝에서는 질데로이 록허트가 자신의 책들에 사인을 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표준 마법책(2학년)'을 한 권씩 잡고 위즐리 부부와 지니, 그리고 그레이저 부부가 함께 서 있는 줄로 몰래 다가갔다.

"오, 너희들 왔구나, 그래."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고 계속해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를 볼 수 있을 게다."

질데로인 록허트가 서서히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커다란 자기 얼굴 사진들에 둘러싸인 채 탁자에 앉아, 사람들 모두에게 눈짓을 해 보이며 하얀 이를 다 드러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실제의 록허트는 그의 눈의 빛깔과 똑같은 물망초빛 파란 망토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구불구불한 머리 위에는 뾰족한 마법사 모자가 멋지게 비스듬히 올려져 있었다.

신경질적으로 생긴 자그마한 남자 하나가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보랏빛 연기를 품어내는 커다란 검정색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좀 비켜 서세요, 거기." 그가 사진을 더 잘 찍기 위해 뒤로 움직이며 론에게 딱딱거렸다. "이것은 '예언자 일보'에 낼 사진입니다."

"대단하군." 론이 사진사가 밟았던 곳을 발로 문지르며 말했다.

질데로이 록허트가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론을 보았다. 그 뒤 해리를 발견하고 뺨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서서 확실하다는 듯 큰소리로 말했다. "해리포터가 맞지?"

몰려있던 사람들이 흥분해서 속삭이며 갈라졌다. 록허트가 앞으로 달려와 해리의 팔을 덥석 잡더니 그를 앞으로 끌어당겼

다. 군중이 갑자기 환호했다. 록허트가, 미친 듯이 찰칵거리며 위즐리 가족이 있는 쪽으로 뿌연 연기를 뚫고 다가와서 해리의 얼굴을 벌개졌다.

"할짝 멋진 미소 한번 지어봐라, 해리." 록허트가 번득이는 이빨 사이로 말했다. "너와 난 함께 신문 제 1면에 나올 만 해."

그가 손을 놔주었을 때는, 해리는 손가락에 감각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가 옆 걸음질을 쳐서 가만가만 위즐리 가족에게로 다시 가려고 하는 순간, 록허트가 한쪽 팔로 그의 어깨를 감싸더니 옆구리를 꽉 죄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며 큰소리로 말했다. "이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딱 좋은 때가 된 것 같군요!"

"여기에 있는 어린 해리가 오늘 '플러리시와 블러트' 서점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오직 저의 자서전을 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 이제 그에게 제 책을 기꺼이 주려고 합니다. 무료로 말이죠." 군중이 다시 한번 환호했다. "그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록허트가 약간 잡아 흔들자 해리의 안경이 코끝으로 미끄러졌다. "나의 책 '신비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게 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학교 친구들은 사실 진짜 '신비한 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전 이 자리에서 이번 9월에 제가 호그와트 마법 학교의 새로운 '어둠의 마법 방어법' 선생으로 부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군중이 박수 갈채를 보냈고, 해리는 질데로이 록허트의 모든 책을 공짜로 받게 되었다. 책들이 어찌나 무거웠던지 몸이 휘청했다. 그는 못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에서 가까스로 물러나와 한쪽 가장자리에 새로 산 냄비를 옆에 두고 서 있는 지니에게로 다가갔다.

"이것들 너 가져." 해리가 그 책들을 냄비 속에 넣으며 그녀에게 중얼거렸다. "난 다시 사면 돼."

"굉장히 좋았겠다, 안 그래, 포터?" 해리가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몸을 바로하고 평상시처럼 비웃고 있는 드레이코 말포이와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유명하신 해리 포터께서" 말포이가 말했다. "책 한권을 사러 나왔다가도 신문 제 1면에 실리는군."

"그를 가만히 내버려둬, 그가 원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니까!" 지니가 말했다. 그녀가 해리 앞에서 말한 건 그게 처음이었다. 그녀는 말포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포터, 너 여자친구 생겼구나!" 말포이가 점잔빼며 말했다.

지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을 때 론과 헤르미온느가 록허트 책들을 움켜쥐고 한바탕 하려는 듯 걸어왔다.

"오, 너였구나." 마치 신발 바닥에 더러운 게 붙어있기라도 한 것 같은 표정으로 말포이를 바라보며 론이 말했다. "여기서 해리를 봐서 놀랐지, 어?"

"널 서점에서 보고 훨씬 더 놀랐어, 위즐리." 말포이가 맞받아 쳤다. "네부모님은 그 모든 거승 2사고 나면 아마 한 달 동안은 쫓쫓 굶으셔야 할걸."

론의 얼굴이 지니처럼 새빨개졌다. 그가 책들을 냄비 속에 떨어뜨리고 말포이에게 덤벼들려고 하자,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그의 재킷을 잡았다.

"론!" 위즐리 씨가 프레드와 조지를 말리며 말했다. "너 뭐하고 있니? 이안은 너무 혼잡하니, 밖으로 나가자."

"이것 참 아서 위즐리."

그건 말포이 씨였다. 그가 드레이코와 똑같이 냉소를 보이며, 아들의 어깨에 한 손을 얹고 서 있었다.

"루시우스." 위즐리 씨가 차갑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했다.

"마법부에선 바쁘다고 들었네." 말포이 씨가 말했다. "그 많은 불시 단속들 하며, 그들이 초과 근무수당은 주고 있겠지?"

그가 지니의 큰 냄비로 걸어가더니 그럴듯한 록허트 책들 가운데에서, 아주 오래되고 낡은 대로 낡은 '초보자들을 위한 변신술 안내서'라는 책 한권을 뽑아들었다.

"그렇지 못한 것 같군." 말포이씨가 말했다. "저런, 그들이 자네에게조차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마법사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게 아니고 무엇이겠나?"

위즐리씨의 얼굴이 론이나 지니보다도 더 새빨개졌다.

"우린 마법사의 이름에 진정으로 먹칠을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 견해가 아주 다른 것 같군, 말포이." 그가 말했다.

"아무렴." 말포이 씨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레이저 부부에게로 잠시 눈길을 주었다가 다시 말했다. "위즐리, 난 이미 자네의집안 형편이 기울대로 기울었다고 생각했었지."

지니의 냄비가 날아가더니 썩그랑 하고 커다란 금속음을 냈다. 그리고는 위즐리 씨가 말포이 씨에게로 몸을 날려 그를 뒤에 있는 책꽂이 쪽으로 밀어붙였다. 수십 권의 무거운 마법책들이 큰소리를 내며 그들의 머리위로 떨어졌다. 프레드인지 조지인지 "혼내줘요, 아빠!" 하는 외침소리가 들렸다. 또 위즐리 부인은 "안돼요, 어서, 안돼!" 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우를 뒤로 물러서자, 더 많은 책꽂이들이 넘어졌다. "신사양반들 제발 제발!" 점원이 소리치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떨어지세요, 거기, 신사양반들, 떨어지세요."

해그리드가 많은 책들을 헤치며 그들에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위즐리 씨와 말포이 씨를 잡아떼어 놓았다. 위즐리 씨는 입술이 찢어졌고, 말포이 씨는 '독버섯 백과사전'으로 눈을 맞았었다. 그는 여전히 지니의 낡은 변신술 책을 들고있었다. 그는 악의에 찬 눈을 번득이며 그 책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여기. 야 네 책 받아라. 그게 네 아버지가 네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란다." 그가 해그리드에게 잡혀 있던 손을 뿌리치며 손짓으로 드레이코를 부르더니 서점에서 급히 나갔다.

"그런 사람은 무시해 버렸어야죠, 아서." 해그리드가 망토를 똑바르게 하고 있는 위즐리 씨를 거의 일으켜 세우다시피 하며 말했다. "썩을 대로 썩은 가족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악의에 가득 차있는 말포이 가족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어요. 자 어서, 여기서 나가세요."

점원은 마치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그들이 떠나는 걸 막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그는 해그리드의 손목에는 어림도 없었으므로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들은 급히 거리로 나왔다. 그레이저 부부는 놀라서 떨

고 있었고, 위즐리 부인은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싸움이나 하고 질데로이 록허트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는 기뻐했어요." 프레드가 말했다. "우리가 떠날 때 그가 하는 말 못 들으셨어요? 그가 '예언자 일보' 기자에게 그 싸움을 기사에 실을 수 있는지 묻고 있었다구요. 정말 좋은 기사거리가 될 거라던데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리키 콜드런의 난롯가로 다시 향했다. 그곳에서 해리와 위즐리 가족과 그들이 산 물건은 플루 가루를 이용해 다시 버로우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그 술집을 나와 반대편의 머글 거리로 향하는 그레인저 가족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위즐리 씨는 그들에게 버스 정류장을 어떻게 이용하는 지 물었다가, 위즐리 부인의 얼굴 표정을 보고는 얼른 그만두었다.

해리는 플루가루를 조금 잡기 전에 안경을 벗어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었다. 그것은 확실히 마음에 썩 내키는 여행 방법은 아니었다.

제5장

커다란 버드나무

여름방학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았다. 해리는 물론 호그와트로 돌아가길 고대하고 있었지만, 버로우에서 보낸 한 달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는 더즐리 가족이 있는 프리벳가로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생각하면 론이 부럽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날 저녁에, 위즐리 부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해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가득 찬 화려한 저녁상을 차려주었고, 마지막에는 군침이 도는 당밀 푸딩까지 내놓았다. 프레드와 조지는 필리버스터 불꽃놀이를 보여줌으로써 그날 저녁을 멋지게 마무리했다. 적어도 30분 동안은 빨간색과 파란색 별들이 천장에서 벽으로 튀며 부엌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그 뒤 그들은 마지막으로 코코아 한 잔을 마신 뒤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을 시작하는데는 한참이 걸렸다. 이른 새벽에 일어났음에도, 암튼 할 일이 아주 많은 것 같았다. 위즐리 부인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여분의 양말과 깃펜들을 찾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위즐리 형제들은 손에 토스트를 한쪽씩 들고 옷을 반쯤 걸친 채로 계단에서 계속 서로 부딪혔고, 위즐리 씨는 지니의 가방을 차에 실으려고 급히 가다가 마당에서 왔다 갔다하는 닭에게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목이 부러질 뻔했다.

해리는 작은 포드 앵글리아에 여덟 명의 살마고, 여섯 개의 커다란 가방과, 두 마리의 부엉이와 쥐 한 마리가 어떻게 다 탈수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사실 위즐리 씨가 만들어 놓은 특별한 마법이 없었더라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몰리 아줌마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가 차 뒤 트렁크를 열어 짐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동차를 마법으로 늘린 방법을 보여주며 해리에게 속삭였다.

마침내 그들이 차 안에 다 탔을 때, 위즐리 부인이 해리, 론, 프레드, 조지, 그리고 퍼시가 모두 나란히 편안하게 앉아 있는 뒷자리를 훑듯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머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녀와 지니는 공원의 의자처럼 긴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 보았을 때는 이 차가 이렇게 넓은 지 몰랐거든요, 안 그래요?"

위즐리 씨가 시동을 걸자 차는 마당에서 굴러나갔고, 해리는 그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가 이 집을 언제 다시 볼수 있을까 생각하자마자 그들은 다시 돌아갔다. 조지가 필리버스터 불꽃놀이 상자를 두고 왔던 것이다. 그 뒤 5분쯤 지나서는, 빗자루를 두고 온 프레드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거의 다 왔을 때 지니가 다이어리를 안 가져왔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차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왔을 때쯤 돼서는, 차는 이제 화가 치밀 대로 치민 듯 기어가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달렸다.

위즐리 씨가 손목시계를 훑듯 다보고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몰리, 여보"

"안돼요, 아서."

"아무도 보지 않을 거요. 여기에 있는 이 작은 단추는 내가 설치한 투명 부스터라오. 이걸 누르면 당장 공중으로 올라갈 거요. 그러면 우린 구름 위에서 나는 거예요. 우린 10분이면 그곳에 도달할 거고, 아무도 전혀 눈치채지 못."

"안 된다고 했어요, 아서. 별건 대낮에는 안돼요."

그들은 킹스크로스 역에 11시 15분 전에 도착했다. 위즐리 씨가 쏜살같이 길으 러 너가 가방들을 실을 손수레를 가져오자 그들 모두 허둥지둥 역 안으로 들어갔다.

해리는 작년의 그 호그와트 급행 열차를 발견했다. 까다로운 부분은 머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9와 3/4번 승강장으로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저 9번과 10번 승강장을 가르는 딱딱한 개찰구를 통해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 개찰구를 통해 들어간다고 전혀 다치는 건 아니었지만, 단 머글들이 누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했다

"퍼시가 먼저 가거라." 위즐리 부인이 머리 위에 있는 시계를 초조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 시계에 따르면 개찰구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5분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퍼시가 힘차게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사라졌다. 다음엔 위즐리 씨가 갔다. 그리고 프레드와 조지가 그 뒤를 따랐다. "엄마는 지니를 데리고 갈 테니 너희 둘은 우리 바로 뒤에 오너라." 위즐리 부인이 지니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가며 해리와 론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졌다.

"우린 함께 가자. 1분 밖에 안 남았어." 론이 해리에게 말했다.

해리는 헤드위그의 새장이 가방 위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손수레를 개찰구 쪽으로 밀고 갔다. 그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느꼈다. 이것은 플루 가루를 이용하는 것만큼 불편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둘 다 손수레의 손잡이 쪽으로 몸을 바짝 숙이고 과감하게 개찰구 쪽으로 점점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랑.

손수레 두 개가 다 개찰구에 부딪히며 뒤로 튕겨져 나왔다. 론의 가방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졌고, 해리는 발부리가 걸려 나가 떨어졌다. 헤드위그의 새장이 높이 튀어 올랐다가 반들반들한 바닥으로 떨어지자 부엉이가 굴러 나와 킁킁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뻘히 바라보고 있는 사이 근처에 있던 차장 하나가 소리쳤다. "도대체 너희

들 뭐하고 있는 거니?"

"손수레가 제멋대로 움직였어." 해리가 일어서서 가슴을 움켜잡고 헐떡이며 말했다. 론이 헤드위그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동을 피우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한다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왜 통과하지 못한 거지?" 해리가 론에게 불만스럽게 말했다.

"나도 몰라."

론이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아직도 10여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기차를 놓칠 거야." 론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 출입구가 왜 저절로 막힌 건지 모르겠어."

해리는 속이 울렁울렁대는걸 느끼며 거대한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10초, 9초, 그는 손수레를 조심성 있게 개찰구까지 밀고 나가 다시 한번 힘껏 밀었다. 그 금속은 여전히 딱딱했다. 3초, 3초, 1초, "가버렸어." 론이 어리벉벉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기차는 떠났어. 엄마와 아빠가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머글들의 돈 있니?"

해리가 공허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더줄리 가족은 6년 동안 내게 용돈을 한 푼도 준적이 없었어."

론이 차가운 개찰구에 귀를 바짝 갖다댔다.

"아무 소리도 안나." 그가 절박하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와 아빠가 언제쯤 돌아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건 헤드위그가 계속해서 짹짹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에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 해리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

"해리!" 론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자동차!"

"그게 어떻게?"

"우린 그차를 타고 호그와트로 날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난"

"다른 방도가 없잖아. 그리고 우린 학교에 가야 하구. 안 그래? 그리고 진짜 긴급한 상황이라면 미성년 마법사들일지라도 마법을 써도 된다고, 실제적 제한 규정 19항인가 어디에 나와있어."

"하지만 너희 엄마와 아빠는" 해리가 다시 열릴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속에 개찰구로 꺾어 다시 한번 밀며 말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집에 가시지?"

"엄마 아빠는 차가 필요하지 않아!" 론이 조바심하며 말했다. "그분들은 축지법을 쓰는 방법을 알고 계시거든! 너도 알잖아. 뽕 하고 사라졌다가 집에 다시 나타나는 것 말야! 그분들이 플루 가루나 자동차에 신경쓰시는 건 단지 우리가 모두 미성년이고 아직 축지법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야."

겁먹었던 해리의 표정이 갑자기 흥분으로 변했다.

"너 그 차를 날게 할 수있어?"

"문제없어" 론이 손수레를 출구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어서, 가자, 서두르면 호그와트 급행 열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머글들을 지나 기차역 밖으로 걸어나가 낡은 포드 앵글리아가 주차되어 있는 옆길로 다시 나왔다.

론이 요술지팡이로 몇 번 치자 차 트렁크 문이 열렸다. 그들은 짐을 다시 그 안에 넣고, 헤드위그를 뒷자리에 놓은 뒤 앞에 탔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지 살펴봐." 론이 요술지팡이를 한번 더 쳐서 시동을 걸며 말했다. 해리가 고개를 창 밖으로 쪽 내밀었다. 앞에 있는 대로에는 많은 차들이 덜거덕 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있는 길에는 차들이 한 대도 없었다.

"좋았어." 그가 말했다.

론이 계기반에 있는 작은 은색 단추를 눌렀다. 그러자 그들이 그 차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다. 해리는 좌석이 밑에서 진동하는 것도 느끼고, 엔진 소리도 듣고, 무릎에 올려진 손과 코에 안경이 걸쳐져 있다는 것까지도 느낄 수있었지만, 차들이 가득 세워진 거무죽죽한 거리에는 그저 그의 눈알 한 쌍만 동동 떠있었다.

"가자," 오른쪽에서 론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차가 올라가면서 양쪽에 있는 땅과 더러운 건물들이 점점 시야에서 멀어졌다. 잠시 뒤, 자욱한 연기 속에 가려진 눈부신 런던 거리가 저 밑에 누워 있었다.

그리곤 평하는 소리가 나더니, 차와 해리와 론이 다시 나타났다.

"어어." 론이 투명 부스터를 쿡 찌르며 말했다. "이게 왜 이러지."

그들은 둘다 그것을 주먹으로 연달아 때렸다. 차가 사라졌다. 그리곤 깜박하더니 다시 나타났다.

"꼭 잡아!" 론이 이렇게 소리치더니, 발로 액셀레이터를 쿡 밟았다. 그들이 곧장 낮은 양터 같은 구름 속으로 돌진하자 시야가 흐릿하게 변했다.

"이제 어떡하지? 해리가 사방에서 짓누르고 있는 뻥뻥한 구름을 힐끗 보며 말했다.

"어느 쪽인지 가야 할지 알려면 그 기차를 찾아야지." 론이 말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 얼른."

그들은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갔고, 자리에서 몸을 비틀어 땅을 잠깐 내려다 보았다.

"보인다!" 해리가 외쳤다. "저기 저 앞에 저기!"

호그와트 급행열차가 자줏빛 뱀처럼 저 아래에서 질주하고 있었다.

"정북 방향이야." 론이 계기반에 있는 나침반을 살피며 말했다.

"좋았어, 30분마다 살펴보기만 하면 돼. 꼭 잡아."

그들은 구름속으로 힘차게 올라갔다가 다시 타오르는 햇살 속으로 튀어 나왔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차바퀴들이 복슬복슬한 구름 바다와, 눈부시게 하얀 태양 아래로 끝없이 펼쳐지는 파란색의 밝은 하늘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이제 비행기들만 조심하면 돼." 론이 말했다.

그들은 얼굴을 마주 보고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참동안 멈추지 않았다.

마치 멋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해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운전대 앞 계기반에 달린 사물함에 사탕 한 봉지를 넣고 하나씩 빼 먹으며, 뜨겁고 밝은 햇살을 받으면서, 소용돌이치는 새하얀 구름을 뚫고 지나가 호그와트 성 앞에 있는 넓은 잔디밭에 매끄럽고 멋지게 내리는 상상을 해 보았다. 프레드와 조지의 부러워하는 얼굴이 눈에 선했다. 이런 여행은 확실히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수시로 구름 밑으로 내려가 기차의 방향을 살피면서 점점 더 북쪽으로 날았다. 구름 밑으로 한번씩 내려갈 때마다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곧 런던을 벗어나, 산뜻한 초록 들판이 나타났고, 이어서 넓고, 자줏빛을 띤 황야로 변했다. 개미 같은 여러 가지 색깔의 자동차들이 우글거리던 대도시와 작은 장난감 교회들이 있는 마을들도 지나갔다.

그러나 평온한 몇 시간이 흐르자, 해리는 점점 따분해졌다. 사탕을 먹은 탓에 갈증이 몹시 났지만, 마실 게 아무 것도 없었다. 스웨터는 벌써 벗어버렸음에도, 해리의 티셔츠는 땀으로 등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안경은 땀이 송골송골 맺힌 코끝으로 자주 흘러내렸다. 그는 이제 이상한 모양의 구름찾기 놀이 하던 것도 싫증이 났고, 아래에 있는 기차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곳에서는 뚝뚝한 마녀가 밀고 다니는 손수레에서 얼음처럼 시원한 호박 주스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왜 9와 3/4번 승강장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걸까?

"이제 멀지 않았겠지?" 태양이 구름 밑으로 떨어지며, 진한 붉은 빛으로 물들자, 몇 시간 동안 조용하던 론이 마침내 쉼묵소리로 말했다. "기차를 한번 더 살펴볼까?"

기차는 여전히 그들 바로 밑에서 눈 덮인 산을 지나 구불구불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는 구름 밑이 훨씬 더 어두웠다. 론이 발을 액셀레이터에 놓고 다시 위쪽으로 차를 몰았는데, 웬일인지 그가 그렇게 하자마자, 엔진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해리와 론은 다소 겁먹은 눈길을 주고 받았다.

"아마 너무 지쳐서 그걸 거야." 론이 말했다. "이렇게 멀리 와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자 그들은 둘 다 그 웅웅대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척 했다. 별들이 어둠 속에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리는 앞 차창 와이퍼들이 이제 마치 향의라도 하듯 맥없이 흔들리고 있는 걸 애써 무시하며 다시 스웨터를 입었다.

"멀지 않았어." 론은 해리가 아니라 차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계기반을 초조하게 두드렸다.

잠시 뒤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사방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실눈을 뜨고 기차를 찾아야 했다.

"저기다!" 해리의 갑작스런 외침에 론과 헤드위그는 깜짝 놀랐다. "바로 저 앞에!"

어두운 지평선에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며, 호수 너머 절벽 위 높은 곳에 호그와트 성의 많은 작은 탑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덜덜 거리더니 점점 속도를 잃어갔다.

"자, 조금만 더." 론이 핸들을 살짝 잡아 흔들며 말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엔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자동차 보닛 밑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차가 호수 쪽으로 날아가자 해리는 의자 끝을 꼭 붙잡았다.

차가 심하게 한 번 흔들렸다. 창 밖을 훑듯 내다보자 몇 미터 밑에 매끄러운 유리 같은 표면의 까만 물이 보였다. 론은 손가락 마디들이 새하얗질 정도로 핸들을 꼭 잡았다. 차가 다시 흔들렸다.

"조금만," 론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호수 위에 있었다. 성은 바로 앞쪽에 있었다. 론은 한쪽 발을 아래로 내려놓았다.

그 순간 쿵, 푸푸 하는 커다란 소리가 나더니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어 어." 론이 조용히 말했다.

차의 앞부분이 아래로 기울어졌다. 그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곧장 딱딱한 성벽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다.

"안돼돼돼!" 론이 핸들을 핵 돌리며 소리쳤다. 차가 어두운 돌벽을 간발의 차이로 스치고 지나가더니 큰 호를 그리며 어두운 온실과, 채소밭, 까만 잔디밭 위로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론이 핸들을 완전히 놓더니 뒷주머니에서 요술지팡이를 꺼냈다.

"멈춰! 멈춰!" 그가 계기반과 앞 차창을 세게 치면서 큰소리로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땅으로 땅으로 똑바로 떨어지고 있었다.

"저 나무를 조심해!" 해리가 핸들을 잡으려고 하며 고함을 쳤지만, 이미 너무 늦고 말았다. 쿵.

금속이 나무와 충돌하는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차가 굵은 나무 몸통에 부딪히고는 덜커덩거리며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뒤틀린 보닛 밑에서 뿜어져 나온 증기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헤드위그는 혼비백산하여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대고 있었다. 해리는 앞 차창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골프공만하게 부풀어오른 혹 부위가 육신육신 쑤셔오는 걸 느꼈다. 오른쪽에서 론이 낮고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괜찮니?" 해리가 다급하게 물었다.

"내 요술지팡이." 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요술지팡이 좀 봐."

론의 요술지팡이가 거의 두 동강이 나 있었다. 끝 부분이 부서진 조각들에 간신히 붙은 채, 힘없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해리는 학교에 가면 확실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에, 무언가가 황소가 돌진해오는 것 같은 굉장한 힘으로 차의 옆구리를 세게 쳤고, 그 충격으로 해리는 론을 향해 쓰러져버렸다. 그리고 동시에 차 지붕에도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

"무슨 일이지?"

론은 숨을 헐떡이며, 앞 차창을 뚫히 바라보았고, 해리가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비단땀만큼이나 굵은 나뭇가지가 차창을 세게 내리쳤다. 그들이 부딪혔던 나무가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그 나무는 미친 듯이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웅웅이 크게 박힌 굵은 나뭇가지로 자동차의 이곳 저곳을 연달아 후려치고 있었다.

"아으!" 비틀린 또 다른 가지가 운전석 쪽의 문을 쳐서 움푹 들어가게 하자 론이 신음소리를 냈다. 앞 차창은 이제 손가락 마디 만한 작은 나뭇가지들의 빗발치는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지붕을 세게 내려치는 순간 자동차 천장이 물러앉아 버렸다.

"도망쳐!" 론이 온몸으로 자동차 문을 지탱하며 소리쳤지만, 다음 순간 그는 또 다른 나뭇가지가 날린 강한 올려차기에 맞아 해리의 무릎으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우린 이제 결단났어!" 천장이 점점 더 내려앉는 걸 보면서 그가 신음하며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차의 바닥이 진동하고 있었다. 엔진의 시동이 다시 걸린 것 같았다.

"후진!" 해리가 외치자, 차가 뒤로 힘차게 움직였다. 그 나무는 여전히 그들을 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멀어져 가는 그들을 잡기 위해 나무가 몸을 통째로 일으켜 세우는지 뿌리가 뽑히는 소리가 들렸다.

"하마터면." 론이 헐떡거리며 말했다. "큰일날 뻔했어. 잘했어, 차야."

그 차는 그러나 결국 막다른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다. 두어번 광광 하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더니, 문들이 갑자기 핵 열렸고, 그 바람에 해리는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려는 것 같더니 어느새 축축한 땅바닥에 벌렁 나자빠져 있었다. 쿵 하는 큰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차가 트렁크에서 그들의 짐을 내던지고 있는 것 같았다. 헤드워그의 새장의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갑자기 핵 열렸다. 부엉이는 성난 비명소리를 내며 새장 밖으로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성 쪽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여기저기가 움푹 들어가고 굽힌 채로 여전히 증기를 뿜어내고 있는 차는 화가 난 듯 미들을 번쩍이면서 덜거덕거리며 어둠 속으로 갔다.

"돌아와!" 론이 부러진 요술 지팡이를 휘두르며 그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빠가 날 가만두지 않으실거야!"

하지만 차는 배기관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증기를 뿜어내고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재수되게 없네" 론이 스캐버스를 잡기 위해 허리를 굽히며 비참하게 말했다. "하고 많은 나무들 중에, 하필 되받아 치는 나무에 부딪칠 게 뭐람"

그는 어깨 너머로 그 오래된 나무를 훑듯 바라보았다. 그것은 여전히 나뭇가지들을 험악하게 격렬히 움직이고 있었다.

"자, 이제." 해리가 지쳐서 말했다. "학교로 가는 게 좋겠어."

지금 상황은 멋지게 학교로 들어가려 했던 그들의 상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온몸이 빠근하고, 춥고, 멍 투성이가 된 그들은 가방을 잡고 풀이 우거진 비탈길 위로 질질 끌어올리며, 거대한 오크문으로 향했다.

"연회가 벌써 시작된 것 같아." 론이 정문 계단 밑에 가방을 떨어뜨리고 조용히 걸어가 밝게 불 밝혀진 창문 안을 들여다 보며 말했다. "야, 해리, 어서 와봐, 기숙사 배정식이야!"

해리는 급히 걸어가 론과 함께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가득 찬 네 개의 긴 테이블 위에서 무수한 초들이 공중을 떠돌며, 황금 접시와 잔들을 비추고 있었다. 머리 위에는, 항상 바깥 하늘과 똑같은 모습이 되도록 마법을 걸어둔 천장이 별들로 반짝이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뾰족한 검정색 호그와트 모자들 사이로, 겁먹은 1학년생들이 줄지어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지니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녀가 쉽게 눈에 띄었던 것은 위즐리 집안 특유의 불에 타는 듯한 선명한 머리카락 때문이었다. 한편, 머리를 타래 모양으로 틀어올린 안경을 쓴 마녀인 맥고나걸 교수는 유명한 호그와트의 마법의 분류 모자를 신입생들 앞에 있는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누덕누덕 기워지고, 헤이지고, 더러운 이 오래된 낡은 모자는 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그리핀도르, 후플푸프, 래번클로, 그리고 슬리데린 이렇게 네 개의 호그와트 기숙사로 배정해주었다. 해리는 정확히 1년 전, 잔뜩 겁먹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그 모자가 귀에 대고 큰소리로 중얼거리던 말이 기억났다.

잠시였지만 그는 그 끔찍한 시간동안 그 모자가 혹시 그를, 어둠의 마녀와 마법사들을 많이 배출한 기숙사인 슬리데린에 넣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그는 론과 헤르미온느와 위즐리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리핀도르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해리와 론은 그리핀도르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슬리데린을 제치고 기숙사 우승컵을 타는 데 일조했었다.

회색 머리카락의 조그마한 남자아이 하나가 호명되자 앞으로 걸어나가 모자를 쓰고 앉았다. 해리의 눈이 그 애를 지나, 상석에 앉아 배정식을 지켜보고 있는 호그와트의 교장 덤블도어에게로 쏠아갔다. 그의 긴 은빛 수염과 반달형 안경이 촛불에 비쳐 반짝이고 있었다. 몇 좌석을 따라가자, 옥색 망토를 입은 질데로이 룩허트가 보였다. 그리고 제일 끝에서는 털이 많은 거구의 해그리드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잠깐만." 해리가 론에게 중얼거렸다. "교수 테이블에 빈 의자가 하나 있네. 스네이프 교수는 어디에 있지?"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는 해리가 가장 싫어하는 선생이었다. 해리는 또한 스네이프가 가장 싫어하는 학생이기도 했다. 스네이프는 마법의 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쌀쌀맞고, 빈정대기 좋아했으며, 자신의 기숙사(슬리데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다.

"아플지도 모르지!" 론이 희망을 가지고 말했다.

"어쩌면 떠났을지도 몰라." 해리가 말했다. "'어둠의 마법 방어법' 과목을 맡지 못해서 말야!"

"아니 파면당했을지도 몰라!" 론이 신이 나서 말했다. "모두가 싫어하니까 말야."

"아니 어쩌면" 그들 바로뒤에서 매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둘이 왜 학교 기차를 타고 오지 않았는지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

해리는 핵 돌아섰다. 거기엔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까만 망토를 차가운 산들바람에 찰랑거리며 서 있었다. 누르스름한 피부의 마른 체구였다 매부리코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매끄러운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그는 해리와 론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따라와라." 스네이프 교수가 말했다.

감히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스네이프 교수를 따라 타오르는 햇불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현관 안의 거대한 홀로 걸어 들어가자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여노히장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지만, 스네이프 교수는 그들을 온기와 불빛이 전혀 없는 지하 감옥으로 이어지는 좁은 돌계단으로 데려갔다.

"들어가!" 그가 차가운 복도를 반쯤 걸어 내려가다가 어떤 문을 열며 가리켰다.

그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스네이프 교수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어슴푸레한 벽에는 커다란 유리병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정말로 이름조차도 알고 싶지 않은 온갖 종류의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들이 뚝뚝 떠 있었다. 벽난로는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스네이프 교수는 문을 닫고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기차가 유명한 해리포터와 그의 충실한 친구 위즐리에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지. 기세 좋게 도착하고 싶었던 거냐?"

"아니에요, 선생님. 문제는 킹스 크로스의 개찰구였어요. 그게"

"조용히 해!" 스네이프 교수가 차갑게 말했다. "그 차로는 무슨 짓을 한 거지?"

론이 침을 꿀꺽 삼켰다. 해리는 예전에도 한번 그랬지만 스네이프 교수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잠시 뒤, 스네이프 교수가 오늘 발행된 '예언자' 석간을 펼치자, 그제야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너희들이 나왔더구나." 그가 그들에게 '날아다니는 포드 앵글리아가 머들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다'라는 1면 기사를 보여주며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는 큰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런던에 있는 머글 두 명은, 낡은 차 한 대가 분명히 우체국 탑 위로 날아가는 걸 보았다고 말한다. 노퍽에 사는, 헤티 베이리스 부인은 정오에 빨래를 널다가, 피블스의 앵구스 플리트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모두 해서 예닐곱 명의 머글들이다. 네 아버지가 머글 문화유산 오용 관리과에서 일하시지?" 그가 론을 올려다보며 훨씬 더 심술궂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런, 이런, 바로 그의 아들이."

해리는 꼭 성난 나무의 커다란 나뭇가지로 배를 호되게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만약 누구라도 위즐리 씨가 그 차에 마법을 걸었다는 걸 알아낸다면 그는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공원을 조사해보니, 매우 귀중한 커다란 버드나무에 상당한 손상이 입혀졌더구나." 스네이프 교수가 계속했다.

"그 나무가 저희들에게 더 많이 손상을 입혔어요." 론이 불쑥 말했다.

"조용히 해!" 스네이프 교수가 다시 날카롭게 말했다. "가장 유감스러운 일은, 너희들이 내 기숙사에 속해 있지 않아서 퇴학시킬 권한이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이야. 내가 가서 그 행복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꼼짝말고 있거라."

해리와 론은 얼굴이 새하얗게져서 서로를 뵈히 보았다. 해리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도 몰랐다. 이제 속이 메스꺼웠다. 그는 스네이프 교수의 책상 뒤 선반에 있는 초록색 액체 속에 떠있는 커다란, 불쾌한 물체들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만일 스네이프 교수가 그리핀도르 기숙사의 담당인 맥고나걸 교수를 데리러 간 것이라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질 게 없었다. 그녀는 스네이프 교수보다 편견이 적고 더 공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대단히 엄격했기 때문이다.

10분쯤 뒤, 스네이프 교수는 말할 것도 없이 맥고나걸 교수와 함께 돌아왔다. 맥고나걸 교수가 화를 낸 걸 몇 번 보긴 했지만, 이번처럼 화난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지팡이를 들어올렸다. 해리와 론은 둘 다 움찔했지만, 그건 그저 빈 벽난로 쪽을 가리켰던 것이었다. 벽난로에서 갑자기 평하는 소리가 나더니 불꽃이 타올랐다.

"앉아라." 그녀의 말에 따라 그들 모두 뒤로 물러나서 난롯가 의자에 앉았다.

"설명해 봐라." 그녀가 안경을 험악하게 번득이며 말했다.

론이 기차역의 개찰구가 그들을 들어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부터 그 이후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교수님. 그 기차에 탈 수 없었으니까요."

"왜 우리에게 부엉이로 편지를 보내지 않았니? 네가 부엉이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맥고나걸 교수가 해리에게 차갑게 말했다.

해리가 입을 벌리고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을 들으니, 확실히 그랬어야 할 것 같았다.

"미처 생 생각하지 못했어요."

"뻔하지."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사무실 문에 노크소리가 나자 스네이프 교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만족스런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거기엔 교장이 덤블도어 교수가 서 있었다.

해리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덤블도어 교수가 보통 때와는 달리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가 구부러진 코밀에 걸쳐진 안경 너머로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해리는 문득 차라리 아직도 그 커다란 버드나무에게 얻어터지고 있는 게 나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 뒤 덤블도어 교수가 말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설명해 보거라."

그가 소리를 질렀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았다. 해리는 실망이 가득 담긴 그의 목소리에 더욱 몸둘 바를 몰랐다. 그는 덤블도어 교수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무릎만 내려다보았다. 그는 위즐리 씨가 마법에 걸린 차를 갖고 있다는 말은 쏙 빼고 론과 함께 우연히 기차역 바깥에 날아 다니는 차가 세워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던 것처럼 꾸며 모든 것을 덤블도어 교수에게 말했다. 그는 덤블도어 교수가 이것을 즉시 꿰뚫어보리라는 걸 알았지만, 덤블도어 교수는 그 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해리가 말을 마쳤는데도, 그저 계속 안경 너머로 그들을 뵈히 바라보기만 했다.

"저희들 가서 짐 챙겨 올게요." 론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위즐리?" 맥고나걸 교수가 호통을 쳤다.

"저희들을 쫓아내실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론이 말했다.

"오늘은 아니에요, 위즐리 군." 덤블도어 교수가 말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일을 저질렀는지 각자 반성하도록 해요. 난 오늘 밤 여러분의 가족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시를 알릴 겁니다. 또한 만약 이런 일이 한번만 더 일어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을 퇴학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경고합니다."

스네이프 교수가 마치 크리스마스가 취소된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가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 이 아이들은 미성년 마법사들의 제한 법령을 무시하고, 오래되고 매우 귀중한 나무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런 성질의 조치들은 확실히."

"이 아이들의 처벌에 관해서는 맥고나걸 교수가 결정할 것입니다. 세베루스." 덤블도어 교수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 일은 그애들의 담임 교수인 맥고나걸 교수에게 맡겨둡시다." 그가 맥고나걸 교수에게로 돌아섰다. "난 연회장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맥고나걸 교수, 몇 가지 주의 줘야 할 게 있어서 말이오, 갑시다, 세베루스, 내가 맛보고 싶은 먹음직스런 커스타드 타트(우유, 계란에 설탕과 향료를 넣어 구운 파이:웁긴이)가 있는데."

스네이프 교수는 해리와 론을, 여전히 노기등등한 독수리처럼 노력하고 있는 맥고나걸 교수와 함께 내버려둔 채, 사무실

에서 획 나가며 그들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병동에 가는게 좋겠다. 위즐리, 피를 흘리고 있잖니."

"많이는 아니에요." 론이 눈 위에 난 상처를 소매로 급히 훔치며 말했다. "교수님, 전 제 여동생이 배정되는 걸 보고 싶어요."

"배정식은 끝났단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네 여동생도 그리핀도르에 들어왔단다."

"잘됐군요." 론이 말했다.

"그리고 그리핀도르는" 맥고나걸 교수가 말하는 순간 해리가 끼어들었다. "교수님, 저희들이 그 차를 가져간 건, 아직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핀도르는 그것 때문에 감점되어서는 안돼요. 그렇죠?" 그가 간절히 바라보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맥고나걸 교수가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지만, 그는 그녀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었다고 확신했다. 어쨌든 그녀의 입이 조금 전처럼 무섭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리핀도르에서는 감점하지 않겠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해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너희 둘 다 징계를 받아야 할 거야."

그건 해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았다. 덤블도어 교수가 더즐리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것,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해리는 그들이 오히려 커다란 버드나무가 그를 짓눌러 찌부러뜨리지 못한 걸 안타까워할 뿐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맥고나걸 교수가 다시 요술지팡이를 들어올리더니 스네이프 교수의 책상에다 갖다댔다. 그러자 평하며 커다란 샌드위치 접시와, 두 개의 은 술잔, 그리고 얼음이 담긴 호박 주스 단지가 나타났다.

"여기서 먹고 나서 곧장 기숙사로 올라가거라." 그녀가 말했다. "나도 연회장으로 돌아가 봐야겠다."

그녀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론이 휴하고 길고 낮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난 퇴학 맞는 줄 알았어." 그가 샌드위치 하나를 집으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해리도 하나를 집으며 말했다.

"하지만 재수 되게 없다, 그지?" 론이 치킨과 햄을 잔뜩 입에 넣은 채로 말했다. "프레드와 조지는 그 차를 타고 대 여섯 번을 날았어도 단 한 명의 머글에게도 발견된 적이 없었거든."

그가 꿀꺽 삼키고는 한입을 더 크게 베어먹었다. "그런데 우린 왜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한 걸까?"

해리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그가 호박 주스를 조금 들이켜며 말했다.

"우리도 연회장에 갔으면 좋았을걸."

"맥고나걸 교수님이 우리더러 곧장 기숙사로 올라가라고 하셨잖아." 론이 점잔빼며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날아 다니는 차로 학교에 들어오는 게 멋진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길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일 거야."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샌드위치를 먹자(접시는 계속해서 다시 채워졌다.) 그들은 일어서서 사무실을 나와, 친숙한 통로를 지나 그리핀도르 탑으로 올라갔다. 성은 조용했다. 연회가 끝난 것 같았다. 그들이 중얼거리는 초상화들과 삐걱대는 갑옷들을 지나 좁다란 돌계단을 올라가자, 마침내 그리핀도르로 가는 비밀 입구가 숨겨진, 핑크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아주 뚱뚱한 여인의 유화가 있는 통로가 나타났다.

"암호?" 그들이 다가가자 그녀가 말했다.

"어" 해리가 말했다.

그들은 그리핀도르의 반장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므로, 새 학년의 암호를 몰라 우물땀다. 바로 그때 도우미가 나타났다. 뒤에서 급히 서두르는 발자국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리자 헤르미온드가 달려오고 있었다.

"너희들 거기 있었구나! 도대체 어디에 갔었던 거니?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누가 그러는데 너희들이 글썽 날아다니는 차를 타고 학교에 들어오려다가 쫓겨났다는 거야."

"그런데, 우린 쫓겨나지 않았어." 해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럼 너희들이 이곳으로 날아온 건 확실하단 얘기니?" 헤르미온드가, 거의 맥고나걸 교수만큼이나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추궁은 그만두고," 론이 성급하게 말했다. "새 암호나 말해줘."

"'칠면조'야." 헤르미온드가 조바심하며 말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그 뚱뚱 여인의 사진이 핵 열리며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말이 거기서 끊기고 말았다. 그리핀도르 기숙사의 학생들이 모두 아직 잠을 자지 않고, 둥그런 학생 휴게실에 잔뜩 모여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탁자와 폭거진 안락의자에 선 채로, 그들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사진 구멍으로 팔들이 뻗어 나와 해리와 론을 안으로 잡아끌자, 헤르미온드도 그들을 따라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기막힌 착상이었어!" 리 조던이 소리쳤다. "감동적이었어! 그렇게 멋지게 학교로 들어오다니! 차를 타고 곧장 커다란 버드나무 속으로 날아가다니,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얘기할 거야."

"잘했어." 해리가 한번도 말을 해본적이 없는 어떤 5학년 짜리가 말했다. 그가 막 마라톤에서 1등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누군가가 그의 등을 두드려대고 있었다. 프레드와 조지가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걸어나와 일제히 말했다. "우리에게 왜 그 차로 오자고 하지 않았던 거지, 어?" 론이 얼굴을 붉히며, 멧쩍은 듯이 씩 웃었다. 그런데 그 때 해리의 눈에 퍼시가 들어왔다. 그는 흥분한 1학년생들 뒤에 서 있었는데 기빠하는 기색은커녕 금방이라도 잔소리를 퍼부어댈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해리가 슬쩍 론의 옆구리를 찔러 퍼시 쪽으로 고갯짓을 하자 론이 금방 그 뜻을 알아챘다.

"이층으로 올라가야겠어. 좀 피곤해." 론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 둘은 사람들을 헤치고 나선형 계단과 기숙사들로 이어지는 휴게실 반대편의 문 쪽으로 나아갔다.

"잘 자." 해리가 꼭 퍼시처럼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헤르미온드에게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등을 찰싹찰싹 때려대는 아이들 등상에 가까스로 빠져나왔고, 계단에 이르러서야 평온을 찾았다. 문에는 이제 2학년이라는 표시판이 붙어있었다. 그들은 다섯 개의 침대에 빨간 벨벳이 늘어져 있고, 높고 좁다란 창문이 있는 동그



란 방안으로 들어갔다. 가방은 이미 도착해서 침대 끝에 세워져 있었다.

론은 죄진 듯한 표정으로 해리를 보고 씩 웃었다.

"나도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때 기숙사 방문이 핵 열리더니 그리핀도르의 다른 2학년생인 시무스 피니간, 딘 토마스, 그리고 네빌 롱바텀이 들어왔다.

"믿을 수 없어!" 시무스가 말했다.

"멋져." 딘이 말했다.

"놀라워." 감동받은 네빌이 말했다.

해리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역시 씩 웃었다.

제6장

질데로이 록허트

그러나 그 다음날, 해리는 거의 한번도 웃지 못했다. 연회장에서 아침을 먹을 때부터 상황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마법에 걸린 천장(오늘은 우중충하고, 구름이 잔뜩 끼인 회색빛이었다) 밑의 길다란 네 개의 기숙사 테이블에는 포리지(오트밀에 우유 또는 물을 넣어 만든 죽:옴긴이)가 담긴 뚜껑달린 움푹한 그릇과, 훈제 청어가 담긴 접시와, 산더미 같은 토스트와, 달걀과 베이컨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해리와 론은 그리핀도르 테이블에서 '흡혈귀와의여행' 책을 펼쳐 우유 단지에 받쳐 놓고 읽고 있는 헤르미온느의 옆자리에 앉았다. "안녕"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어투가 약간 딱딱하게 들리는 것으로 봐서 그녀가 아직도 그 날아 다니는 차 사건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게 분명했다. 네빌 롱바텀이 맞은편에서, 유쾌하게 인사를 했다. 둥그런 얼굴의 네빌은 해리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기억력이 가장 나쁜 사고 멍치였다.

"우편물이 곧 도착할 거야. 아마 할머니가 내가 잊고 가져오지 않은 몇 가지를 보내실거야."

해리가 막 포라지를 한순가락 뜨기 시작했을 때, 정말로 머리 위에서 급히 날갯짓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백 마리의 부엉이가 잇따라 들어와 홀을 빙빙 돌며, 재잘거리는 사람들에게 편지와 소포들을 떨어뜨렸다. 육중한 커다란 꾸러미 하나가 네빌의 머리로 떨어졌고, 잠시 뒤, 커다란 회색빛의 무언가가 헤르미온느의 우유 단지 안으로 툭 떨어지면서 그들 모두에게 우유와 깃털을 튀겼다.

"에롤!" 론이 더러워진 부엉이의 발을 잡아끌며 말했다. 에롤이 폭 젖은 빨간 봉투 하나를 부리에 물고 다리를 공중으로 쳐든 채 의식을 잃고 테이블 위로 쿵 떨어졌다.

"이런" 론은 숨이 막혔다.

"괜찮아, 아직 살아있어." 헤르미온느가 손가락 끝으로 에롤을 부드럽게 찌르며 말했다.

"그거 말고 저거"

론이 빨간 봉투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건 해리에게는 아주 평범하게 보였지만, 론과 네빌은 둘다 그것이 금방 폭발하기라도 할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해리가 물었다.

"엄마가 내게 호울러를 보냈어" 론이 머무적거리며 말했다.

"뜯어보는 게 좋을 거야, 론." 네빌이 수줍어 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며 좋지 않을 거야. 내게도 할머니가 한번 그것을 보낸 적이 있는데 모른 체했다가 그만" 그가 침을 꿀꺽 삼켰다. "끔찍했어."

해리는 그들의 겁먹은 얼굴과 그 빨간 봉투를 번갈아 보았다.

"호울러가 뭔데?" 그가 물었다.

하지만 론의 정신은 오통 한쪽 귀통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그 편지에 쏠려 있었다.

"뜯어 봐." 네빌이 재촉했다. "몇 분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론이 떨리는 손을 뻗어 에롤의 부리에서 봉투를 빼내어 세로로 가느다랗게 찢어 열었다.

네빌이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잠시 뒤에야, 해리는 그 이유를 알았다. 그는 잠시동안 그것이 폭발했다고 생각했다. 고함소리가 그 거대한 홀을 찌렁찌렁 울리며, 천장에서 먼지들을 떨어냈다.

"차를 훔치다니, 엄만 네가 학교에서 쫓겨났어도 놀라지 않았을 거다. 당장 잡으로 갈 테니 기다려라, 차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네 아버지와 엄마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겠지."

보통 때보다 수백 배나 더 큰 위즐리 부인의 고함소리가 테이블에 놓인 접시와 손가락들을 덜커덕거리게 했고, 귀청이 터질 것처럼 돌 벽에 울려 퍼졌다. 연회장 여기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누가 호울러를 받았는지 보려고 두리번거렸고, 론은 의자 밑으로 깊숙이 숨어 새빨간 이마만 보였다.

"어젯밤에 덤블도어 교수님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네 아버지는 아마 창피해서 죽을 지경일 게다. 우린 널 이런 식으로 키우지 않았다. 너와 해리 모두 죽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니."

해리는 자신의 이름이 언제 튀어나올까 걱정하고 있던 차에 그 소리를 듣자, 고막을 진동시키고 있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 척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정말 언더리가 난다. 네 아버지는 직장에서 조사를 받고 계신다. 너 때문에 말이다. 만약 한번만 더 규칙을 어겼다면 당장 집으로 끌고 올 줄 알아라."

귀가 멍멍했다. 그 빨간 봉투가 론의 손에서 툭 떨어져, 갑자기 타오르더니 순식간에 재로 변해버렸다. 해리와 론은 마치 해일이 지나가기라도 한 듯, 어리벙벙한 얼굴로 앉아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소리내어 웃는가 싶더니, 점차 다시 왁자지껄 해졌다.

헤르미온느가 '흡혈귀와 의 여행' 책을 덮고 론의 머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럴 줄 알았어, 론, 넌"

"그래도 싸다고 말하진 마." 론이 말을 탁 끊었다.

해리는 포리지를 밀었다. 죄책감으로 속이뒤틀렸다. 위즐리 아저씨가 직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위즐리 부부가 여름 내내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맥고나걸 교수가 그리핀도르 테이블을 따라 걸어오며, 학과 과정

시간표를 나눠주고 있었다. 시간표를 받아 든 해리는 약초학 수업을 후플푸프와 함께 듣게 되었다는 걸 알았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드는 함께 성을 나와 채소밭을 가로질러가 신비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온실로 향했다. 적어도 그 호울러는 한 가지 좋은 일을 했었다. 헤르미온드가 이제는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호의적으로 대해주었던 것이다.

온실로 가자 이미 아이들이 바깥에 서서 스프라우트 교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드가 그 무리 속에 끼자마자 그녀가 질데로이 록허트와 함께 잔디밭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스프라우트 교수의 팔은 온통 반창고 투성이었고, 저 멀리서 서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나뭇가지에 봉대를 친친 감고 있는 걸 발견하자 해리는 또 한번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스프라우트 교수는 바람에 나부끼는 머리에 여기저기 기운 모자를 눌러쓴 땅딸막한 작은 마녀였다. 그녀의 옷에는 언제나 흙이 묻어 있었으며 만약 페투니아 이모가 그녀의 손톱을 봤다면 아마 기절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질데로이 록허트는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청록색 망토를 입고 있었으며, 조금도 빠뜨어지지 않고 똑바로 씌워진 금테가 둘러진 모자 밑에서는 아름다운 금발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가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밝게 미소지으며 외쳤다. "스프라우트 교수에게 지금 막 커다란 버드나무를 치료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렸답니다! 하지만 내가 그녀보다 약초학을 더 많이 안다고 지레짐작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난 그저 여행 중에 이들 색다른 식물들 몇 가지를 우연히 접했을 뿐이니까요."

"오늘은 3번 온실이다!" 스프라우트 교수가 평상시의 명랑한 모습과는 달리, 아주 불만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흥미롭다는 듯 여기저기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전에는 1번 온실에서만 작업했던 것이다. 3번 온실에는 훨씬 더 흥미롭고 위험한 식물들이 있었다. 스프라우트 교수가 벨트에서 커다란 열쇠 하나를 꺼내 온실의 자물쇠를 열었다. 해리는 축축한 흙냄새와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우산만한 거대한 꽃들의 진한 향기와 뒤섞인 비료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가 론과 헤르미온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록허트가 손을 짚 뺐었다.

"해리! 얘기 좀 나누자. 이 애가 2, 3분 정도 늦어도 괜찮으시겠조, 스프라우트 교수님?"

스프라우트 교수의 찌푸린 얼굴로 볼 때, 전혀 괜찮은 것 같지 않았지만, 록허트는 "아 정말로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는 그녀의 얼굴 앞에서 온실 문을 광 닫았다.

"해리." 록허트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그의 커다란 하얀 이빨이 햇빛을 받아 번득였다. "해리, 해리, 해리."

해리는 난처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글세, 물론, 그건 다 내 잘못이었어. 나 자신을 탓해야겠지."

해리는 그가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을 때 록허트가 말을 계속했다. "내가 더 충격받았던 게 언제였는지 아니? 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 호그와트로 오다니! 글세, 물론,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금방 알았지. 굉장히 두드러졌어. 해리, 해리, 해리."

말할 때뿐만 아니라 말하고 있지 않을 때도 그가 그 멋진 이빨을 어떻게 다 내보일 수 있는건지 참으로 놀라웠다.

"내가 네게 명성의 맛을 보여주었지, 안 그랬니?" 록허트가 말했다. "네게 잘난 체하게 해주었지. 넌 나와 함께 신문 제1면에 실리자 또다시 그렇게 하고 싶어 못 견뎠던 거야."

"아니에요, 교수님, 그게."

"해리, 해리, 해리." 록허트가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난 이해할 수 있어. 명성이란 것은 그 첫 맛을 보면 더 빠지게 되어 있어. 네게 그런 기회를 준 나 자신을 탓해야지, 그것 때문에 명성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말야. 하지만 애야, 주목받으려고 날아 다니는 차를 타면 안되지. 침착해야 해, 알겠지?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단다. 그래, 그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그 사람 때문이다, 그가 벌써 국제적으로 유명한 마법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겠지. 하지만 내가 12살이었을 때, 난 오늘의 너에 비하면 그저 보잘 것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단다! 무슨 말이고 하니 네가 굉장히 유명한 마법사처럼 여겨지겠지만 실은 일부 소수의 사람 들만이 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뜻이란다. 안그러니? 이름을 말해서는 안될 그 사람과의 그 일 모두를 말이다!" 그가 해리의 이마에 난 번개 모양의 흉터를 훑듯 쳐다보았다. "안다, 알야. 그게 내가 마녀 주간지의 '가장 매력적인 미소상'을 연달아 다섯 번 받은 것만큼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걸 말이다. 하지만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 해리, 유리한 조건이야."

그가 해리에게 애정 어린 눈짓을 한번 해 보이고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해리는 어리벙벙해서 잠시 서 있다가, 온실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문을 열고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다.

스프라우트 교수가 온실 한가운데에 있는 긴의자 뒤에 서있었다. 의자 위에는 스무 개쯤 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방한용 귀가리개가 놓여져 있었다.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드 사이로 들어가 서자, 그녀가 말했다. "우린 오늘 맨드레이크를 다른 큰 화분에 옮길 거예요, 자, 누가 맨드레이크의 성질을 말해줄 수 있을까?"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헤르미온드의 손이 가장 먼저 번쩍 올라갔다.

"맨드레이크는 맨들라고라고도 불리는 강력한 의식 회복제입니다." 헤르미온드가 평상시처럼 교과서를 통째로 삼켜버리기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말했다. "그것은 변신되었거나 저주받은 사람들을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훌륭해요, 그리핀도르에 10점을 주겠어요." 스프라우트 교수가 말했다. "맨드레이크는 대부분의 해독제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러나 위험하기도 해요. 누가 그 이유를 말해 줄 수 있을까?"

헤르미온드의 손이 다시 번쩍 올려지며 해리의 안경을 살짝 쳤다.

"맨드레이크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바로 맞았어요. 10점을 더 주겠어요." 스프라우트 교수가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맨드레이크들은 아직 어려워요." 그녀가 말하면서 주르르 늘어서 있는 깊숙한 상자들을 가리키자, 모두가 더 잘 보려고 앞으로 다가섰다. 술이 많이 달린 보랏빛 도는 초록색 식물 100여개가 열을 지어서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헤르미온드가 말한 맨드레이크의 '울음'이라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던 해리에게는 그것들이 그다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모두 귀가리개를 끼세요." 스프라우트 교수가 말했다.

모두 복슬복슬한 핑크빛이 아닌 다른 귀 가리개를 잡으려고 쟁탈전을 벌였다.

"내가 귀 가리개를 쓰라고 말하면, 귀가 완전히 덮여졌는지 확인하세요." 스프라우트 교수가 말했다. "그것을 빼도 안전 할 때가 되면, 내가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려 표시를 해 주겠어요. 좋아요. 귀 가리개 착용."

해리는 얼른 귀 가리개를 꼈다. 그것을 끼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스프라우트 교수는 복슬복슬한 핑크빛의 귀 가리개를 귀에 대고는, 망토 소매를 걷어올리더니, 술이 많은 그 식물을 하나 단단히 잡고, 세세 뽑아냈다.

비록 아무도 들을 수는 없었지만 해리는 놀라서 가쁜 숨을 내뿔었다.

땅에서는 뿌리 대신에, 진흙 투성이의 아주 작고 못생긴 어린아이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 아이의 머리 바로 위에서 앞들이 자라고 있었다. 피부에 얇은 초록빛의 얼룩덜룩 반점이 있는 그 아이가 목청이 터져라 큰소리로 울어대고 있었다.

스프라우트 교수는 탁자 밑에서 커다란 화분을 하나 꺼내 그 맨드레이크를 그 안으로 던져 넣더니, 술이 달린 앞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아이를 거무스름하고, 축축한 퇴비 속에 묻었다. 그리고는 손에서 먼지를 털어 내고는 그들 모두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자신의 귀 가리개를 벗었다.

"여기 온실에 있는 맨드레이크들은 묘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녀가 마치 베고니아에 물을 주는 것 같은 아주 간단한 일에 대해 설명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나 몇 시간동안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위력이 대단하므로, 학기 첫 날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작업하는 동안 귀 가리개가 귀를 잘 가리고 있는지 단단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작업을 그만둘 때가 되면 알려주겠어요."

"한 상자에 네 명씩, 여기엔 화분들이 있고, 퇴비는 저쪽 자루에 있어요. 그리고 베네무스 텐타쿨라를 조심하세요, 표면이 까칠까칠하니까요."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드가 잡은 상자에, 해리가 얼굴을 알고 있지만 말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후플푸프의 곱슬머리 남자아이가 합류했다.

"저스틴 핀치 플레츨리아." 그가 해리와 악수를 나누며 밝게 말했다. "너희들이 누군지 물론 알아. 그 유명한 해리 포터. 그리고 너 헤르미온드 그레인저. 모든 것에서 항상 1등이지. (헤르미온드도 악수를 하며 밝게 미소지었다) 그리고 론 위즐리. 날아 다니는 차가 너네 차 아니었니?"

론은 미소짓지 않았다. 호올러가 여전히 마음 속에 남아있는게 분명했다.

"룩허트 교수는 정말 대단해, 안 그러니?" 식물 화분에 용의 똥 퇴비를 채우기 시작하며 저스틴이 유쾌하게 말했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야. 그의 책들 읽어봤니? 나 같으면 늑대인간에 쫓겨 전화 부스 속에 갇히면 무서워서 죽어버렸을 텐데, 그는 태연하게 있다가 단숨에 해치워 버렸어. 그저 놀라울 따름이야. 나는 사실 이튼교(1440년에 설립된 영국의 전통 있는 사립 중학교:웁킨이)에 가기로 되어 있었어. 하지만 난 그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오게 된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물론, 엄마는 약간 실망하셨지만, 룩허트의 책들을 읽으신 뒤로는 가족 중에 충분히 교육받은 마법사가 한 명쯤 있다는게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되신 것 같아."

그 이후 말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귀 가리개를 다시 착용했으므로 온 정신을 맨드레이크에만 집중해야 했다. 스프라우트 교수가 시범을 보일 때는 그 일이 아주 쉬워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맨드레이크는 땅서 나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다시 땅 속으로 돌아가는 것도 바라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것들은 몸부림치고, 발길질을 하고, 날카로운 작은 주먹을 휘두르는 가 하면, 이빨을 뽀뽀뽀 갈기도 했다. 해리는 아주 살찐 녀석을 화분 속으로 밀어 넣느라 꼬박 10분을 보내야 했다.

수업이 끝날 즈음, 해리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땀 투성이에, 온몸이 수셨으며, 온통 흙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모두들 성으로 돌아가 부리나케 씻었고, 그리핀도르 학생들은 서둘러 변신술 수업을 받으러 갔다.

맥고나걸 교수의 수업은 언제나 힘들었지만, 오늘은 특히 더했다. 해리는 여름 방학동안 작년에 배웠던 것들이 모두 머리 속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딱정벌레를 단추로 변신시켜야 했지만, 딱정벌레가 책상위에서 요술지팡이를 피해 요리조리 달아났으므로, 그는 그저 딱정벌레에게 운동만 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론에겐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다. 그는 마법 테이프를 빌려 요술지팡이를 일시적으로 붙였는데,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전혀 고쳐질 것 같지가 않았다. 그것은 이따금씩 우지직우지직 소리를 내며 불꽃이 튀곤했으며, 론이 딱정벌레를 변신시키려고 할 때마다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진한 회색빛 연기를 뿜어냈다. 자욱한 연기 때문에 주위를 살필 수없었던 론은 그 만 팔꿈치로 딱정벌레를 눌러 짜부러뜨리는 바람에 새 딱정벌레를 얻어야 했다. 맥고나걸 교수는 매우 못마땅해했다.

해리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자 마음이 놓였다. 그는 뇌가 마치 짜부라진 스펀지처럼 느껴졌다. 요술지팡이로 책상을 미친 듯이 내려치고 있는 론과 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줄지어 교실 밖으로 나갔다.

"빌어먹을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하나 더 사달라고 집에 편지 해." 그의 요술지팡이가 폭죽처럼 연달아 탕탕탕 소리를 내자 해리가 넋지시 말했다.

"그랬다간 호올러를 하나 더 받게." 론이 이제 쉿 소리를 내고 있는 지팡이를 가방 속에 쑤셔 넣으며 말했다. "지팡이를 부러뜨린 건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점심을 먹으러 내려갔을 때 헤르미온드가 변신술 수업에서 만들어낸 한 줌의 완벽한 코트 단추들을 보여주자 론은 기분이 더 우울해졌다.

"오늘 오후엔 무슨 수업이 있지?" 해리가 급히 화제를 바꾸며 말했다.

"어둠의 마법 방어법." 물어보기가 무섭게 헤르미온드가 즉각 대답했다.

"왜." 론이 그녀의 시간표를 잡으며 물었다. "룩허트의 강의마다 작은 하트를 그려놓은 거니?"

헤르미온드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그 시간표를 다시 핵 낚아챘다.

그들은 점심을 다 먹고 구름이 잔뜩 낀 안마당으로 나왔다. 헤르미온드는 돌계단에 앉아 다시 '흡혈귀와의 여행' 책에 몰두했다. 해리와 론은 서서 퀴디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 해리는 누군가가 자신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고개를 든 해리는 지난밤에 우연히 마법의 분류 모자를 쓰고 배정받으려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자그마한 회색빛 머리의 남자아이가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히기라도 한 듯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보통 머글 카메라처럼 생긴 것을 움켜잡고 있었는데, 해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선홍색으로 변했다.

"맞지, 해리? 난, 난 콜린 크리비아." 그가 주저하듯 앞으로 한 발짝 내딛으며 숨가쁘게 말했다. "나도 그리핀도르에 있어. 저기 사진 한 장 찍어도 괜찮지?" 해리가 허락해주길 바라는 듯 그가 카메라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사진?" 해리가 멍하니 되풀이해서 물었다.

"내가 널 만났다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말야." 콜린 크리비가 조금 더 앞으로 다가오며 간절히 말했다. "난 너에 대해 모두 알아. 아이들이 말해주었어. 그 사람이 죽으려 했을 때 네가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그가 어떻게 사라져서 어떻게 이마에 여전히 번개 모양의 흉터를 갖게 되었는지 모두 다 말야." 그의 시선이 해리의 이마로 향했다. "그리고 우리 방에 있는 아이가 그러는데 필름을 적당한 양의 약물 속에 넣어 현상하면, 사진들이 움직인대." 콜린이 흥분으로 몸을 떨었다. "이곳은 놀라운 곳이야, 안그래? 난 호그와트에서 편지를 받을 때까지 내가 가끔씩 하던 이상한 행동이 마법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 우리 아버지 우유 배달부인데, 내가 마법 학교에 가게 되었다는 걸 전혀 믿지 못하셨어. 그래서 집에 계신 아버지께 보내드리려고 많은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네 사진 하나쯤 갖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구 말야." 그가 해리에게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 친구도 함께 찍어도 돼. 나도 네 옆에 서서 찍어도 될까? 그리고 사진이 나오면 사인해줄 수 있지?"

"사인이 있는 사진들이라구? 너 사인이 있는 사진들을 배포할 거니, 포터?"

크고 가차없는 드레이크 말포이의 목소리가 안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는 호그와트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몸집이 크고 불쾌하게 생긴 친구 크레이브와 고일의 호위를 받으며, 콜린 바로 뒤에 서있었다.

"모두들 모여 봐!" 말포이가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해리 포터가 사인이 있는 사진들을 배포한다!"

"아냐, 그렇지 않아." 해리가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입 닥쳐, 말포이."

"너 시기하는 거지?" 온몸이라고 해봐야 크레이브의 목 굽기 만큼밖에 되지 않는 콜린이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다.

"시기한다구?" 말포이가 말했다. 안마당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듣고 있었으므로 그는 더 이상 소리지를 필요가 없었다.

"뭐에 대해서? 고맙지만, 이마에 난 불쾌한 흉터 따윈 난 갖고 싶지도 않아. 이마에 모두가 알고 있는 흉터를 갖고 있다고 특별해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야."

크레이브와 고일이 멍청하게 낄낄거리고 있었다.

"엠티나 먹어, 말포이." 론이 화가 나서 말했다. 크레이브가 웃음을 멈추고 위협하는 듯이 손가락 마디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조심해, 위즐리!" 말포이가 비웃으며 말했다. "문제를 또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말야. 그랬다간 네 엄마가 학교에 와서 널 당장 끌고 갈 테니까 말야." 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흥내를 냈다. "한번만 더 규칙을 어겼다면."

근처에 있던 슬리데린의 5학년 학생들이 이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웃었다.

"위즐리는 분명 사인이 있는 사진을 갖고 싶을 거야, 포터."

말포이가 능글맞게 웃었다. "그건 그 애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보다도 값이 훨씬 더 나갈 테니까."

론이 마법의 테이프를 붙인 지팡이를 책 끄집어내자, 헤르미온드가 '흡혈귀와의 여행' 책을 탁 덮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웬 소동들이니, 웬 소동들이야?" 질데로이 록허트가 청록색 망토를 휘날리며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누가 사인이 있는 사진들을 배포한다는 거지?"

해리가 말하려고 했지만 록허트가 그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는 큰소리로 유쾌하게 "하하 물을 필요도 없었군. 또 만났구나, 해리!" 라고 말하는 바람에 말이 중단되고 말았다.

해리는 록허트의 옆구리에 꿈쩍 못하게 눌러서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다. 말포이는 히죽히죽 웃으며 사람들 뒤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어서, 크라비 군." 록허트가 콜린에게 밝게 미소지으며 말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 그러면 더 좋을 거야, 우리가 둘 다 사인해주지."

콜린이 카메라를 손으로 더듬으며 셔터를 누르자마자 뒤에서 오후 수업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어서들 가라, 어서." 록허트는 주위에 둘러서 있던 아이들에게 큰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해리와 함께 성으로 걸어갔다.

해리는 여전히 그의 옆구리에 꼭 끼안긴 채, '사라져버리는 마법'을 알았더라면 하고 바랐다.

"조언을 하나 해주마, 해리." 건물의 옆문으로 들어가며 록허트가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크리비가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일부러 널 도와준 거란다. 잘난 척 한다는 건 호감을 살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니, 그 애가 내 사진도 찍는다면, 학교 친구들이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해리의 중얼거림은 들은 척 만 척한 채, 록허트는 그의 옷자락을 끌고 학생들이 죽 늘어선 뒤편에 있는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겨우 이런 정도의 출세로 사인을 한 사진들을 나누어주는 건 현명하지 않은 처사라는 걸 말해주고싶구나. 솔직히 말해, 난 좀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해리. 언젠가는 너도 나처럼 어디를 가든 유명세를 치를 때가 오겠지만, 하지만." 그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 같구나."

해리는 록허트의 교실에 다다라야 비로소 그의 손에서 놓여날 수 있었다. 해리는 L망토를 책 잡아당겨 똑바르게 하고 교실 맨 뒤에 있는 자리로 갔다. 그리고 진짜 록허트가 보이지 않도록 서둘러 앞애다 록허트의 책 일곱 권을 다 쌓아놓았다.

나머지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들어오고 있었고, 론과헤르미온드는 해리의 양쪽에 앉았다.

"네 얼굴에다 달걀 프라이 해먹어도 되겠다." 론이 말했다.

"크리비가 지니를 만나지 않길 바라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애들이 해리 포터 팬클럽을 만들 테니까."

"조용히 해." 해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록허트가 혹시 '해리 포터 팬클럽'이라는 문구를 들을 까봐 전전긍긍했다. 학생들이 다 자리에 앉았을 때, 록허트가 요란하게 목을 가다듬자 실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가 앞으로 손을 뻗어, 네빌 롱바텀의 '트롤과의 여행' 책을 집더니 그 책을 높이 들어올려 앞표지에서 윙크를 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바로 납니다." 그가 그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진에서와 똑같이 링크를 해보였다. "질데로이 록허트, 멀린 서열, 3급, 어둠의 힘 방어법 리그전의 명예 회원, 그리고 '마녀주간지'의 가장 매력적인 미소 상 다섯 차례 수상.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뻔뻔 뻔시(죽을 사람이 있음을 통곡으로 예고한다는 여자 요정:웁긴이)를 미소로 없앤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는 그들이 웃길 기다렸다. 그러나 소수의 몇 명만이 희미하게 미소지었을 뿐이었다.

"여러분들이 모두 내 책을 질로 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오늘은 그저 짧은 퀴즈 문제로 시작할 까 합니다.

걱정할 건 없어요. 그저 여러분들이 그 책들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나, 또 얼마나 많이 이해했나 알아보는 것뿐이니까."

그가 시험 문제지들을 다 나눠준 뒤 다시 교탁 앞으로 돌아가 말했다. "30분 주겠습니다. 자, 시작!"

해리는 시험지를 내려다보고 읽었다

1. 질데로이 록허트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일까?

2. 질데로이 록허트의 비밀 야망은 무엇일까?

3. 지금까지 질데로이 록허트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가 시험지 석장에 걸쳐 계속되다가 맨 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54. 질데로이 록허트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또 그의 이상적인 생일 선물은 무엇일까?

30분 뒤, 록허트가 시험지들을 거두더니 아이들 앞에서 하나하나 살폈다.

"이런, 이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라일락 색이라는 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군. 내가 '설인과 보낸 일년' 책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몇 명은 '늑대인간과 돌아다니기' 책을 좀더 주의깊게 읽어야겠군. 난 12장에서 내 이상적인 생일 선물이 마법사들과 마법사가 아닌 사람들 간의 조화라고 명확히 말했는데. 그렇다고 커다란 '오젠스 올드 파이어 위스키'를 사야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말야!"

그가 그들에게 또 한번 장난기 있는 링크를 했다. 론은 이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록허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앞에 앉아있는 시무스 피니간과 딘 토마스는 소리를 죽이고 킬킬대고 있었다.반면에 헤르미온느는 록허트의 말에 폭 빠져 있다가 그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헤르미온느 그레이저 양만은 내 비밀 야망이 악의 세계를 없애고 내 머리 손질 약을 상품화해서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군요. 잘했어요! 사실 " 그는 그녀의 시험지를 핵 뒤집었다. "만점입니다. 헤르미온느 그레이저 양 어디있죠?"

헤르미온느가 떨리는 손을 들어올렸다.

"훌륭해요. 록허트가 환하게 미소지었다. "아주 훌륭해요. 그리핀도르에게 10점을 주겠어요. 그러면 자 수업으로 돌아갑시다."

그가 책상 뒤로 허리를 굽히더니 덮개를 씌운 커다란 우리 하나를 들어올렸다.

"자 조심하세요. 내 임무는 지금까지 마법사들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위험한 생물에게도 맞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교실에서 최악의 공포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단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그저 침착하라는 것뿐입니다."

해리는 저도 모르게, 그 우리를 더 잘보려고 책 더미 옆으로 몸을 기울였다 록허트가 그 덮개 위에 손을 얹었다. 딘과 시무스는 이제 웃지 않았다. 네빌은 앞좌석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비명은 절대로 지르지 않길 바랍니다." 록허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생물들을 자극할지도 모르니까요."

학급 전체가 숨을 죽였을 때, 록허트가 그 덮개를 핵 벗겼다.

"그렇지." 그가 극적으로 말했다. "콘월(영국 남서부의 주:웁긴이)에서 금방 잡힌 작은 요정입니다."

시무스 피니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가 픽 하고 코방귀 소리를 냈다. 그건 누가 들어도 절대로 공포의 비명은 아니었다.

"무슨 일이죠?" 록허트가 시무스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들은, 그것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잖아요, 안그런가요?" 시무스는 웃느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너무 그렇게 확신하지는 말아요." 록허트가 화가 나서 시무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다. "그것들도 대단히 흉악한 악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작은 요정들은 밝고 차가운 느낌의 파란색으로, 얼굴은 뾰족했고, 키는 대략 20센티미터 정도였는데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웠던지 마치 많은 잉꼬들이 떠들어대는 걸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덮개가 벗겨지는 순간 요정들은 재잘거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는가 하면, 창살을 잡고 흔들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자, 그럼." 록허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녀석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죠." 그리고는 우리 문을 열어버렸다.

그건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 작은 요정들이 로켓처럼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요정 두명은 네빌의 귀를 잡고 그를 공중으로 들어올렸고, 몇 명은 곧장 창문으로 돌진해 나가는 바람에 그 뒷줄에 있던 사람들이 깨진 유리조각을 온통 뒤집어써야 했다. 나머지 요정들은 미쳐 날뛰는 코뿔소처럼 교실을 돌아다니며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잉크병을 잡아 사람들에게 뿌리고, 책과 종이들을 갈가리 찢는가하면, 벽에 붙은 사진들을 북북 떼어내고, 쓰레기통을 뒤집어엮고, 가방과 책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깨진 창문밖으로 내던졌다. 잠깐 사이에 반 아이들 절반이 책상 밑에 피해 있었고, 네빌은 천장에 있는 철로 만든 상들리에에 매달려 있었다.

"자, 이제 그것들을 한곳으로 몰아 모으세요, 그것들은 그저 작은 요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록허트가 큰소리로 말했다.

그가 소매를 걷어올리더니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페스키피시 페스테르노미."

그러나 그건 전혀 효과가 없었다. 더구나요정 하나가 그 지팡이를 낚아채어 창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또 그때 록허트는 상들리에가 무너져 내리면서 떨어지는 네빌을 피하려고 허겁지겁 책상 밑으로 숨기에 바빴다.

종이 울리자 사람들이 허둥지둥 출구로 몰려갔다. 좀 잠잠해지자 똑바로 일어난 록허트가 거의 문앞에 가 있는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를 발견했다. "너희들 셋이 나머지 요정들을 잡아 우리 속으로 좀 넣어줘야겠다." 그가 그들 옆으로 휙 지나가 밖으로 나간 뒤 얼른 문을 닫았다.

"저 사람 뭐 저래?" 남아있는 요정들 중 하나가 귀를 짹 몰자 론이 큰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저 우리에게 약간의 실제 훈련을 시켜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헤르미온드가 똑똑하게도 '냉동마법'으로 금방 두 요정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다시 우리속으로 밀어 넣으며 말했다.

"실제훈련?" 허를 쏙 내밀며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춤추며 도망가는요정 하나를 잡으려고 애쓰며 해리가 말했다. "헤르미온드,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전혀 몰랐어."

"솔데 없는 소리."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넌 그의 책들을 읽지도 않았니.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말은 누가 못해?" 론이 투덜거렸다.

제7장

잡종과 속삭임

해리는 그 다음 며칠동안 내내 복도에서 질데로이 록허트 교수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며 보냈다. 그러나 피하기가 더 어려운 건, 해리의 시간표를 줄줄이 꿰고 있는 것 같은 콜린 크리비였다. 콜린에게는. 해리의 기분이야 어떻든, 하루에도 대 여섯 번씩 "안녕, 해리?" 라고 인사하며, "안녕, 콜린"이라는 대답을 듣는 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았다.

헤드위그는 그 비참한 자동차 여행 때문에 해리에게 여전히 화나 있었고, 론의 요술지팡이는 여전히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아침 마법 수업 시간에는 지팡이가 론의 손에서 쏠살같이 튀어나가 작은 노인인 플리트윅 교수의 미간을 정면으로 쳐서 그 부분에 육신육신 쏘시는 큼지막한 혹을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해리는 주말이 다가오는 게 무척이나 기뻐했다. 그는 론과 헤르미온드와 함께 토요일 아침에 해그리드를 찾아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해리는 그러나 그리핀도르 퀴디치 팀의 주장인 올리버 우드가 흔들려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려고 했더니 시간보다 몇시간이나 더 일찍 일어나야 했다.

"무슨 일이야?" 해리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퀴디치 연습이야." 우드가 말했다. "어서."

해리는 창문을 훑듯 보았다. 핑크빛과 황금빛이 도는 하늘에 얽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잠이 깨자, 그는 새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 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올리버," 해리가 쉼 목소리로 말했다. "새벽이야."

"나도 알아." 우드가 말했다. 그는 키가 크고 몸이 역센 6학년생이었는데, 그의 눈은 그 순간 굉장한 열정으로 번득이고 있었다. "오늘부터는 새벽에 훈련하기로 했어. 어서, 빗자 를 잡고, 나가자."우드가 힘차게 말했다. "다른 팀은 아직 훈련을 시작하지 않았어. 금년에는 우기가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을 작정이야."

해리는 하품을 하며 진저리를 치고는, 침대에서 기어나와 퀴디치 망토를 찾았다.

"좋았어." 우드가 말했다. "그럼 15분 후에 경기장에서 만나자."

자줏빛의 팀 망토를 찾아 입고 겹옷을 하나 더 입은 뒤, 해리는 론에게 어디로 가는 지 메모를 써놓고는 어깨에 넘부스 2000을 메고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 학생 휴게실로 갔다.그런데 초상화 구멍에 막 도달했을 때 뒤에서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났다. 콜린 크리비가 목에 걸린 카메라를 미친 듯이 흔들며 손에 무언가를 잡고 나선형 계단을 허둥지둥 내려오고 있었다.

"계단에서 누군가가 네 이름을 부르는 소릴 들었어, 해리. 이것 좀 봐. 사진 현상을 했는데, 네게 보여주고 싶었어."

해리는 콜린이 코밀으로 내미는 흑백사진들을 어리벙벙하게 바라보았다.

움직이는 록허트가 해리의 것으로 생각되는 팔을 힘껏 잡아 당기고 있었다. 그는 사진에 나온 자신이 너무나 확연하게 발버둥을 치며 몸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자 왠지 기분이 좋았다. 해리가 계속 지켜보자, 록허트가 더 이상 안되겠는지 포기하고는 숨을 헐떡이며 사진의 흰 가장자리 부분으로 무너지듯이 털썩 주저앉았다.

"사인해 줄래?" 콜린이 몹시 바라는 듯 간절히 말했다.

"싫어," 해리가 그곳에 혹시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주위를 흘끔 둘러보며 딱 잘라 말했다. "미안해, 콜린. 난 좀 바빠. 퀴디치 연습이."

그리고는 작은 초상화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와, 정말이야. 기다려 난 퀴디치 경기를 한번도 보지 못했어."

콜린이 그를 따라 구멍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굉장히 지루할 거야." 해리가 얼른 말했지만, 콜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을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네가 기숙사에서는 100년 만에 최연소 선수라지, 안 그래. 해리?" 콜린이 총총 걸음으로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넌 틀림없이 아주 잘 할 거야. 난 날아본적이 없어. 그런데 쉽니? 그게 네 빗자루니? 그게 최고의 빗자루야?"

해리는 그를 어떻게 떼어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꼭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재잘재잘 쉬지않고 떠들어댔다.

"난 사실 퀴디치를 잘 몰라." 콜린이 숨가쁘게 말했다. "네개의 공이 있다는 게 사실이니? 그리고 그중 두 개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사람들을 빗자루에서 떨어뜨린다는 것도?"

"그래." 퀴디치의 복잡한 경기규칙을 설명하지 않으려 했던 해리가 마지못해 말했다. "그것들은 블러저라고 해. 각 팀에 물이꾼이 두 명 있는 데 그들은 막대기로 블러저들을 쳐서 자기 편에서 치워버리지.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형제가 그리핀도르의 물이꾼이야."

"그러면 다른 공들은 무엇 때문에 있는데?" 콜린이 멍하니 입을 벌리고 해리를 쳐다보느라 발을 헛디디며 물었다.

"글쎄, 웨이플이 있는데 그건 가장 큰 공이고 빨간색이야. 득점을 올리는 공이지. 각 팀에 있는 세 명의 추격꾼이 웨이플을 서로에게 던져서 경기장 끝에 있는 골대들 속으로 넣지. 고리가 달린 긴 막대기 세 개가 골대야."

"그러면 네 번째 공은"

"골든 스니치야." 해리가 말했다. "그건 아주 작고, 아주 빨라서 잡기 힘들어. 하지만 수색꾼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공을 잡는 거야. 왜냐하면 퀴디치 경기는 스니치가 잡혀야만 끝나거든. 그리고 어느 팀이든 수색꾼이 스니치를 잡으면 150점을 얻게 돼."

"그리고 바로 네가 그리핀도르의 수색꾼이란 말이지, 안 그래?" 콜린이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성을 나와 이슬에 흠뻑 젖어있는 잔디밭을 가로질러가며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파수꾼도 있어. 그는 골대들을 지키지. 그게 다야."

하지만 콜린은 경사진 잔디밭을 내려가 퀴디치 경기장까지 가는 동안 내내 해리에게 쉴 새없이 물었고, 해리는 탈의실에 다다르자 이제는 더 이상 따라오면 안된다는 뜻으로 그에게 고개를 저었다. 콜린은 높은 목소리로 "난 가서 좋은 자리나 잡아야겠어. 해리." 라고 소리치고는 급히 관람석으로 갔다.

그리핀도르 팀의 나머지 선수들은 벌써 탈의실에 와 있었다. 완전히 잠이 깬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우드 한 사람뿐이었다.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형제는 부은 눈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앉아 있었고, 4학년인 엘리사 스피네트는 그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또 추격꾼들인 케이티 벨과 안젤리나 존슨은 그들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 하품을 하고 있었다.

"왔구나, 해리, 왜 이렇게 늦었니?" 우드가 기분 좋게 물었다.

"자, 경기장으로 나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잠깐 할 얘기가 있어. 내가 여름방학 내내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하나를 고안했는데, 내 생각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우드는 커다란 퀴디치 경기장 도표를 들어올렸다. 도표에는 다른 색깔의 잉크로 많은 선과, 화살표와, 십자표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가 요술지팡이를 꺼내 도표를 탁 치자, 화살표들이 애버레들처럼 스멀스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드가 그 새로운 전술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자마자, 프레드 위즐 리가 머리르 엘리사 스피네트의 어깨 위로 축 늘어뜨리더니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도표를 설명하는 데만도 거의 20분이 걸렸는데, 그밑으로 도표가 두 개나 더 있었다. 낮고 단조로운 어조로 말하는 우드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해리는 눈이 저절로 감겨졌다.

"그러니까." 우드가 마침내 기나긴 설명 끝에 성에 있었다면 바로 이 순간에 아침으로 무엇을 먹고 있을까 입맛을 다시며 공상에 잠겨있는 해리를 갑자기 폭 찌르며 말했다. "명확한 설명이 됐니? 질문 있어?"

"응, 하나 있어, 올리버." 설명 시작할 때부터 죽 깨어있었던 조지가 말했다. "왜 어제 우리가 다 깨어있을 때는 이런 얘길 하지 않았던 거지?"

우드는 기분이 언짢았다.

"자, 들어봐, 너희들." 그가 모두에게 상을 찡그리며 말했다.

"우린 작년에 퀴디치 우승컵을 탔어야 했어. 우린 분명히 최고의 팀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 에."

해리는 가책을 느끼며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어 앉았다. 그가 작년 결승전 동안 병동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 있게 되는 바람에, 그리핀도르는 선수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에 임했고 300년 만에 처음으로 큰 점수차로 패했었다.

우드가 자제력을 다시 되찾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다. 지난번 패배가 그를 여전히 불편하게 하는게 분명했다.

"그러니까 금년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훈련해다 해. 좋아, 그럼 가서 우리의 새로운 이론을 실습해보자." 우드가 빗자루를 잡고 선두에 서서 라커룸 바깥으로 나가며 소리쳤다. 다리는 뻗뻗하고 여전히 하품이 나왔지만, 다른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나갔다.

라커룸에 어찌나 오래 있었던지 경기장 잔디밭 부근에 아직 안개가 조금 끼어 있기는 했지만 태양은 이제 완전히 중천에 떠 있었다. 경기장으로 걸어 나온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드가 관람석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아직 안 끝났어?" 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아직 시작도 안했어." 해리가론과 헤르미온드가 연회장에서 가져온 토스트와 마멀레이드를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드가 우리에게 새로운 전술을 설명하느라고 말야."

그가 빗자루에 올라타 발로 땅을 치더니 공중으로 높이 날아올랐다. 서늘한 아침공기가 얼굴을 때리자 우드의 일장 연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잠이 달아났다. 퀴디치 경기장에 다시 오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는 프레드와 조지와 경주하며 전속력으로 경기장 위를 날아다녔다.

"찰칵거리는 저 이상한 소리는 뭐지?" 모퉁이를 휙 돌아 나오며 프레드가 외쳤다.

해리가 관람석을 자세히 보았다. 콜린이 가장 높은 좌석에 앉아, 카메라를 들어올리고, 몇 장이고 끝없이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없어서인지 관람석에 그 소리가 굉장히 커다랗게 울렸다.

"이쪽을 봐, 해리, 이쪽" 그가 큰소리로 외쳤다.

"누구니?" 프레드가 물었다.

"몰라." 해리가 갑자기 콜린에게서 멀어지는 쪽으로 속도를 내며 거짓말을 했다.

"무슨 일이야?" 우드가 공중에서 그들 쪽으로 스치듯 날아가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저 1학년 애가 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맘에 걸려. 우리의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알아내려는 슬르데린의 스파이면 어떡하지?"

"그 앤 그리핀도르야." 해리가 얼른 말했다.

"그리고 슬리데린 애들은 굳이 스파이가 필요하지 않아. 올리버." 조지가 말했다.

"어째서?" 우드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직접 와 있으니니까." 조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초록색 망토를 입은 몇몇 사람들이 손에 빗자루를 들고 경기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믿을 수 없어." 우드가 격분해서 불만을 터뜨렸다. "내가 분명 먼저 예약했는데."

우드가 쏠살같이 땅으로 내려갔는데, 화가 나서 생각보다 다소 거칠게 내렸는지, 빗자루에서 내릴 때 몸이 약간 비틀거렸다. 해리와 프레드와 조지도 따라 내려갔다.

"플린트." 우드가 슬리데린의 주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지금은 우리 팀의 연습 시간이야. 우리가 특별히 예약한 거라구. 그러니 너희들은 좀 나가 줘."

마커스 플린트는 몸집이 우드보다 훨씬 더 컸다. 그가 교활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써도 공간은 충분해. 우드."

그리핀도르의 여자 선 들인 안젤리나와 엘리사와 케이티도 왔다. 슬리데린 팀에는, 어깨를 맞대고 그리핀도르 애들에게 용감히 맞서줄 여자 선수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경기장을 먼저 예약했어." 우드가 화가 나서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예약했다구."

"그래." 플린트가 말했다. "하지만 난 스네이프 교수가 특별히 사인한 편지를 갖고 있어. '나, s. 스네이프 교수는 슬

리데린 팀이 새로 들어온 수색꾼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오늘 쿼디치 경기장에서의 연습을 허가한다.'"

"수색꾼이 새로 들어왔대구?" 우드가 갈피를 못 잡은 듯 물었다. "어디?"

그러자 앞에 선 여섯 명의 거구 뒤에서, 창백하고 뾰족한 얼굴에 하나 가득 능글맞은 웃음을 짓고 있는 조금 더 작은 일곱 번째의 소년이 걸어나왔다. 그건 다름 아닌 드레이코 말포이었다.

"네 아버지가 혹시 루시우스 말포이 아니니?" 프레드가 말포이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네가 드레이코의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다니 우스운데." 플린트가 이렇게 말하자 슬리데린 팀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웃었다. "그 분이 슬리데린 팀에게 주신 후한 선물을 보여줘야겠군."

그들 일곱 명이 모두 자신들의 빗자루를 내밀었다. 대단히 품위 있는 일곱 개의 새 손잡이와 멋지게 금색으로 쓰여진 님부스 2001이라는 일곱 세트의 낱말이 이른 아침의 햇살을 받아 그리핀도르 선수들의 코밀에서 반짝거렸다.

"아주 최신 모델이야, 지난 달에 나왔어." 플린트가 자신의 빗자루 끝에서 먼지를 툭툭 털어 내며 말했다. "아마 옛날 모델인 2000시리즈보다 훨씬 더 좋을 걸. 낡은 클린스웍으로는." 그가 클린스웍 5를 움켜쥐고 있는 프레드와 조지에게 심술궂은 미소를 지었다. "책상이나 쓸어야지, 뭐."

그리핀도르 팀 모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포이가 그 차가운 눈이 찢어질 듯 야비하게 히죽대고 있었다.

"자 봐." 플린트가 말했다. "경기장 침해야."

론과 헤르미온드가 무슨 일인지 보려고 잔디밭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론이 해리에게 물었다. " 왜 경기하지 않는 거니? 그리고 저 애는 여기서 뭐하는 거야?"

그는 슬리데린 쿼디치 망토를 입고 있는 말포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 슬리데린의 새 수색꾼이야, 위즐리." 말포이가 잘난 체하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팀 모두에게 사주신 빗자루들을 칭찬하고 있던 참이었어."

론이 눈앞에 있는 최고급 빗자루 일곱 개를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좋지, 안 그러니?" 말포이가 능글능글 말했다. "하지만 그리핀도르 팀도 금을 조금 모으면 새 빗자루를 살 수 있을 거야. 저 클린스웍 5를 팔 수 있을 지도 몰라. 박물관에서 그 빗자루를 사려고 나선다면 말야."

슬리데린 팀이 꺾꺾대며 큰소리로 웃었다.

"그리핀도르 팀에서는 적어도 돈을 내고 선수가 된 사람은 없어." 헤르미온드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 애들은 다 실력으로 들어왔으니까."

말포이의 얼굴에 새침한 표정이 획 스쳤다.

"너한테 말하지 않았어. 이 더러운 잡종아." 그가 내뱉듯이 말했다.

말포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동이 일어났으므로 해리는 말포이가 정말로 나쁜말을 했다는 걸 단번에 알았다. 플린트는 프레드와 조지가 말포이에게 달려드는 걸 막기 위해 그의 앞으로 뛰어들어야 했고, 엘리샤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이라고 말했다. 론은 망토 속에 손을 넣어 요술지팡이를 꺼내고는 "그렇게 말한 대가로 어디 혼 좀 나봐라, 말포이"라고 소리치면서 플린트의 팔뚝으로 보이는 말포이의 얼굴에 갖다댔다.

탕 하며 커다란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더니 론의 요술지팡이 뒤쪽에서 초록색 불빛이 뿜어져 나와 그의 배를 쳤다. 그 바람에 론은 순식간에 잔디밭으로 나가떨어졌다.

"론, 론, 괜찮니?" 헤르미온드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론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굉장한 트림 소리와 함께 입에서 민달팽이 몇 마리가 기어 나와 무릎 위로 툭툭 떨어졌다.

슬리데린 팀은 웃느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플린트는 새 빗자루에 기대어 배를 잡고 웃었고, 말포이는 엎드려서 주먹으로 땅을 치고 있었다. 계속해서 커다란 반짝이는 민달팽이들을 뱉어내고 있는 론 주위로 그리핀도르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못했다.

"론을 해그리드의 집으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여기서 가장 가까워."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말하자, 그녀가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둘은 론의 팔을 끌어올렸다.

"무슨 일이니. 해리? 무슨 일이야? 그 애가 아파? 하지만 네가 그 애를 치료할 순 없잖아. 안 그래?" 콜린이 관중석에서 달려 내려와 그들 옆에서 왔다갔다 했다. 그때 론이 그의 앞에다 민달팽이를 한 더미 게워냈다.

"우웁" 어리벙벙해진 콜린이 카메라를 들어올렸다. "그 애 좀 꼭 잡고 있어줘, 해리."

"저리 비켜, 콜린." 해리가 화가 나서 말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와 함께 론을 부축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 숲 언저리로 갔다.

"거의 다 왔어, 론." 사냥터지기 해그리드의 오두막이 눈에 들어오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거야. 거의 다 왔어."

그들이 해그리드의 집에서 6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도달했을 때 현관문이 열렸지만, 거기서 나온 건 해그리드가 아니었다. 질데로이 록허트가 오늘은 연하디연한 자줏빛 망토를 입고, 성큼성큼 걸어나왔다.

"빨리, 이 뒤로 와." 해리가 론을 근처에 있는 덤불 숲 뒤로 잡아끌며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다소 마지못해 따라갔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만 안다면 그건 간단한 문제죠." 록허트가 해그리드에게 큰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찾아오시오. 그리고 내 책을 한 권 주겠소. 아직 한 권도 갖고 있지 않다니 좀 뜻밖이라 말ियो. 내가 오늘 밤 사인을 해서 보내 주리다. 그럼 잘 있으시오." 그리곤 그는 성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해리는 록허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론을 덤불 숲에서 끌어당겨 해그리드의 집 현관문으로 갔다. 그들은 다 급히 노크를 했다.

노크하기가 무섭게 해그리드가 아주 심술난 표정으로 나타났지만, 누구인지를 보자 표정이 밝아졌다.

"니들이 언제 날 보러올지 궁금했어. 들어와, 들어와, 난 또 록허트 교수가 다시 왔는 줄 알았지 뭐야."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론을 부축해서 문턱을 넘어 오두막안으로 들어갔다. 한쪽 구석에는 커다란 침대가 하나 놓여있었고, 반대쪽에서는 난롯불이 딱딱 소리를 내며 활활 타고 있었다. 해그리드가 론의 민달팽이 문제를 보고 전혀 당황해하는 것 같지 않았으므로, 해리는 론을 의자에 앉히며 허둥지둥 설명했다.



"먹는 것보다야 뱉어내는 게 낫지." 해그리드가 커다란 낫대야를 그의 앞에 쿵 떨어뜨리며 말했다. "모두 뱉어내, 론." "제가 볼 땐 그것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헤르미온느가 론이 그 대야 앞으로 몸을 굽히는 걸 지켜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 마법은 아주 잘 나갈 때라도 들을 까 말까 하는 어려운 주문인데, 망가진 요술지팡이로 했으니."

해그리드가 부산스럽게 그들에게 줄 차를 끓였다. 멧돼지 사냥용인 그의 큰 개 팽이 해리에게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록허트가 왜 들었던 거죠, 해그리드?" 해리가 팽의 귀를 굽으며 물었다.

"우물에서 켈피(말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을 유인하여 익사시키거나 식사를 예고한다는 물귀신:웁긴이)들을 꺼내는 일에 대해 내게 충고를 한답시고 온거지, 뭐." 해그리드가 이리저리 굽힌 자국이 있는 탁자 위에 올라와 있는 수탉 한 마리를 치우고 찻주전자를 놓으며 투덜거렸다. "내가 그까짓 것도 모르는 줄 알고 말야. 그리고 자기가 내쫓은 뱀시에 대해 떠들어 대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이 단 한마디라도 사실이면, 내손에 장을 지지겠어."

해그리드가 호그와트의 선생을 비평하는 건 전에 없던 일이었으므로 해리는 그를 놀라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헤르미온느는 그러나 평상시보다 다소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생각엔 뭔가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덤블도어 교수는 분명히 그 일에는 그 분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 과목을 맡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해그리드가 그들에게 당밀 퍼지 접시를 내밀며 말했다. 그 사이 론이 대야에 대고 심하게 기침을 했다. "내 말은 그 사람밖에 달리 사람이 없다는 뜻이야. 어둠의 마법 과목을 맡을 사람을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거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야. 사람들이 그게 불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지금까지는 아무도 오래 가지 못했거든. 그건 그렇구." 해그리드가 고개로 론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애는 도대체 누굴 혼내주려다 저렇게 된 거니?"

"말포이가 헤르미온느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주 나쁜 말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모두들 아주 화가 나서 거칠게 행동했거든요."

"나쁜 말이었어요." 론이 창백하고 땀에 젖은 얼굴로 탁자 위로 올라오며 쉼 목소리로 말했다. "말포이가 그 애를 '잡종'이라고 불렀어요, 해그리드."

민달팽이들이 다시 꿈틀거리며 나오자 론이 얼른 탁자 밑으로 내려갔다. 해그리드가 격분한 것 같았다.

"그럴 리가." 그가 헤르미온느에게 딱딱거렸다.

"정말 그랬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물론 그게 정말로 무례한 말이라는 건 알 수 있었지만요."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이야." 론이 다시 올라오면서 헐떡거리며 말했다. "잡종이란 건 머글, 참 해리 너도 알지? 부모가 마법사가 아닌 사람을 머글이라고 일컫잖아. 그 태생의 사람을 부르는 아주 나쁜 말이야. 일부 마법사들은 순수 혈통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 말포이 가족처럼 말야." 그가 트림을 한 번 하자, 민달팽이 한 마리가 쭉 편 그의 손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대야 안으로 던지며 말을 계속했다. "내 말은, 그건 일부 사람들의 생각일 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네빌 롱바텀을 봐. 그 앤 순수 혈통이지만 냄비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잖아."

"그리고 그들은 우리 헤르미온느가 외울 수 없는 주문을 발명하지도 못했구 말야." 해그리드가 득의 양양하게 말하자, 헤르미온느가 얼굴을 붉혔다.

"누군가를." 론이 떨리는 손으로 땀이 나는 이마를 훔치며 말했다. "더러운 혈통이라고 부르는 건 메스꺼운 짓이야. 야비한 혈통이나 하는 짓이야. 웃기는 얘기지.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어쨌든 반반씩 섞였으니까 말야. 만약 머글들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류는 차차 소멸하고 말 거야."

그는 헛구역질을 하며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

"글세, 네가 그 녀석을 혼내주려고 한 걸 탓하진 않아, 론."

해그리드가 대야에 텅텅떨어지고 있는 많은 민달팽이들의 소리보다 큰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네 요술지팡이가 거꾸로 발사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건지도 몰라. 네가 말포이를 혼내주었다면 그 녀석의 아버지 루스우스 말포이가 가만 있었겠어? 당장 학교로 달려와 널 어떻게 했을 거야. 적어도 네가 곤란에 빠지진 않게 되었잖아."

해리는 입에서 민달팽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보다 더 심한 곤란이 어디 있냐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해그리드가 준 당밀 퍼지가 입을 딱 붙어버리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해리." 해그리드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불쑥 말했다. "네게 할말이 있어. 네가 사인이 있는 사진들을 나누어주고 있다고 하던데, 어쩌서 난 한 장도 못 받은 거지?"

해리가 펄펄 뛰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전 사인이 있는 사진을 나눠준 적이 없어요." 그가 골이 나서 말했다. "만약 록허트가 아직도 그런 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그러나 그때 그는 해그리드가 웃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한 번 농담 해 본거야." 그가 등을 어찌나 세게 등을 두드렸던지 해리는 하마터면 탁자에 코를 박을 뻔했다. "난 네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록허트에게도 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넌 그 사람보다 더 유명하잖아."

"그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해리가 일어서서 턱을 문지르며 말했다.

"썩 좋아한 것 같지는 않아." 해그리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 뒤 내가 그의 책을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하자 그가 가려고 했던 거야. 당밀 퍼지 먹으래, 론?" 론이 다시 올라오자 그가 덧붙였다.

"아뇨," 론이 힘없이 말했다. "먹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뭘 키워왔는지 이리 와서 봐."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차를 다 마시자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그리드의 집 뒤에 있는 작은 채소밭에 해리가 지금까지 본 것중에서 가장 큰 호박 수십개가 있었다. 호박 한 개 크기가 커다란 옥석만 했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 않니?" 해그리드가 유쾌히 말했다.

"할로윈 축제 때 쓸거야. 그때쯤 되면 충분히 커질 거야."

"그 호박에 도대체 어떤 비료를 주신 거예요?" 해리가 물었다.

해그리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보려고 어깨 너머로 슬쩍 살폈다.

"글세 있잖아, 약간의 도움."

해리는 해그리드의 핑크빛 꽃무늬 우산이 오두막 뒷담에 세워져 있다는 걸 알아챘다. 해리는 전에도 이 우산이 보통 우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사실 그는 해그리드가 학교 시절에 쓰던 낡은 요술지팡이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해그리드는 마법을 부려서는 안되도록 되어있었다. 그는 3학년 때 호그와트에서 쫓겨났지만, 해리는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 얘기만 하면 해그리드가 큰소리로 목을 가다듬는 시늉을 하며 화제가 바뀔 때까지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탐식 마법이죠, 아마?" 헤르미온드가 비난 반 재미 반으로 말했다. "어쨌든 호박들에게는 좋은일 하셨네요"

"네 여동생도 그렇게 말했어." 해리가 론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말했다. "그 아인 언제 만났지." 결눈질로 해리를 바라보는 해그리 이 수염이 쉴룩쉴룩거렸다. "그 앤 그저 정원을 둘러보고 있었다고 했지만, 우리 집에서 누군가와 마주 치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 그가 해리에게 눈짓을 해 보였다. "내 생각엔, 그 앤 사인이 있는 사진을 마다하지 않을."

"그만 좀 해요."해리가 말했다. 론이 코웃음을 치자 땅바닥으로 민달팽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심해." 해그리드가 그의 소중한 호박들에게서 론을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해리는 새벽 이후 먹은 거라고 당밀 퍼지 한입밖에 없었으므로 학교로 돌아가 점심을 먹고 싶었다. 그들은 해그리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성으로 향했다. 론은 가끔씩 딸국질을 했지만, 아주 작은 민달팽이 두 마리만 토했을 뿐이었다.

그들이 서늘한 현관 안의 홀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구나, 해리, 위즐리." 맥고나걸 교수가 무서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걸어오고 있었다. "너희들은 오늘 저녁에 징계를 받기로 했단다."

"그런데 무슨 일을 시키실 거죠, 선생님?" 론이 트림을 막으며 초조하게 물었다.

"넌 필치씨와 함께 트로피 보관실에서 은제품들을 닦게 될 거야."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물론 마법은 쓰면 안되고, 위즐리 직접 손으로 닦아야 해."

론이 숨을 죽였다. 학교 관리인인 아구스 필치는 모든 학생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 포터는 록허트 교수를 도와 그의 팬 우편물에 답장 쓰는 일을 하게될거다."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이럴 수가, 교수님, 저도 트로피 보관실에 가면 안될까요?" 해리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물론 안되지," 맥고나걸 교수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록허트 교수께서 특별히 네가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셨단다. 너희 둘 다, 8시 정각이다."

해리와 론은 아주 침울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연회장으로 걸어갔다. 뒤에 있던 헤르미온드는 '학교 규칙을 어기더니 꼴 좋다'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해리는 고기 파이를 생각만큼 맛있게 먹지 못했다. 해리와 론 둘 다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치는 아마 날 거기에 발새도록 붙잡아둘 거야." 론이 맥없이 말했다. "마법을 쓰면 안 된다니! 그 방에는 트로피가 100개쯤은 될거야. 난 머글 식의 청소는 서툴거든."

"네가 원한다면, 난 언제라도 바꿔줄 수 있어." 해리가 빈말로 말했다. "난 더즐리 가족과 함께 사는 동안, 엄청 연습했었거든. 록허트의 팬 우편물에 답장 쓰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

토요일 오후는 금방 지나가 버리고, 어느 새 8시 5분 전이 되었으므로 해리는 발을 질질 끌며 2층 복도를 따라 록허트의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는 문앞에서 이를 갈며 노크를 했다.

문이 금방 핵 열렸다. 록허트가 그에게 환하게 미소지었다.

"아, 망나니 오셨군." 그가 말했다. "들어와라, 해리, 들어와."

벽에는 사진틀에 끼워진 수없이 많은 록허트의 사진들이 많은 초들의 불빛을 받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몇 개 사진에는 심지어 사인까지 해 두었다. 사진은 그의 책상에도 또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넌 봉투에 주소를 쓰거라." 록허트가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해리에게 말했다. "이건 글래디스 구전에게 보내는 거란다. 그녀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나의 대단한 팬이지."

시간이 느릿느릿 갔다. 해리는 때때로 "음"과 "맞아요."와 "예"라는 말만 하며 록허트가 시키는대로 고분고분하게 했다. 때로 해리는 "명성이란 변덕스러운 친구나같단다. 해리" 라거나 "유명인이 하는 일이 곧 명성이란다.그걸 기억해라." 와 같은 말도 들었다.

초들이 점점 더 낮게 타들어 가면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록허트의 많은 움직이는 얼굴들 위로 불빛이 흔들렸다. 손이 저려왔다. 해리는 1000번째 쯤 되는 봉투로 손을 뻗어 베로니카 스메슬리의 주소를 적었다. 이제 틀림없이 떠날 시간이 되었을 거야, 해리는 비참하게 생각했다. 제발 빨리 끝나게 해 주세요.

그 때 어떤 소리가 들렸다. 막 꺼지려고 하는 초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었고 록허트가 자신의 팬들에 대해 떠들어대는 말도 아니었다.

그건 어떤 목소리, 골수까지 오싹하게 하는 어떤 목소리, 얼음장같이 차가운 원한에 찬 어떤 목소리였다.

"이리로, 내게로 와, 가족을 벗겨서,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 버릴 거야."

해리가 펄쩍 뛰자 베로니카 스메슬리의 주소 위에 라일락 빛의 커다란 얼룩이 졌다.

"뭐라구요?" 그가 큰소리로 물었다.

"난 알아!" 록허트가 말했다, "6개월 동안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에 있었어. 모든 기록을 깼지."

"아뇨," 해리가 극도로 흥분해서 말했다. "저 목소리요."

"뭐라구?" 록허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목소리?"

"저 좀전의 낮은 목소리요, 못 들으셨어요?"

"무슨 소릴 하는 거니, 해리? 졸고 있었더 거니? 이럴 수가, 시간좀 봐라. 거의 네 시간이 지났네.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어, 안 그러니?"

해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다시 귀를 기울였지만, 록허트가 징계를 받을 때마다 이런 후한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소리 말고는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해리는 멍해진 기분으로 방을 나왔다. 어찌나 늦었던지 그리핀도르의 학생 휴게실이 거의 텅 비어있었다. 해리는 기숙사 방으로 올라갔다. 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해리는 잠옷을 입고 침대 속으로 들어가 기다렸다. 30분쯤 뒤, 론이 강한 광택제 냄새를 풍기면서 오른쪽 팔을 주무르며 돌아왔다.

"온몸이 빠근해." 그가 침대에 맥없이 쓰러지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내게 저 쿼디치 우승컵을 열네 번이나 뒤통에 한 뒤에야 만족해했어. 그런데 글세 내가 '특별 공로상' 트로피에다 또 한 번 민달팽이를 토하고 만거야. 그 점액을 다 없애느라 한참이 걸렸어. 록허트하고는 어땠니?"

네빌과 딘과 시무스가 깨지 않도록 목소리를 계속 낮추면서, 해리는 론에게 자신이 들었던 소리에 대해 말했다.

"그런데 록허트는 그 소리를 못들었다고 했던 말야?" 론이 말했다. 그는 달빛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아. 형체는 보이지 않더라도 문을 열었어야 했을 거 아냐."

"내 말이 바로 그거야." 해리가 침대에 다시 누워 천장을 뚫히 바라보았다.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

## 제8장

### 사망일 파티

10월이 되면서, 정원과 성에 축축한 냉기가 돌았다. 간호사인 폼프리 부인은 부쩍 늘어난 교원들과 학생들의 감기로 계속 바쁘게 보냈다. 그녀가 조제한 후추가 잔뜩 뿌려진 마법의약이 즉각 효력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 약은 마신 후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의 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게 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던 지니 위즐리는 퍼시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그 약을 조금 먹었었는데, 그녀의 눈부시도록 빨간 머리카락 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꼭 머리 전체가 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총알 만한 빗방울 들이 성의 창문을 세게 때렸다. 호수의 물은 불었고, 꽃밭은 흙탕물로 변했으며, 해그리드의 호박들은 정원의 창고 만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팀 훈련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올리버 우드의 열정만은 꺾이지 않았으므로, 해리는 할로윈 며칠 전인 모진 비바람이 치는 어느토요일 오후 늦게, 연습을 마치고 빗물에 흠뻑 젖고 흙탕물을 뒤집어쓴채로 그리핀도르 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굳이 비바람이 아니었어도 그날 연습 시간은 내내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 슬리데린 팀을 몰래 살펴왔던 프레드와 조지가그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님부스 2001의 성능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슬리데린 팀이 원하는 희마한 소리만 남긴 채 마치 미사일처럼 공중으로 튀어 나갔다고 보고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복도를 따라 철벽거리며 걷던 해리는 뜻밖에도 꼭 자신처럼 생각에 깊이 잠겨있는 것 같은 누군가를 만났다. 그리핀도르 탑의 유명인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구. 전혀, 만약 그게 " 라고 중얼거리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창 밖을 멍하니 내다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닉."

해리가 말했다.

"안녕, 안녕."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빙 둘러보며 말했다. 구불구불한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는 화려한 색의 불룩한 모자에, 목이 간신히 붙어있다는 걸 감춰주는 주름 깃이 달린 튜닉을 입고 있었다. 해리는 연기처럼 얇은 그를 통해 바깥의 어두운 하늘과 폭우를 볼 수있었다./

"너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구나. 포터." 닉이 투명한 편지를 접어 옷소매 속에 쑤셔 넣으며 말했다.

"닉도 그런 것 같은데요." 해리가 말했다.

"아, 뭐."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우아한 손을 흔들었다. "대단한 건 아냐. 그저 그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지원할 까 생각했었는데, '그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

쾌활한 말투였지만, 그의 얼굴엔 아주 씁쓸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넌" 그가 불쑥 말했다. "무딘 도끼로 목이 마흔 다섯 번이나 쳐졌다는 게 '목이 없는 사냥꾼협회'에 들어갈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하니?"

"아, 물론 되죠." 해리가 꼭 동의해주어야 할 것 만 같아서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은, 내 목이 신소하고 깨끗하게 잘려졌기를, 그래서 제대로 떨어졌기를 나만큼 바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야. 그랬다면 내가 이런 엄청난 고통과 놀림을 당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지. 하지만,"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몹시 화가 나서 자신의 편지를 흔들며 펼치며 읽었다.

"우린 목이 몸에서 완전히 떨어진 사냥꾼들만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들의 '말을 타고 하는 머리 저글링'과 '머리 폴로'와 같은 사냥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우리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을 빌며, 패트릭 델라니 포드모어 경."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성나 날뛰며 편지를 쑤셔 넣었다.

"내 목은 1.5센티밖에 되지 않는 살과 근육에 매달려 있어. 해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이 잘려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오, 맙소사, 목이 제대로 잘린 포드모어 경이 볼때는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야."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훨씬 더 가라앉은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넌 무엇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니? 내가도와줄 수 있는 거라도 있지?"

"없어요." 해리가 말했다. "우리가 공짜로 님부스 2001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모르신다면 말예요. 슬리."

해리의 말은 그의 발목 근처에서나는 고음의 가냘픈 울음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등불같이 노란 한 쌍의 눈이 보였다.

그것은 학생들과의 끝없는 전쟁을 대신 말고 있는, 학교 관리인 아구스 필치의 비쩍 마른 회색 고양이 노리스 부인이었다.

"이쪽으로 나오는 게 좋겠다. 해리." 닉이 얼른 말했다."필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든. 감기에 걸린 데다 3학년 생

몇 명이 우연히 5번 지하 가옥 천장 여기저기에는 개구리 뇌들을 잔뜩 발라놓아서 말야. 아침 내내 청소하느라 진땀을 뺀는데, 네가 그곳에 흙탕물이라도 떨어뜨리는 걸 본다면."

"맞아요." 해리가 노리스 부인의 책망하는 듯한 눈길을 피해 얼른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미 그 불쾌한 고양이와 연결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이끌려지거나 한 듯, 해리의 오른쪽에 있는 벽걸이 용단에서 느닷없이 험악한 표정을 한 아구스 필치가 씩씩대며 나타났다. 머리에는 두꺼운 격자 무늬목도리가 도어매어져 있었고, 코는 유난히 새빨갰다.

"필치다." 그가 턱뼈를 부들부들 떨며,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심상치 않은 눈으로 해리의 쿼치 망토에서 떨어진 진흙들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여기저기가 다 오물천지야.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따라와, 포터."

따라서 해리는 목이 달랑달랑한 닉에게 손을 흔들어 침울한 작별 인사를 하고 필치를 따라 마룻바닥에 또 한번 진흙 발자국을 남기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해리가 필치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다. 그곳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곳이었다. 창문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낮은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린 한 개짜리 기름 등불만으로 밝혀져 있어서인지 실내가 어두컴컴했다. 그곳에는 희미한 생선튀김 냄새가 남아있었다. 벽에는 나무서랍장들이 서 있었는데, 붙어있는 꼬리표로 보아, 그 안에 필치가 지금까지 벌을 주었던 모든 학생들의 상세한 기록이 들어 있는 것 같았다. 서랍마다 프레드와 조지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필치의 책상 뒤에 있는 벽면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사슬과 수갑들이 걸려 있었다. 그가 언제나 덤불도어 교수에게 제발 학생들의 발목을 천장에 매달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필치가 책상에 있는 컵에서 깃펜 하나를 꺼내고는 이리저리 양피지를 찾기 시작했다.

"똥." 그가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뜨끈뜨끈한 용의 코딱지, 개구리 뇌, 쥐 창자, 정말 신물이 나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 문서가 어디에 있더라, 그렇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커다란 양피지 두루마리를 꺼내 앞에다 쪽 펴고, 길다란 까만 깃펜을 잉크병에 푹 담갔다.

"이름 해리 포터, 죄목."

"그저 약간의 진흙을 흘린 것뿐인데요." 해리가 말했다.

"내게는 약간의 진흙이겠지만, 이 녀석아, 내게는 한 시간을 또 청소해야 하는 일이야." 필치가 소리쳤다. 더럽게도 그의 주먹코 끝에는 콧물 한 방울이 매달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죄목 성을 더럽혔음. 징계사항은."

필치가 줄줄 흘러내리는 콧물을 훔치며, 숨을 죽이고 선고가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는 해리를 불쾌하게 흘끗 바라보았다.

그러나 필치가 글을 쓰려는 순간, 사무실 천장에서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기름 등불이 흔들렸다.

"피브스." 필치가 화가 나서 깃펜을 세차게 내던지며 고함을 쳤다. "이번엔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다구."

그리곤 필치가 해리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무실에서 달려나갔다. 노리스 부인도 쭈르르 따라갔다.

피브스는 소리의 요정(집안의 원인 불명의 소리나 사건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짐:웁긴이)으로, 파괴와 재난을 일으키며 사는 떠 다니는 골칫거리였다.

해리는 피브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적시에 소리를 내준 그의 타이밍을 고맙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피브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무언가 아주 무거운 것을 넘어뜨린 것처럼 들렸지만) 잘만 되면, 필치의 정신을 딴 데로 돌려줄 것이다.

해리는 필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책상 옆에 있는 낡은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는 반쯤 완성된 문서 이외에도 앞면에 은빛 문자가 쓰여진 커다랗고, 번질번질한 자줏빛 봉투가 하나 있었다. 해리는 필치가 돌아오고 있거나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문 쪽을 흘끗 본 뒤, 그 봉투를 얼른 집어들었다.

속성 마법 과정.

초보자들의 통신 마법 교육 과정.

호기심이 생긴 해리는 그 봉투를 흔들어 안에서 양피지 뭉치를 꺼냈다. 앞 페이지에는 더 꼬불꼬불한 은빛 글씨로 쓰여져 있었다.

현대 마법 세계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간단한 주문도 외우지 못하는 신세를 면해보고 싶으십니까?

요술지팡이 하나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다고 놀림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여기 그 해답이 있습니다.

속성 마법 과정은 완전히 새롭고, 절대 실패하지 않으며 빠른 결과를 가져다 주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수백 명의 마녀와 마법사들이 속성 마법 과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탐삼의 z. 네틀리스 여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난 주문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며 내 마법의 약은 가족의 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속성 마법과정을 밟은 이후, 난 파티를 할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으며 친구들은 내가 만든 기막힌 용액의 조제법을 가르쳐 달라고 야단입니다."

디즈스베리의 위록 D. J. 프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내 주문이 약하다고 코웃음쳤지만, 이 멋진 속성 마법 과정에 들어간 지 한달 만에 난 그녀를 들소로 만들어 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성 마법 과정."

해리는 뉘를 빼앗긴 채, 그 봉투의 내용물을 급히 훑어보았다. 도대체 필치가 왜 속성 마법 과정을 원하는 걸까? 이걸 그가 진정한 마법사가 아니라는 뜻일까? 해리가 막 "제1과 :요술지팡이 잡기(몇 가지 유용한 조언)"를 읽고 있을 때 발을 질질 끌며 걸어오는 필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해리가 그 양피지를 부리나케 봉투 속으로 밀어넣고, 팩상위로 다시 던지자마자 문이 열렸다.

필치는 의가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 사라지는 벽장은 굉장히 귀중한 거야." 그가 노리스 부인에게 아주 기분 좋게 말하고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피브스를 혼내줘야지, 요 귀여운."

그의 눈이 해리와 마주친 뒤 획 속성 마법 과정 봉투로 쓸렸다. 너무 늦게 깨달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원래 있었던 자리

에서 60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필치의 허연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갳게 변했다. 해리는 마음을 다져 먹었다. 필치가 절름거리며 책상 앞으로 걸어가더니, 그 봉투를 얼른 집어, 서랍 속으로 던졌다.

"너 너 읽었니?" 그가 흥분해서 침을 튀기며 말했다.

"아뇨." 해리가 얼른 거짓말을 했다.

필치의 울퉁불퉁한 두 손이 함께 비틀어지고 있었다.

"네가 내 사적인 편지를 읽었다면, 내 편지가 아니라, 내 친구거긴 하지만, 어쨌든"

해리가 겁먹은 얼굴로 그를 뵈히 바라보았다. 필치의 그런 성난 모습은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눈알은 튀어나올 것 같았고, 축 늘어진 볼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좋았어. 가봐 그리고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 저것에 대해선 한마디도 . 하지만 만약 읽지 않았으면 이제 가봐, 난 피브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까. 가."

뜻하지 않은 행운에 놀란 해리는 그 사무실에서 급히 나와, 다시 이층으로 올라갔다. 필치의 사무실에서 별도 받지 않고 나온 것은 아마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해리, 해리. 그게 효력이 있었니?"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어떤 교실에서 미끄러지듯 나왔다. 닉의 뒤에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지 완전히 박살이 난 검정색과 황금색의 커다란 벽장이 있었다.

"내가 피브스에게 이걸 필치의 사무실 위에서 산산조각을 부수라고 시켰어." 닉이 신이 나서 말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당신이었어?" 해리가 너무나 고맙다는 듯 말했다. "그래요, 대단한 효과가 있었어요. 심지어 징계도 받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닉"

그들은 함께 복도로 출발했다. 해리는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여전히 패트릭 경의 편지를 들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그 목이 없는 사냥꾼 협회에 대해 제가 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해리가 말했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해리는 그의 몸을 통과해 걸어갔다. 하지만 괜히 그랬다 싶었다. 마치 싸늘한 소나그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네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긴 한데," 닉이 흥분해서 말했다. "해리 너무지나친 부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넌,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야."

"원데요?" 해리가 말했다.

"글세, 이번 할로윈은 내가 죽은 지 500년 되는 사망일이야."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곳곳이 서서 위엄 있는 표정을 지었다.

"아," 해리는 안된 표정을 지어야 할 지 기쁜 표정을 지어야 할 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렇군요."

"난 저아래에 있는 넓은 지하감옥에서 파티를 열 계획이야. 전국에서 친구들이 올 거야. 네가 참석해 준다면 정말 영광일 거야. 위즐리 군과 그레이저 양도 물론 환영이야. 하지만 넌 학교에서 베푸는 연회에 가겠지?" 그가 조바심하며 해리를 지켜보았다.

"아니에요." 해리가 얼른 말했다. "갈게요."

"아니, 해리 포터가, 내 사망일 파티에. 그러면 말야." 그가 흥분된 표정으로 망설였다. "날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으며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패트릭 경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무 물론이죠." 해리가 말했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그에게 밝게 웃어 보였다.

"사망일 파티?" 해리가 마침내 사망일파티에 가기로 마음을 굳히고 학생 휴게실로 갔을 때 헤르미온느가 너무나 가보고 싶다는 듯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런 파티에 가본 사람은 분명 많지 않을 거야. 아주 재미있을 거야."

"사람들은 왜 죽은 날을 축하하고 싶어하는 거지?" 론이 마법의 약 숙제를 하다가 심술이 나서 말했다. "아주 침울할 것 같은데 말야."

비는 여전히 내려서, 이제는 새까맣진 창문들을 때리고 있었지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밝고 명랑해 보였다. 사람들은 난롯불빛이 따뜻하게 비추는 폭 꺼진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숙제를했으며, 프레드와조지 위즐러 형제는 필리버스터 불꽃을 불도마뱀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불속에 산다는 밝은 오렌지빛의 이도마뱀은 프레드가 '마법의생물 돌보기' 수업에서 몰래 가져 나온 것이었는데, 호기심에 찬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탁자 위에서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며 조그씩 타고 있었다.

그런데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필치와 속성 마법과정에 대해 말하려는 순간, 그 불도마뱀이 갑자기 공중으로 핑 하고 날아가더니, 커다란 스파크를 내며 방 주위를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았다.

해리는 프레드와조지에게 쉼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퍼시와, 불도마뱀의입에서 눈부시게 쏟아져 나오는 오렌지색의별들과, 폭음을 내며 불 속으로 달아난 도마뱀을 보자, 필치와 속성마법과정 봉투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졌다.

할로윈이 되자, 해리는 사망일 파티에 가겠다고 한 자신의 성급한 약속을 후회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신나는 할로윈 연회에 참석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연회장은 예전처럼 살아있는 박쥐들로 장식되어있었고, 해그리드의 거대한 호박들은 세사람이 들어가 앉을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초롱들로 만들어졌으며, 소문에 의하면 덤블도어 교수가 그 연회를 위해 춤추는 해골 흥행단을 예약해 두었던 얘기까지 있었다.

"약속은 약속이야." 헤르미온느가 거만하게 해리에게 상기시켰다. "네가 사망일 파티에 가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7시에, 해리와론과 헤르미온느는, 유혹이라도 하는 듯이 황금 접시와 촛불들로 번쩍이고 있는 사람들로 꽉 찬 연회장을 지나, 지하 감옥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의 파티장으로 가는 통로에도 역시 촛불들이 주르르늘어서있었지만, 그 느낌은 전혀 유쾌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길고 가느다란 새까만 초였는데, 하나같이 푸르스름한 빛으로 타고 있어서, 생기 있는 그들의 얼굴조차 희미하고

유령 같은 으스스한 빛을 띠게 했다. 또 한 발짝 내딛을 때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부들부들 떨며 망토를 몸 쪽으로 바짝 끌어당기던 해리는, 수천개의 손톱이 거대한 칠판을 긁어대고 있는 것 같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게 음악이니?" 론이 속삭였다. 모퉁이를 돌아 까만 벨벳천들이 매달려 있는 입구에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서 있는 게 보였다.

나의 소중한 친구들." 그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와요, 어서와. 와줘서 정말 기뻐요."

그가 불룩한 모자를 벗고 인사하며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지하 감옥은 하얗고, 투명한 수백명의 유령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대부분이 혼잡한 댄스 플로어 주위에서 둥둥 떠다니며, 까만 천이 깔린 한층 높은 연단위에서 서른 개의 서양식 톱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무시무시한 음악 소리에 맞춰 왈츠를 추고 있었다.

머리 위에 있는 상들리에에서 타고 있는 수천 개의 새까만 촛불은 우울한 한밤중의 분위기를 유감없이 살려주고 있었다. 하얗게 입김이 보였다. 마치 냉동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좀 둘러볼까?" 해리가 시린 발을 둥둥 구르며 넌지시 말했다.

"유령들 몸 속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론이 걱정스럽게 말하며 댄스 플로어 쪽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우울한 수녀들과, 사슬에 묶인 초라한 남자와, 이마에 화살이 꽂힌 어떤 기사 유령에게 말을 걸고 있는 후플푸프의 쾌활한 유령인 똥똥한 프라이어를 지나갔다.

그런데 은빛 피자국으로 뒤덮인 유난히 눈에 띄는 유령이 하나 있었다. 그는 바로 슬리데린의 말라빠진 유령인 피투성이 바론이었는데, 그의 모습이 어찌나 무시무시했던지 다른 유령들마저 슬금슬금 피하고 있었다.

"어떡하면 좋아." 헤르미온드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우리 돌아가자, 빨리, 저기 모우닝 머틀이 있어."

"누구?" 해리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며 말했다.

"그 앤 1층 여자 화장실에 자주 나타나."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그 애가 화장실에 나타난다구?"

"그래, 그 애가 계속해서 짜증을 내며 물이 넘치게 하기 때문에 그곳은 일년내내 고장이었어. 난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 애가 울부짖고 있는 화장실에 앉아 오줌을 누는 건 정말로 소름끼치는 일이거든."

"저것 봐, 음식이야." 론이 말했다.

그 지하 감옥의 맞은 편에는 역시 까만 벨벳으로 덮인 긴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열심히 다가가던 그들은 그만 도중에 멈춰 서고 말았다. 냄새가 너무 역겨웠던 것이다.

멋진 은 접시에는 커다란, 썩은 고기 덩어리가 놓여 있었고, 쟁반에는 숯처럼 새까맣게 탄 케이크가 쌓아 올려져 있었으며,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커다란 해기스(양 등의 내장을 다져 오트밀, 양념 등과함께 그 위장에 넣어 삶은 요리)와 초록빛 곰팡이로 뒤덮인 끈적끈적한 치즈와, 타르 같은 검은색 아이싱으로, 니콜라스 드림시 포핑턴 경

1492년 10월 31일에 사망하다

라는 글자들을 써놓은, 묘비 모양의 거대한 회색빛 케이크도 있었다.

해리가 놀라서 지켜보고 있는데, 똥똥한 유령 하나가 테이블로 다가가더니, 몸을 웅크리고 입을 크게 벌린 채, 악취가 풍기는 연어 요리를 통해 스르르 빠져나갔다.

"그렇게 빠져나가면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해리가 그에게 물었다.

"거의." 그 유령이 슬프게 말하고는 둥둥 떠갔다.

"아마 더 강한 냄새가 나게 하려고 썩힌 걸 꺼야." 헤르미온드가 코를 잡고 상체를 더 가까이 숙여 악취가 나는 해기스를 보며, 총명하게 말했다.

"다른 데로 갈래? 토할 것 같아." 론이 말했다.

그러나 돌아서자마자, 느닷없이 테이블 밑에서 어떤 자그마한 남자가 달려나와 그들앞에 딱 멈췄다.

"안녕, 피브스." 해리가 조심성 있게 말했다.

그들 주위에 있는 유령들과는 달리, 소리의 요정 피브스는 빛깔이 없지도 투명하지도 않았다. 밝은 로렌지 빛깔의 파티모자에, 나비넥타이를 맨 그는 이빨을 다 드러내고 심술궂게 히죽 웃고 있었다.

"조금 먹어볼래?" 그가 그들에게 곰팡이로 뒤덮인 땅콩 그릇을 내밀며 상냥하게 말했다.

"고맙지만, 괜찮아."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너희들이 가엾은 머틀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어." 피브스가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가엾은 머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무례한 짓이야." 그가 심호흡을 한번 내쉬더니 큰소리로 외쳤다. "오. 머틀."

"안돼, 피브스. 그 애에게 내가 한 말을 하지마, 들으면 기분나빠할 거야." 헤르미온드가 극도로 흥분해서 속삭였다.

"진심으로 말했던 건 아냐, 난 그 애를 싫어하지 않아. 어, 안녕, 머틀."

땅딸막한 여자아이의 유령이 미끄러지듯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두꺼운 진주빛 나는 안경에 반쯤 가려져 있었는데, 굉장히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뭐라구?" 그 애가 부루퉁하게 말했다.

"잘 지냈니, 머틀?" 헤르미온드가 거짓으로 꾸민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화장실 밖에서 널 만나서 반가워." 머틀이 코방귀를 뀌었다.

"그레인지 양이 막 너에 대해 마학 있었어-" 피브스가 머틀의 귀에 대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저- 그저- 너 오늘 참 멋지다구." 헤르미온드가 피브스를 노려보며 말했다.

머틀이 헤르미온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날 놀리고 있었지." 그 애의 투명한 작은 눈에 금방 은빛 눈물이 고였다.

"아냐- 정말이야- 내가 머틀이 정말로 멋지게 보인다고 말하지 않았니?" 헤르미온드가 해리와 론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아, 그래..."

"정말로 그랬어..."

"거짓말 마." 머틀의 얼굴은 이제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파브스는 그녀의 어깨 너머에서 유쾌하게 킁킁했다. "사람들이 내 등뒤에서 날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 줄 알아? 똥보 머틀! 못생긴 머틀! 불쌍하게,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는 머틀!"

"너 여드름투성이라는 말은 왜 안 하니?" 피브스가 그녀의 귀에 대고 놀리듯 말했다.

모우닝 머틀이 몹시 괴로워하며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 지하 감옥에서 뛰쳐나갔다. 피브스가 부리나케 뒤를 쫓아가면서, 그녀에게 곰팡이가 핀 땅콩들을 던지며, "여드름 투성이! 여드름 투성이!"라고 소리쳤다.

"원, 저런" 헤르미온느가 딱하다는 듯이 말했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사람들을 뚫고 그들 쪽으로 뚱뚱 떴다.

"재미있게들 보내고있니?"

"아,네." 그들은 거짓말을 했다

"정말 많이들 왔어."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흡족해하며 말했다. "글세, 비탄에 젖어있는 과부가 켄트 지방에서 여기까지 왔지 뭐야. 연설할 시간이 다 됐군, 가서 오케스트라에게 알려주는 게 좋겠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멈췄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주 인상적인 나팔 소리가 들리자 지하 감옥에 있는 모든 유령들이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져서는 흥분해서주위를 둘러보았다.

"또 시작이군."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씩씩하게 말했다.

지하 감옥 벽에서 갑자기 목이 없는 기수를 태운 십여 마리의 유령 말들이 튀어나왔다. 모여 있던 사람들이 무턱대고 박수를 쳤다. 해리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만, 닉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멈췄다.

말들이 댄스 플로어 한가운데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뒤탈다리를 들고 뛰어올랐다. 수영이 난 머리통을 거드랑이에 낀 몸집이 큰 유령하나가 그 무리 앞에 서서 나팔을 불고 있었다. 그 유령이 사람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머리통을 공중으로 높이 치켜들고 말에서 뛰어 내리더니(모두가 웃었다.) 머리를 목뒤로 마구 짓누르고 있는 목이 달랑달랑한 닉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닉" 그가 큰소리로 말했다. "잘 있었나? 머리는 여전히 매달려 있나?"

그가 실없이 크게 웃으며 목이 달랑달랑한 닉의 어깨를 탁 쳤다.

"어서 오시오, 패트릭." 닉이 딱딱하게 말했다,.

"살아있는 녀석들도 있군." 패트릭 경이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를 발견하고, 놀라는 척하며 펄쩍 뛰자, 그의 머리통이 다시 툭 떨어졌다. (사람들이 킬킬 웃어댔다.)

"정말 재미있군요."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음울하게 말했다.

"닉은 신경쓰지 마." 마룻바닥에 있는 패트릭 경의 머리통이 소리쳤다. "우리가 사냥꾼 협회에 넣어주지 않아서 여전히 화가 나있는 모양이군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

"제 생각에" 해리가 닉의 얼굴에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보고 허둥지둥 말했다. "닉은 아주 무섭고, 어."

"하." 패트릭 경의 머리통이 소리쳤다. "닉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지."

"잠깐 실례하지만, 제가 연설할 시간이 된 것 같군요."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오케스트라의 지휘대 쪽으로 걸어가 얼음 같은 푸른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올라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애석해 마지않는 고 신사숙녀 여러분, 대단히 슬픔니다."

그러나아무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 같이 머리통 하키게임을 하기 시작한 패트릭 경과 목이 없는 사냥꾼 협회 사람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청중의 주의를 다시 끌어보려고 애썼지만, 공중으로 날아가는 패트릭 경의머리통에 사람들이 큰소리로 환호하자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

해리는 이제 배고픈 건 말할 것도 없고, 으슬으슬 춥기까지 했다.

"이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면서 유령들이 다시 댄스 플로어로 올라가자, 론이 덜덜 떨며 두덜거렸다.

"가자." 해리가 동의했다.

그들은 눈이 마주치는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밝게 웃어 보이며 뒷걸음질로 문 밖으로 나갔고, 잠시 뒤엔 다시 까만 초들로 밝혀진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어쩌면 푸딩이 아직 조금 남아있을지도 몰라." 론이 현관안의 넓은 홀로 가는 계단 쪽으로 앞장서서 걸어가며 희망을 가지고 말했다.

그 때 해리의 귀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가죽을 벗겨서, 갈기갈기 찢어서, 죽일거야."

그것은 록허트의 사무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차갑고 소름끼치는 바로 그목소리였다.

그는 발부리가 걸려 넘어지며 멈춰서는, 돌 벽을 짹 잡고, 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희미하게 불 밝혀진 복도 이쪽저쪽을 두리번두리번 살폈다.

"해리, 너 뭐?"

"저 목소리가 다시, 잠시만 조용히 해봐."

"너무 배고파,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봐." 해리가 다급하게 말하자, 론과 헤르미온느가 그를 지켜보며 꿈쩍 않고 서 있었다.

"죽일 거야. 죽일 시간이야."

그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멀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목소리는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공포와 흥분에 사로 잡혀 어두운 천장을 뚫히 바라보았다. 그게 어떻게 위로 움직일 수 있지? 허깨비였나?

"이쪽이야." 그는 이렇게 소리치고는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현관 안의 홀에서는 연회장에서 흘러나온 왁자지껄한 할로윈 축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소리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 해리가 1층으로 가는 대리석 계단 위로 전속력으로 달려가자, 론과 헤르미온느도 그를 뒤따라갔다.

"해리, 우리가 뭐."

"숫"

해리는 귀를 기울였다. 여전히 점점 더 작아지고는 있었지만 멀리, 위층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다. "피 냄새가 나, 피 냄새가 나,"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누군가를 죽일 거야." 그가 이렇게 소리치고는, 론과 헤르미온느의 당황한 얼굴을 무시한채, 계단을 한번에 세 칸씩 뛰어올라갔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헐떡거리며 해리 뒤를 쫓아갔다. 그들은 모퉁이를 돌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복도로 들어섰다.

"해리 무슨일이야?" 론이 얼굴에서 땀을 닦으며 말했다.

"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복도 끝을 가리켰다.

"저것 좀 봐."

벽 앞쪽에서 뭔가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두리번거리며 어둠 속을 천천히 나아갔다. 두 창문 사이에 있는 벽면에 서투르게 쓰여진 커다란 글자들이, 타고 있는 햇불의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비밀의 방이 열렸다.

후계자의 적들이여, 조심하라.

"저게 뭐지, 그 밑에 매달려 있는 거?" 론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서히 다가가던 해리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마룻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붙잡아주었다. 그 글씨 쪽으로 조금씩 다가가던 그들의 눈이 그 밑에 있는 검은 물체로 쏠렸다. 그들 셋은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고, 놀라서 흠칫했다.

학교 관리인의 고양이 노리스 부인이 햇불 받침대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그 고양이는 나무판처럼 뻗뻗했으며, 눈은 크게 떠진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뒤 론이 말했다. "여기서 빨리 나가자."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해리가 어설픈게 말을 꺼냈다.

"내 말대로 해." 론이 말했다. "여기서 들켰다간 큰일나."

그러나 이미 너무 늦고 말았다. 멀리서 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보아 연회가 막 끝난 것 같았다. 그들이 서있는 복도 양 끝에서 수백명의 발이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소리와,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크고 유쾌한 말소리가 들리는 가싶더니 어느새, 학생들이 요란하게 복도로 밀려들어오고 있었다.

학생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과 떠들썩한 소음은 그들이 돌처럼 굳어진 고양이를 본 순간 갑자기 멈추고 고요한정적만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그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그 때 누군가가 정적을 깨고 소리쳤다.

"후계자의 적들이여, 조심하라, 흥. 다음은 어떤 잡종이 당할차례일까?"

그건 드레이코 말포이였다. 그는 차가운 눈을 반짝이며 늘 창백하던 얼굴마저 잔뜩 상기된 채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가더니, 죽은 듯이 매달려 있는 고양이를 보고 심술궂게 씩 웃었다.

## 제9장

벽면에 쓰여진 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야?"

말포이의 외침소리에, 아구스 필치가 사람들을 어깨로 밀어 헤치고 앞으로 걸어나왔다가 노리스 부인을 보자 주춤하며 얼굴을 움켜쥐었다.

"내 고양이. 내 고양이. 노리스 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가 해리에게로 고개를 핵 돌려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너." 그가 날카롭게 외쳤다. "너, 네가 내 고양이를 죽였지. 네가 내 고양이를 죽였지. 널 죽이고 말겠어. 내가."

"아구스."

덤블도어 교수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그곳으로 왔다. 잠시 후, 그가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 옆으로 지나가 햇불 선반에서 노리스 부인을 떼어냈다.

"나와 같이 가세, 아구스." 그가 필치에게 말했다. "포터 군, 위즐리 군, 그레인저 양, 자네들도."

록허트가 몹시 궁금한 듯 앞으로 걸어나왔다.

"제 사무실이 가장 가까운데요, 교장 선생님. 바로 위층이에요. 마음 편히 가세요."

"고맙네, 질데로이." 덤블도어 교수가 말했다.

사람들이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말없이 길을 내주었다. 록허트가 흥분해서 으스대는 표정으로 허둥지둥 덤블도어 교수를 따라갔다. 맥고나걸 교수와 스네이프 교수도 따라갔다.

그들이 록허트의 어두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사방의 벽에서 한바탕 동요가 일었다. 해리는 머리에 롤러를 말고있던 사진 속의 록허트들이 어디론가 살짝 피하는 걸 보았다. 진짜 록허트가 책상 위에 있는 촛불들에 불을 붙이고 뒤로 물러섰다. 덤블도어가 반들반들한 책상 위에 노리스 부인을 내려놓고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촛불 불빛이 잘 비치지 않는 의자에 앉아 긴장한 얼굴로 덤블도어 교수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덤블도어 교수는 긴 매부리코 끝이 노리스 부인의 털 끝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굽히고 고양이를 긴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다. 맥고나걸 교수도 눈을 가늘게 뜨고 상체로 더 쳐 노리스 부인을 살폈다. 그들 뒤에 서있는 스네이프 교수는 어둠에 반쯤 가려져 있어서 흐릿하게 보였는데, 웃지 않으려고 무진 애쓰고 있는 듯, 아주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또 록허트는 그들 주위를 왔다갔다 하며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있었다.

"그 고양이를 죽인 건 저주가 확실해요. 아마 '트랜스모그리피안 고문' 일 겁니다. 전 그것이 사용되는 걸 여러 번 본적



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 있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고양이를 구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그 저주를 푸는 반대 저주를 알고있거든"

록허트의 설명은 필치의 노골적인 흐느낌 때문에 중단되었다. 그는 노리스 부인을 차마 볼수가 없어 두 손으로얼굴을 감싸고, 책상 옆 의자에 맥없이 앉아 있었다. 해리는 필치를 싫어하긴 했어도, 조금은 가여운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신세가 훨씬 더 가엾게 여겨졌다. 만일 덤블도어교수가 필치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는 쫓겨날 것이 분명했던 것이다.

덤블도어 교수는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요술지팡이로 노리스 부인을 가볍게 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고양이는 그저 박제된 것 같은 모습 그대로였다.

"우아가도구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던 기억이 나는군요." 록허트가 말했다. "습격이 잇따라 일어났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 자서전에 있긴 합니다만, 제가 그곳 사람들에게 다양한 부적으 나눠주자, 그 사건이 글세 단번에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벽에 걸린 록허트의 사진들이 그가 말한 것에 동의라도 하는 듯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한 사진은 깜박했는지 여전히 헤어네트를 쓰고 있었다.

마침내 덤블도어 교수가 일어섰다.

"죽은 건 아닐세, 아구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록허트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살인을 미리 막아냈는지 세고 있다가 갑자기 멈췄다.

"죽지 않았다고요?" 필치가 손가락 사이로 노리스 부인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서 말했다. "그런데 고양이가 왜 저렇게, 저렇게 뻗뻗하고 꼼짝도 하지 않는 거죠?"

"그 고양이는 돌처럼 굳어진 걸세." 덤블도어 교수가 말했다. ("아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록허트가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네."

"저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필치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해리에게로 돌리며 말했다. "2학년 짜리 학생은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네." 덤블도어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둠의 마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고등 마법뿐이네."

"저 애가 그랬어요, 저 애가 그랬다고요." 필치가 큰소리로 말했다. 볼이 주머니처럼 축 늘어진 그의 얼굴이 새빨강게 달아올랐다. "저 애가 벽에다 뭐라고 썼는지 보셨잖아요. 저애가 봤어요. 제 사무실에서. 저 애가 봤어요. 제가. 제가" 필치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저 애는 제가 스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말을 마쳤다.

"전 노리스 부인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어요." 해리가 벽에 붙어있는 샷딘 속의 록허트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는 불편한 느낌 속에 큰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전 스킵이 뭔지도 몰라요."

"엉터리 같은 소리마." 필치가 무서운 어조로 말했다."저엔 속성 마법 과정에 관한 제 편지를 봤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다면, 교장 선생님." 어둠속에서 스네이프 교수가 말하자, 해리의 두려움이 더욱 커졌다. 스네이프 교수가 결코 그에게 유리한 말을 하지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포터와 그의 친구들이 그곳에 간게 우연이었는데는 모르지만." 그는 마치 그것을 의심하기라도 하는 듯이 냉소로 이이비틀렸다.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애가 도대체 왜 위층 복도로 갔던 것일까요? 그 애는 왜 할로윈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걸까요?"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드가 일제히 그 사망일 파티에 대해 말했다. "수백명의 유령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그들이 말해줄 거예요."

"그런데 왜 나중이라도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지?" 스네이프 교수의까만 눈이 촛불을 받아 무섭게 번득였다. "그 복도로 왜 올라갔지?"

론 헤르미온드가 해리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해리는 가슴이 두방망이질 치는 걸 느꼈다. 왠지 자신밖에 들을 수 없는 어떤 형체 없는 목소리에 이끌려 그곳에 갔었다고 말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러 가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말했다.

"저녁도 먹지 않고 말이니?" 스네이프 교수가 가늘고 긴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내 생각에 유령들의 파티엔 산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이 있었을 것 같지 않은데."

"저희들은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배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론이 큰소리로 말했다.

스네이프 교수가 한층 더 심술궂은 미소를 지었다.

"교장 선생님, 포터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가 말했다. "따라서 저 애가 모든걸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어떤 특권들을 박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애를 그리핀도 이 퀴디치 팀에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베루스" 맥고나걸 교수가 날카롭게 말했다. "제가 볼땐 그 아이에게 퀴디치를 못하게 할 어떤 이유도 없어요. 고양이는 빗자루로 머리를 얻어맞은 게 아니잖아요. 포터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구요."

덤블도어 교수가 해리를 날카로운 눈초리로 쳐다보거 있었다.그가 반짝이는 하늘빛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자 해리는 꼭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예요. 세베루스." 그가 확고하게 말했다.

스네이프 교수는 매우 화난 것처럼 보였다.필치도 그랬다.

"제 고양이가 돌처럼 변해버렸어요." 그가 금방이라도 튀어 나올 것 같은 눈을 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말도 안돼요. 전 누군가가 벌 받는 걸 꼭 봐야겠어요."

"그 고양이는 고칠 수 있을 거요. 아구스." 덤블도어 교수가 참을성 있게 말했다. "스프라우트 교수가 최근에 맨드레이크를 조금 구했어요. 그것들이 완전히 자라게 되면 노리스 부인을 다시 살아나게 할 마법의 약을 만들게 하리다."

"제가 만들겠어여." 록허트가 끼어 들었다. "전 그걸 수백 번도 더 만들어보았거든요. 맨드레이크 의식 회복약 쯤은 잠을

자면서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스네이프 교수가 냉기가 도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학교에서 마법의약 선생은 바로 저인 것 같은데요." 잠시 매우어색한 순간이 흘렀다.

"너희들은 잠시 가도 좋다." 덤블도어 교수가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그들은 사실 뛰지는 않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걸음을 빨리했다. 록허트의 사무실 바로 위층에 도달하자. 그들은 빈 교실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다. 해리는 친구들의 어두운 얼굴을 훑어 보았다.

"너희들은 내가들은 저 무시무시한 목소리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니," 론이 주저없이 말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를 들은건, 마법사 세계에서조차도 좋은 징조가 아냐."

론의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는지, 해리가 물었다. "날 믿지, 안그래?"

"물론이야." 론이 얼른 말했다. "하지만 너도그게 이상하다는 건 인정해야 해."

"나도 그게 이상하다는 건 알아." 해리가 말했다. "그것뿐 아냐. 모든 게 이상해. 벽에 쓰여진 글은 무슨 말일까? 그 방이 열렸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일종의 경종을 울린 거야." 론이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가 언젠가 호그와트에 있는 비밀의 방에대해 얘기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아마 빌 형이었을 거야."

"그런데 스컬이란 건 또 뭐니?" 해리가 물었다.

놀랍게도, 론이 숨넘어갈 듯 낄낄거렸다.

"필치가 스컬이라니 생각할수록 정말 웃겨." 그가 말했다.

"스컬은 마법사 혈통이지만 마법의 힘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해. 말하자면 머글 태생의 마법사와 반대라고나 할까. 하지만 스컬은 아주 드물어. 필치가 만약 속성 마법과정에서 마법을 배우려고 했다면, 그는 스컬인게 분명해. 그리고 보니 그의 행동이 다 이해가 가. 그가 학생들을 그렇게 미워한것도 어쩌면 다 그 때문일거야." 론이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다 "스스스스스."

어딘가에서 시계 종이 울렸다.

:자정이야." 해리가 말했다. "스네이프 교수가 와서 또 다른 문제로 우리를 모함하기 전에 빨리 기숙사로 올라가는데 좋겠어."

며칠동안, 학생들은 모두 노리스 부인이 습격 받은 얘기만 했다. 필치는 그 습격자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기라도 하는지, 고양이와 습격받은 장소를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계속 긴장시켰다. 해리는 그가 스코워 부인의 '신비한 다목적 오물 제거제'로 벽에 쓰여진 글귀를 박박 문질러 닦는 걸 몇 번이나 보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 글귀는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밝게 번득일 뿐이었다. 필치는 그 범죄현장을 지키고 있지 않을 때는,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복도들을 살금살금 기어다니면서, 아무 학생이나 발로 툭툭 건드리며 '시끄럽게 숨쉬었다'거나 '행복해보인다'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죄목을 붙여 벌을 주려고 했다.

지니 위즐리는 노리스 부인이 그렇게 된 걸 보고 매우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론은 그녀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넌 노리스 부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잖아." 론이 그녀의 기분을 돋우어 주려고 말했다. "솔직히, 그고양이가 없으니까 정말 살 것 같아." 지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호그와트에서 이런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냐." 론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런짓을 한 미치광이는 곧 잡혀서 쫓겨날 거야. 하지만 난 그 미치광이는 곧 잡혀서 쫓겨날 거야. 하지만 난 그 미치광이가 필치를 돌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나 쫓겨났으면 좋겠어. 아냐, 아냐, 그저 농담한 거야." 지니의 얼굴이 창백해지자 론이 부랴부랴 덧붙였다.

그 습격은 또 헤르미온느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헤르미온느가 많은 시간을 책을 읽으며 보내는 건 아주 예사로운 일이긴 했지만, 그녀는 이제 줄곧 책하고만 씨름했다. 해리와론이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도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수요일이 되어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해리는 마법의 약 수업이 끝난 뒤 스네이프 교수에게 붙잡혀 책상을 닦아야 했다. 허겁지겁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 있는 론을 만나기 위해 이층으로 가는데 후플푸프의 저스틴 핀치 플레츨리가 약초학 수업을 마치고 걸어오는게 보였다. 그런데 해리가 인사를 하려고 입을 열려는 순간 저스틴이 그와 눈이 마주치자, 무뚝뚝하게 돌아서더니 반대 방향으로 급히 달아났다.

해리는 론이 도서관 저 안쪽에서 마법의 역사 숙제의 길이를 재고 있는 걸 발견했다. 빈스 교수는 '중세 유럽 마법사들'에 대한 1미터짜리 긴 작문을 숙제로 내주었었다.

"이럴 수가 아직도 20센티미터 밖에 안돼." 론이 화가 나서 내팽개치자 양피지 두루마리가 다시 도르르 말렸다. "헤르미온느는 깨알 같은 글씨인데도 1미터 40센티미터나 했는데 말야."

"그 애는 어디에 있니?" 해리가 줄자를 잡고 자신의 숙제를 펼치며 물었다.

"저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론이 책꽂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또 다른 책들을 찾고 있어. 그 앤 크리스마스 전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몽땅 읽을 작정인가봐."

해리가 론에게 자신을 보고 달아난 저스틴 핀치 플레츨리에 대해 말했다.

"그런 걸 뭐하러 신경쓰니. 그 앤 원래 좀 멍청하잖아." 론이 될 수있는데로 큰 글씨로 마구 갈겨쓰며 말했다. "록허트에 대한 저 엉터리 같은 말들하며."

헤르미온느가 책시렁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이 꽤 상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침내 그들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호그와트, 그 역사' 책들을 사람들이 모두 빌려가 버렸어." 그녀가 해리와 론 옆에 앉으며 말했다. "2주는 기다려야 해. 그책을 집에다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말야. 하지만 록허트의 책들을 다 넣고 나니까 다른 책을 넣을 공간이 있었어야지."

"그 책을 왜 찾는데?"해리가 말했다.

"다른 애들이 그 책을 찾는 것과 똑같은 이유지 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비밀의 방의 전설에 대해 읽어보려고."

"그게 뭔데?" 해리가 얼른 물었다.

"바로 그 점이야. 나도 바로 그게 기억이 나지 않거든." 헤르미온드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리고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책에서는 그 전설을 찾을 수가 없어."

"헤르미온드, 네 작문 좀 읽어보자." 론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절망적으로 말했다

"안돼, 그럴 수 없어." 헤르미온드가 갑자기 매정하게 말했다. "숙제할 시간이 열흘이나 있었는데 여태 뭐하고 이제 와서 보여달라는 거니."

"이제 5센티미터 정도만 더 쓰면돼,어서."

종이 울렸다. 론과 헤르미온드는 서로 옥신각신하며 앞장서서 '마법의 역사' 수업을 받으러 갔다.

마법의 역사는 가장 재미없는 과목이었다. 그 과목은 유일하게 유령 교수인 빈스가 가르쳤는데, 그가 칠판을 통해 교실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그나마 가장 흥미로운 일이었다. 나이가 많아 얼굴이 쭈글쭈글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 어느 날 교무실 난로 앞에서 안락의자에 앉은 채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시시는 그대로 남겨둔 채 수업하러 올라갔었다고 한다. 그리고 빈스 교수의 일과는 그 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늘 수업은 한층 더 지루했다.빈스 교수가 노트를 펼치고 낡은 청소기가 웅웅거리는 것 같은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을 때,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모두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고, 가끔 이름이나 낱자를 받아 적어야 할 때만 잠깐잠깐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어버리곤 했다. 그런데 수업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질문을 한 것이다. 바로 헤르미온드였다.

1289년의 국제 와룩 협정에 대해 말하던 빈스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흘끗 올려다보았다.

"그레.어.?"

"그레인저입니다. 교수님. 혹시 비밀의방에 대해 뭐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헤르미온드가 푹 부러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딘 토마스는 입을 헤 벌리고 멍하니 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고, 거의 옆드려 있다시피 하던 라벤더 브라운은 고개를 번쩍 들었으며 한쪽 팔로 턱을 괴고 있던 네빌 롱바텀은 놀라는 바람에 책상에 코를 박고 있었다.

빈스 교수가 눈을 깜빡거렸다.

"내가 가르치는 건 마법의 역사입니다." 그가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을 다룹니다. 그레인저 양." 분필을 푹 부러뜨리는 것 같은 작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가 목을 가다듬고 말을 계속했다. "그 해 9월에, 사르디니아의 마법사 분과 위원회는-''"

그가 말을 더듬거리며 멈췄다. 헤르미온드의 손이 다시 높이 들어올려져 있었다.

"그레인저 양?"

"선생님,전설이 항상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건 아니죠?"

빈스 교수는 살았든 죽었든 과거에는 강의 도중에 질문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지, 그녀를 아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글쎄요" 빈스 교수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요,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군" 그는 학생을 제대로 본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처럼 헤르미온드를 뵈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학생이 말하는 것의 전설은 대단히 물의를 일으킨,심지어 어이없기까지 한 이야기여서◎'

그러나 학급 학생 전체는 이제 빈스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는 하나같이 얼굴을 그에게로 돌리고 있는 그들을 희미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보기 드물게 그를 향해 눈을 말뚱말뚱 뜨고 있는 아이들을 보자 몹시 어리둥절해진 것 같았다.

"아,좋아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가만 있자.... 비밀의 방은.....

"물론 여러분 모두 알고 있겠지만, 호그와트는 1070년 전에-그 정확한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그 시대의 위대한 네 명의 마녀와 마법사에 의해 창립되었어요 네 개의 학교 기숙사 이름은 고드릭 그리핀도르, 헬가 후플푸프, 로웨나 래번클로, 그리고 살라자르 슬리데린이라는 그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머글들의 눈을 피해 함께 이 성을 지었어요,그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이 마법을 두려워해서, 마녀와 마법사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었3;"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흐릿한 눈으로 교실을 응시한 뒤, 계속했다.

'편 년 동안,그 창립자들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 일하며,마법에 재능이 있어 보이는 젊은이들을 성으로 데려와 교육시켰죠 하지만 그 뒤 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슬리데린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슬리데린

은 호그와트로 데려올 학생들을 더 가려서 뽑길 바랐어요 마  
법사 가족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만 마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는 머글 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믿지 못하겠다  
며, 받아들이길 꺼렸어요 한참 뒤, 그 문제를 놓고 슬리데린과  
그리핀도르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슬리데린이  
학교를 떠났어요"

빈스 교수가 다시 잠간 말을 멈추고, 입술을 오므리자, 꼭 쭈  
글쭈글한 늙은 거북이처럼 보였다.

'뒀을 만한 역사적 문헌에는 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러나 전혀 거짓이 없는 이들 사실은 비밀의 방이라  
는 기상천외한 전설 때문에 모호해 졌어요 그 이야기에 따르  
면 슬리데린이 성안에 숨겨진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다른 창  
립자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리데린이 자신의 후계자가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무도 열지 못하도록 그 비밀의 방을 봉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 후계자만이 비밀의 방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끔찍한 것  
을 풀어, 마법을 공부할 가치가 없는 모든 학생들을 제거하도  
록 말이죠"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빈스 교수의 수업시간에 늘 있었던 활기 없는 침묵이 아니었  
다. 모두가 더 듣고 싶은 듯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으므  
로 분위기가 좀 거북했다. 빈스 교수는 약간 화난 것처럼 보였  
다.

"그 모든 이야기는 물론 터투니없는 영터리입니다. " 그가 말  
했다. '학교 당국은 물론 가장 학식이 높은 마녀와 마법사들이  
그러한 방을 찾기 위해 수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저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사람  
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꾸며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

헤르미온느의 손이 다시 번쩍 들어올려졌다.

"선생님-그 방 '안에 있는 끔찍한 것'이라는 건 정확히 무  
얼 말하는 건가요?'

'그건 슬리데린의 후계자만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괴물이  
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빈스 교수가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급 학생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잘 들어요, 그런 괴물은 존재하지 않아\_인' 빈스 교수가 노  
트를 이리저리 넘기며 말했다. '그런 방도 그런 괴물도 없어  
요"

"하지만 선생님.' 시무스 피니간이 말했다. '만일 그 방이 오  
직 슬리데린의 진정한 후계자에 의해서만 열린다면, 그 사람  
을 제외한 다른 어느 누구도 그 방을 찾아낼 수 없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건 말도 안돼요' 빈스 교수가 화난 어조로 말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호그와트의 역대 교장 선생님들이 전혀 찾아  
내지 못했는데◎'

"하지만, 교수님.' 패르바티 패틸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  
했다.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어둠의 마법을 사용해야만 할지  
도 모르잖아요'

'아법사가 어둠의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 건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패틸 양,' 빈스 교수가 날카롭게 말했다. "되풀이하  
지만, 덤블도어 교수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어쩌면 선생님도 슬리데린과 관련이 되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덤블도어 교수가 하지 못하도록 말◎' 빈 토마스  
가 이렇게 말하자, 빈스교수는 더 이상참을수가 없었다.

"이제 그만 합시다. "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건 전설이에  
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슬리데린이 비밀 빗자루 벽  
장 같은 걸 지었다는 아무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  
한 하찮은 이야기를 들려준 게 후회스럽군요! 이제 역사 이야  
기로 돌아갑시다. 근거 있고, 믿을 만하고, 입증할 수 있는 사  
실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5분도 되지 않아, 그 학급은 다시 깊은 휴면 상태로  
빠져들었다.

"살라자르 슬리데린이 괴팍한 늙은이라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어."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우글우글한 복도를 지나 저녁 식사 전에 가방을 내려놓으러 올라가며 론이 해리와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순수 혈통 운운하는 짓거리가 그로부터 시작됐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 기숙사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솔직히, 만약 그 마법의 분류 모자가 날 슬리데린에 넣으려고 했다면, 난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을 거야.... 헤르미온느도 그렇다는 듯 고개를 세게 끄덕였지만,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불편하게 두근거릴 뿐이었다.

해리는 마법의 분류 모자가 그를 슬리데린에 넣을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었다는 말을 론과 헤르미온느에게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는 1년 전 그 모자를 썼을 때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귀에 대고 말했던 걸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할 수 있었다. 넌 뿔뿔해질 수 있어. 꺾긋 렌 떼긋 속있 ㄷ1있7긋.슬릭 테린은 네가 위대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야.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하지만 해리는 슬리데린 기숙사가 어둠의 마법사들을 배출하는 곳으로 유명하다는 걸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필사적으로 슬릭덕린은 안핀,」라고 생각했고 그 모자가 그럼, 팩각 축신한71면... 그릭핀도르간 낙을 직알.... 라고 했었다. 그들이 떼지어 이동하는 사람들을 피해 한쪽 옆으로 비켜섰을 때, 콜린 크리비가 지나갔다.

"야, 해리 !"

"안녕, 콜린." 해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말했다.

"해리- 해리- 우리 반에 있는 어떤 아이가 그러는데 네가 ◎'

하지만 몸집이 작았던 콜린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연회장 쪽으로 밀려갔다. 그가 킁킁거리며 '나중에 봐, 해리 !'라고 외쳤다.

"그의 반에 있는 아이가 너에 대해 무슨 말을 했다는 거니?' 헤르미온느가 이상하게 여겼다.

'내가 슬리데린의 후계자라는 말이겠지.' 해리는 문득 아까 점심시간에 저스틴 핀치-플레츨리가 그에게서 달아났던 일을 떠올리고 가슴이 또 한번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라도 믿을 거야." 론이 넌더리가 난다는 듯 말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자 그들은 어려움 없이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비밀의 방이 정말로 있을까?' 론이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몰라,"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는 노리스 부인을 고치지 못했잖아, 그걸 보면 그 고양이를 습격한 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쩌면-뭐랄까-인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녀가 말하는 사이 모퉁이를 돌자 바로 그 습격 사건이 일어났던 복도 끝이 나왔다.

그들은 발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그 현장은 햇불 선반에 매달린 뺨뺨한 고양이 그림이 없다는 것과, '비밀의 방이 열렸다'라는 글귀가 적힌 벽에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날 밤과 똑같았다.

"필치가 망보고 있다는 곳이 바로 저긴가봐." 론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았다. 크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좀 살펴본다고 큰일 나지는 않겠지.' 해리가 가방을 내려놓더니 뭔가단서라도 찾으려는 듯 손과 무릎을 대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을음 자국이야!' 그가 말했다. "여기- 그리고 여기도◎'

"와서 이것 좀 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이상해....

해리가 일어서서 벽에 쓰여진 글귀 옆에 있는 창문 쪽으로 갔다. 헤르미온느는 가장 높은 창유리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선 20여 마리의 거미가 갈라진 작은 틈새로 앞다투

어 달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거미들이 올라가는 데 사용한 것 같은, 은빛 거미줄 하나가 밧줄처럼 매달려 있었다.  
 "거미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본 적 있니?" 헤르미온느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해리가 말했다. '넌, 론? 론?'  
 그가 어깨 너머로 보자 론이 꼭 달아나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있더라도 한 듯 저만치 물러서 있었다.  
 "뭐하니?" 해리가 물었다.  
 '간- 거미들을- 좋아하지- 않아.' 론이 긴장해서 말했다.  
 '그건 전혀 몰랐네,' 헤르미온느가 놀란 눈으로 론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법의 약 시간에는 거미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졌잖아.....'  
 '㉠은 건 괜찮아.' 론이 창문만 빼고 다른 곳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말했다. '난 그저 거미가 움직이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뿐이야.....'  
 헤르미온느가 낄낄거렸다.  
 "웃을 일이 아냐." 론이 화가 나서 말했다. "세 살이었을 때, 프레드 형은 내가 그의 장난감 빗자루를 부러뜨렸다고 내- 내 곰 인형을 엄청나게 큰 불쾌한 거미로 변신시켜버렸어... 곰 인형을 들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다리가 많은 거미로 변했다고 생각해봐.... 너희들도 아마 기겁을 했을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저리를 쳤다. 헤르미온느는 그럼에도 여전히 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해리는 얼른 화제를 돌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너희들 마룻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던 거 기억하니? 그 물이 어디서 나온 걸까? 누군가가 닦아냈어.'  
 "여기쯤이었어," 론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필치의 의자를 지나 몇 발짝 걸어가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로 이 문이 있는 곳이었어.'  
 그가 문 손잡이로 손을 뻗다가 마치 데 이기라도 한 듯 화들짝 놀라며 얼른 손을 떼었다.  
 "왜 그래?" 해리가 말했다.  
 "들어갈 수 없어." 론이 통명스럽게 말했다. "여자 화장실이야.'  
 "하지만, 론, 저 안엔 아무도 없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똑바로 걸어오며 말했다. '그곳이 바로 모우닝 머틀이 사는 곳이야. 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녀가 커다란 고장' 표지판을 무시한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해리는 그렇게 어둡침침하고, 그렇게 침울한 화장실은 처음이었다. 금이 가고, 얼룩진 커다란 거울 밑에 깨진 세면대들이 죽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물이 흥건한 바닥에 받침까지 타들어 간 몇 개의 동강 초들이 희미한 불빛을 비추고 있었다. 화장실의 나무문들은 칠이 다 벗겨지고 무언가로 북북 긁혀져 있었으며, 그중 하나는 경첩에서 떨어져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손을 입술에 대고 맨 끝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안녕, 머틀, 잘 있었니?"  
 해리와 론도 따라갔다. 모우닝 머틀이 변기 수조 위에 떠서 턱끝에 있는 여드름을 짜고 있었다.  
 "여긴 여자 화장실이야." 그녀가 론과 해리를 수상쩍은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 애들은 여자가 아니잖아.'  
 "그래,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동의했다. '난 그저 그 애들에게-어-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가 막연히 더러운 거울과 축축한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애에게 혹시 뭐라도 보았는지 물어봐.' 해리가 소리내지 않고 헤르미온느에게 속삭였다.  
 '너 뭐라고 속닥거리는 거니?' 머틀이 그를 뻘히 보며 말했다.  
 "아무 것도 아냐.' 해리가 얼른 말했다. '우린 그저 물어보고 싶은 게㉠'

'난 사람들이 내 등뒤에서 말하는 건 질색이야!' 머틀이 음이 복받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도 감정은 있어,죽었다고 해도 말야☹'

'머틀,네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해리는 그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구! 말은 그럴듯하지!'" 머틀이 악을 쓰며 말했다. "호그와트에서의 내 인생은 고통뿐이었어. 그런데 죽어서까지도 사람들은 날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

'우린 네가 혹시 최근에 뭐 이상한 것을 보지 ☹했는가 해서 온 것뿐이야.'" 헤르미온느가 얼른 말했다. "왜냐하면 할로윈 때 고양이 한 마리가 네 화장실 바로 밖에서 습격을 받았거든."

'그날 밤에 이 근처에서 누구 못 봤니?' 해리가 물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잘 몰라.'" 머틀이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말했다. "피브스가 날 어찌나 화나게 했던지 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죽으려고 했었어. 그리곤 물론, 난 기억했지, 내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말이지.'"론이 도움이 되게 말했다.

머틀이 애처롭게 흐느끼더니,공중으로 올라가,머리를 아래로 하고 변기 속으로 풍덩 들어가며 그들에게로 물을 온통 튀게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흐느낌 소리의 방향으로 보아, 그론근 변기 밑의 수도관 어딘가에 있는 게 분명했다. 해리와 론은 기가 막혀서 입을 헤 벌린 채 서 있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해 보았는지 어깨를 해 보였다. "솔직히, 이 정도는 약과야... 자, 가자." 해리가 머틀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문을 닫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커다란 목소리가 들리자 그들 셋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

퍼시 위즐리가 반장 배지를 반짝거리며, 굉장히 충격 받은 표정으로 계단참에 서 있었다.

"거긴 여자 화장실이야!" 그가 혈떡거리며 말했다. '너희들 뭐하고있는거지?'

'그저 좀 둘러보고 있었던 것뿐이야.'" 론이 어깨를 으쓱했다. '단서, 뭐 그런 거 있잖아"

퍼시가 해리에게 꼭 위즐리 부인을 생각나게 하는 표정으로 소리를 높였다.

"거기서- 당장- 나가" 퍼시가 그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그들을 재촉하며,손바닥으로 그의 팔을 찰싹 때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다들 저녁 먹고 있는데 이곳에 다시 오다니"

"우리가 왜 여기에 오면 안돼?' 론이 꿈쩍 않고 퍼시를 노려보며 흥분해서 말했다. '잘 들어,형,우린 그 고양이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나도 지니에게 바로그렇게 말했어.'"퍼시가사납게 말했다.

"하지만 그 애는 여전히 네가 쫓겨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난 그 때가 눈이 통통 붓도록 울고,르렁헤 룰안패하는 컨 처음 봤어,그 애의 입장도 생각해야지,모든 1학년생들이 이 일로 극도로 흥분하고 있단 말야☹"

'젠히 지니 핑계대지 마.'"론이 귀가 새빨개져서 말했다. '형은 그저 나 때문에 학생회장 자리를 놓칠까봐 안달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리핀도르에서 5점 감점할 줄 알아!" 퍼시가 자신의 반장 배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짧고 힘차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만하면 말귀를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어! 더 이상 탐정 짓은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당장 엄마에게 편지를 쓸 테니까!" 그리고 그는 목덜미가 론의 귀만큼이나 새빨개진 채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그날 밤 될 수 있는 대로 퍼시에

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던 론은 하  
기 싫은 숙제를 끄적 거리고 있었는데 무심코 요술지팡이를 집  
어들다가그만노트에 불이 붙고 말았다 이것 때문에 더욱 더  
화가 난 론은 보고 있던 교과서를 쿡 덮어버렸다. 그러자 놀랍  
게도 헤르미온느도 보던 책을 덮어버렸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 짓일까?' 마치 그들이 막 나누고 있었  
던 어떤 대화를 계속하기라도 하는 듯이 그녀가 조용한 목소  
리로 말했다. "스칩과 머글 태생을 모두 위협해서 호그와트에  
서 쫓아내고 싶어하는 게 누군까?'

"생각해봐." 론이 어리둥절한 체하며 말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머글 태생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  
지?'

그가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자 그녀가 잘 납득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혹시 말포이가?'

"물론이야!" 론이 말했다. '너도 그 애가 하는 말 들었지  
흥. 단음은 민턴 잡종인 당할친런일간?라고 하던 말 말야  
그 쥐새끼 같은 녀석의 불쾌한 얼굴을 생각해 봐,그 녀석 짓  
이 분명해."

'말포이,슬리데린의 후계자?' 헤르미온느가 약간 의심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 녀석의 가족을 봐.' 해리도 역시 책을 덮으며 말했다.  
'그들은 모두 슬리데린 기숙사 출신이야. 그 녀석은 항상 그것  
에 대해 자랑하고 다녔잖아.그들은 슬리데린의 후손일 가능  
성이 많아.그 녀석의 아버지도 아주 못됐잖아."

"그들은 수세기 동안 비밀의 방 열쇠를 갖고 있었을 거야!"  
론이 말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물려주면서 말야.....

"글쎄."헤르미온느가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가능하긴 하  
지만..."

"하지만 그걸 어떻게 입증하지?'해리가 은밀히 말했다.

"아마 방법이 있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방 저쪽에 있는 퍼  
시를 훑듯 쳐다보며 훨씬 더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물론, 떠러울 거야.그리고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 말야.우  
린 아마 학교의 규칙을 50개쯤 어겨야 할 거야☹'

'만약, 한 달쯤 뒤에라도, 확실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면,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래?'론이 안달이 나서 말했다.

'좋아"헤르미온느가 차갑게 말했다. '우린 그저 정체를 숨  
기고 슬리데린의 학생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 말포이에게 몇  
가지 물어보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론이 웃자 해리가 말했다.

"아냐,그렇지 않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저 폴리투스  
마법의 약만 조금 있으면 돼.'

'그게 뭔데?' 론과 해리가 동시에 물었다.

'몇 주일 전 수업시간에 스네이프 교수가 말했잖아'

'넌 우리가 수업시간에 스네이프 교수의 입만 바라보고 있  
줄 아니?' 론이 투덜거렸다.

'그걸 먹으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한번 생각해 봐! 우린 세  
명의 슬리데린 학생으로 변신할 수 있을 거야. 아무도 그게 우  
리라는 걸 알지 못할 거야. 말포이는 아마 우리에게 무슨 말이  
든 할 거야. 그 앤 지금도,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어쩌면  
슬리데린의 학생 휴게실에서 그것에 대해 자랑하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볼 때 폴리주스인지 뭔지 하는 건 좀 위험하게  
들려.' 론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랬다가 만약 영원히  
슬리데린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면 어떡하니?'

"시간이 얼마간 지나면 락 기운이 없어져."헤르미온느가손  
을 내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조제법을 손에 넣기가 아주  
어려울 거야. 스네이프 교수는 그게 ☹스테 포텐트 마법의  
불이라는 책에 있다고 했는데 그건 도서관의 제한 구역에 있  
거든.'

제한 구역에서 책을 가져 나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선생님



의 사인이 있는 편지뿐이었다.

"그런데 뭐라고 핑계를 대지?" 론이 말했다. '우리가 그 마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 생각엔,'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냥 그 이론에 관심이 있는 척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지도 몰라..."

"야, 어떤 선생님이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겠니?" 론이 말했다. "아주 바보 멍청이가 아닌 다음에야....."

악당블러저

해가 막심했던 작은 요정 사건 이후, 록허트 교수는 수업시간에 다시는 살아있는 생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책에 나온 구절들을 읽어주거나, 때로 더 극적인 사건들을 재현해 보이기도 했는데, 꼭 해리를 골라잡아 이러한 재현을 돕도록 했다. 지금까지 해리는 록허트가 '수다떨기 저주'를 치료해주었던 트랜실바니아의 어떤 마을 사람 역과, 코감기에 걸린 설인 역과, 록허트가 처리한 이후 양상추만 먹게 된 흡혈귀 역을 강요받았다.

해리는 바로 다음 시간인 어둠의 마법 방어법 수업에도 어김없이 교단 앞으로 끌려나갔고, 이번에는 늑대인간 역을 해야 했다. 만약 록허트의 기분을 계속 좋게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면, 그는 정말 못하겠다고 단호히 거절했을 것이다.

'큰소리로 멋지게 늑대 울음소리를 내는 거야, 해리-바로 그거야- 바로 그때, 내가 와락 덤벼들어서- 이렇게- 그를 마룻바닥으로 내동댕이쳤어요- 이렇게- 한 손으로는, 그를 계속 누르고-다른 한 손으로는, 요술지팡이를 그의 목에 대고-혼신의 힘을 다해 굉장히 복잡한 '호모포스 주문'을 외웠죠- 그러자 그가 애처로운 신음을 내뱉으면서- 계속해, 해리-그것보다 더 높은 소리로-좋았어-털이 싹 없어지고- 송곳니가 작아지더니- 그가 다시 사람으로 변했어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었죠-그렇게 해서 날 영웅으로 추앙하는 또 하나의 마을이 생긴 겁니다. 매달 일어났던 늑대인간의 습격으로부터 구해준 수호차로서 말이죠."

종이 올리자 록허트가 일어섰다.

"숙제- 내가 와가와가의 늑대인간을 처부순 것을 주제로 시를 한편씩 써 올 것! 가장 잘 쓴 사람에게는 상품으로 내 자서전 '신비한 나'에 사인을 해서 주겠어요!"

학급 학생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가 기다리고 있는 교실 뒷자리로 돌아왔다.

"준비됐니?" 해리가 비밀히 말했다.

"모두들 갈 때까지 기다려.' 헤르미온느가 초조하게 말했다.

"좋아....."

그녀가 손에 종이 쪽지를 짊 움켜쥐고 록허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해리와론은 그녀 뒤에 바짝붙어 있었다.

"저- 록허트 교수님?" 헤르미온느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기-이 책을 도서관에서 갖고 나오고 싶은데요 그저 참고로 좀 읽으려 관요' 그녀가 약간 떨리는 손으로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도서관 제한 구역에 있어서, 선생님의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그걸 읽으면 확실히 선생님이 '굴 귀신과 돌아다니기' 책에서 말씀하셨던 느리고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 독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아아, '굴 귀신과 돌아다니기 !'" 록허트가 쪽지를 받아들면서 헤르미온느에게 환하게 미소지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지. 그 책 재밌었니?'

"그럼" 헤르미온느가 정말 그렇다는 듯 말했다. "정말로 기막힌 아이디어였어요, 선생님이 그 마지막 녀석을 차 거르는 조리로 잡르신 컷 탈예요..."

'글쎄, 내가 학년 최고의 학생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 록허트가 흥분해서 커다란 공작 깃펜을 꺼냈다. "그렇지, 멋지지 않니?" 그가 비위가 상한 듯한 론의 표정을 잘못 이해했는지 이렇게 말했다. '난 책에 사인할 때는 보통 이걸 쓰지.'

그가 쪽지에 엄청 꼬불꼬불한 사인을 휘갈겨 쓰고는 헤르미온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그런데, 해리.' 헤르미온느가 쪽지를 어설픔게 만지작거리며 꼬깃꼬깃 접어 가방 속으로 밀어 넣는 동안, 록허트가 말했다. '내일이 아마 시즌 첫 퀴디치 시합이지? 그리핀도르하고 슬리데린의 시합이던가? 네가 쓸만한 선수라는 소리를 들었던단다. 실은 나도 수색꾼이었지. 내셔널 스쿼드 팀에서 뛰어보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난 어둠의 마법 교육에 인생을 바치고 싶었어. 그렇지만, 혹시라도 약간의 개인 레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거라. 나의 전문적 기술을 조금 못한 선수들에게 넘겨주는 일은 기꺼이 할 수 있으니까.....' 해리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그러겠다고 마지못해 대답하고는 서둘러 론과 헤르미온느 뒤를 따라 나왔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가 쪽지에 있는 사인을 살피고 있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책을 보고 싶어하는지도 들여다보지 않았어."

'그게 바로 그가 머리가 굉장히 나쁜 멍텅구리라는 증거야.' 론이 말했다. "하지만 아무려면 어때, 우린 필요한 걸 얻었는 지-'

'그는 멍텅구리가 아냐.' 도서관 쪽으로 반쯤 달려갔을 때 헤르미온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학년 최고의 학생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들은 조용한 도서관으로 들어가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서인 핀스 부인은 영양 실조에 걸린 대머리수리처럼 생긴 비쩍 마르고, 화를 잘 내는 여자였다.

"모스테 포텐트 약' 이라고?' 그녀가 수상쩍다는 듯 되풀이해 말하며, 그 쪽지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헤르미온느는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건 제가 그냥 갖고 있으면 안될까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 왜 그래." 론이 그것을 그녀의 손아귀에서 잡아 빼서 핀스 부인에게 내밀며 말했다. "사인은 또 받게 해줄게. 록허트는 사인하길 좋아하잖아."

핀스 부인은 혹시 위조된 사인인지 알아보려고 쪽지를 불빛 쪽으로 갖다봤지만, 그 테스트는 무사히 통과되었다. 그녀는 높다란 책시렁들 사이로 으스스대며 걸어갔다가 몇 분 뒤 케케묵은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책 한 권을 들고 돌아왔다. 헤르미온느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 넣자, 그들은 너무 서두르거나 죄진 듯한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걸어났다.

그리고 5분쯤 뒤, 모우닝 머틀의 고장난 화장실에 또다시 갔다. 론은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헤르미온느는 아무도 제정신으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게 뻔하므로, 어느 정도 마음놓고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론의 고집을 꺾었다. 모우닝 머틀은 그들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끄럽게 울부짖었고, 그들도 그녀를 본체만체했다.

헤르미온느는 '모스테 포텐트 약'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 책은 페이지마다 축축한 얼룩이 배어 있었고, 한번 훑듯 보기만 해도 그것이 왜 제한 구역에 들어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일부 마법의 약들은 생각만 해도 섬뜩한 효과가 있었으며, 속이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남자와 머리에 몇 쌍의 여분의 팔이 자라나 있는 마녀를 포함해 몇 가지 아주 불쾌한 그림들이 있었다.

"여기 있다. ' 헤르미온느가 '폴리주스 마법의 약'이라는 제목이 붙은 페이지를 찾자 흥분해서 말했다. 그 조제법 옆에는 다른 사람으로 반쯤 변한 사람들의 삽화가 그려져 있었다. 해리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굉장히 고통스런 표정을 보자 그게 그저 화가의 상상이길 진정으로 바랐다.

"정말 굉장히 복잡하군.' 조제법을 훑어보고 있을 때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풀잠자리, 거머리, 보름초, 마디풀,' 그녀가 재

료 목록을 손가락으로 대충 짚어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야, 학생 비품 벽장 속에 있거든, 우리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어, 봐, 바이콘의 뿔 가루야-그건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잘게 썬 오소리 가죽-그것도 역시 좀 까다롭고-그리고 물론, 무엇이든지 우리가 변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 조금 필요해.'

"뭐라구?" 론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니, 우리가 변하고 싶은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라니? 난 크레이브의 발톱이 들어간 건 절대로 마시지 않을 거야.....'

헤르미온느는 그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넣을.....'

론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해리에게로 고개를 돌리자, 그는 또 다른 걱정을 했다.

'우리가 얼마큼 훔쳐야 하는지는 아니, 헤르미온느? 잘게 썬 오소리 가죽, 그건 분명히 학생들의 벽장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스네이프 교수의 개인 창고에 몰래 들어가? 이건 그다지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

헤르미온느가 책을 탁 덮었다.

'그래, 만약 너희 둘이 손을 떼겠다면, 좋아." 그녀가 상기된 얼굴로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규칙을 어기고 싶지 않은 건 바로 나야. 난 그저 머글 태생들을 위협하는 게 어려운 마법의 약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하지만 너희들이 만약 말포이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는지 어쨌는지 굳이 알아내고 싶지 않다면, 난 당장이라도 가서 이 책을 핀스 부인에게 반납하겠어.....'

'란 네가 우리에게 규칙을 어기자고 할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론이 말했다. '좋아. 하는 거야. 하지만 발톱은 안돼, 알았지?'

'그런데 약을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릴까?' 헤르미온느가 한층 흡족한 표정으로 책을 다시 펼치는 걸 보며 해리가 물었다. "글쎄, 보름초는 보름달이 떴을 때만 따야 하고 풀잠자리는 21일 동안 약한 불에서 끓여야 하니까., 한 달쯤이면 충분할 거야, 재료들만 다 구할 수 있다면 말야."

"한 달?" 론이 말했다. '그 때쯤이면 말포이가 학교에 있는 머글 태생들을 반쯤은 습격했을 거야!"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다시 눈을 치켜 뜨자 그가 부리나케 덧붙였다.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자는 말이야."

그러나 화장실을 떠나려고 헤르미온느가 주변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론이 해리에게 중얼거렸다. '네가 내일 시험에서 말포이를 빗자루에서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질 거야."

해리는 토요일 아침 일찍 눈을 떴지만 한참 동안 누워 다가가 올 퀴디치 시험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경주용 빗자루에 올라탄 팀과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게 무엇보다도 부담스러웠다. 만약 그리핀도르가 진다면 우드가 뭐라고 말할까.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관운썸 누워 있다가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일찌감치 아침을 먹으러 내려갔다. 그런데 그리핀도르의 긴 테이블에는 벌써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11시가 다가오자, 전교 학생이 퀴디치 스타디움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 날은 천둥이 가끔씩 치는 후텁지근한 날이었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허둥지둥 와서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해리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선수들은 자쥬빛 그리핀도르 망토를 입고, 우드의 격려사를 들었다.

"슬리데린은 우리보다 더 좋은 빗자루를 갖고 있어.' 그가 시작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실력은 더 좋아. 훈련도 훨씬 더 맹렬히 했고, 악천후 속에서도 잘 해냈어" ("여부가 있나, "조지 위즐리가 투덜거렸다. '7월 이

후 난 몸이 내 몸 같았던 적이 한번도 없었어.' ) "-그 애들은 말포이 같은 인간 쓰레기를 팀으로 끌어들인 걸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감정이 북받쳐서 가슴을 들썩거리며,우드가 해리에게 고개를 돌렸다.

"수색꾼에겐 부자 아버지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해리. 말포이보다 먼저 스니치를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각오 해,해리,오늘은 반드시 이겨야 해, 반드시."

'너무 부담 갖지마,해리.'" 프레드가그에게 윈크를 하며 말했다.

그들이 경기장으로 걸어나가자,우꺼와 같은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다. 레번클로와 후플푸프까지도 함세해 그들을 응원하고 있었지만, 슬리데린들이 우우거리는 야유 소리도 간간이 들렸다. 퀴디치 선생인 후치 부인의 요청에 따라 악수를 나누게 된 플린트와 우드는 서로에게 위협적인 눈길을 던지며 손을 필요 이상으로 세게 잡았다.

"호각을 불면 바로 시작하세요" 후치 부인이 말했다. '셋... 둘... 하나...'

군중의 함성 소리와 함께 열네 명의 선수들이 어둡게 내려앉은 하늘로 쏜살같이 올라갔다. 해리는 높이 날며,스니치를 찾아 주위를 훑곤회살했다.

"야,번개 흥터?' 말포이가 마치 자신의 빗자루 속도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그의 밑으로 날아오며 소리쳤다.

해리는 그러나 대답할 시간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에, 육중한 까만 블러저가 그를 향해 세차게 날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옆으로 살짝 스쳐 지나갔다.

"아슬아슬했어, 해리 !" 조지가 그 블러저를 슬리데린 쪽으로 쳐낼 준비를 하고 배트를 들고 날아오며 말했다. 그러나 조지가 에이드리언 푸시 쪽으로 세게 쳐내자마자 그 블러저가 공중에서 다시 방향을 바져 해리 쪽으로 세차게 날아왔다. 해리가 몸을 핵 숙여 간신히 피하자,조지가 얼른 말포이 쪽으로 쳐냈다. 그런데 부메랑처럼 그 블러저가 또다시 해리의 머리로 날아왔다.

해리가 경기장 맞은편으로 전속력으로 날아가자 불꽃죽가 핑 하며 뒤따라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된 거지?블러저들은 절대로 한 선수만 공격하는 일이 없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빗자루에서 떨어뜨리는 게 블러저의 임무였기 때문이다....

프레드 위즐리는 맞은편에서 블러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해리가 머리를 숙이는 순간 온힘을 다해 쳐냈다. 블러저가 방향을 바져 날아갔다.

'해냈다!" 프레드가 기뻐서 소리쳤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 블러저는 꼭 자석에 끌리고 있길래도 한 듯 또다시 그에게로 세차게 날아왔으므로 해리는 빗자루를 전속력으로 몰았다.

비가내리고 있었다. 커다란 빗방울들이 얼굴로 떨어져 안경으로 튀었다. 해리는 리 조던이 경기 해설 중에 "슬리데린이 70대 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경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았다.

더 고급인 슬리데린의 빗자루들이 그 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이 저 미친 블러저는 해리를 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제는 프레드와 조지가 양쪽에서 바짝 붙어 날고 있어서 그들이 휘둘러대는 팔 말고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해리는 도저히 스니치를 찾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이- 블러저에- 손을- 댄 게 분명해!" 블러저가 해리를 또다시 공격하기 시작하자 프레드가 전력을 다해 배트를 휘두르며 툄툄거렸다.

'타임아웃이 필요해.' 조지가 우드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블러저를 쳐내며 말했다.

우드가 그 메시지를 받았는지 잠시 뒤 후치 부인의 호각이

울렸다. 해리와 프레드와 조지가 그 미친 블러저를 피해 지상으로 급강하했다.

"어떻게 된 거니?" 그리핀도르 팀이 다 모이자 우드가 물었다. 군중 속에서 슬리데린들이 야유하는 소리가 들렸다. "왜들 다 김이 빠진 거야? 프레드, 조지, 너희들은 블러저가 안젤리나의 득점을 방해하는 동안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니?" "우린 조금 더 위에서, 해리를 죽이려고 하는 다른 블러저를 막고 있었어, 올리버." 조지가 화가 나서 말했다. "누군가가 그 공에 조작을 해두었어- 그게 해리를 계속 쫓아다니며 공격했던 말야. 슬리데린 애들이 그 공에 무슨 짓을 한 게 틀림없어," "하지만 블러저들은 우리가 지난번 연습한 이후 죽 후치 부인의 사무실 안에 있었어, 그리고 그땐 전혀 이상 없었잖아... " 우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후치 부인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슬리데린 팀이 해리가 있는 쪽을 가리키며 비웃고 있는 게 보였다

'잘 들어.' 그녀가 점점 더 가까이 오자 해리가 말했다. '형들이 내 주위에서 계속 날아다니면 내가 스니치를 잡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 그러니까 그 악당은 내게 말하고 다른 선수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바보처럼 굴지 마.' 프레드가 말했다. "그랬다간 네 머리가 날아가 버릴 거야."

우드가 해리와 위즐리 형제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올리팟~이건 미친 짓이야.. 엘리샤 스피넛이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가 혼자서 처리하도록 놔둬선 안돼, 조사를 요청해야 해" '만약 여기서 그만두면, 우린 그 시합을 할 권리를 잃게 돼!'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저 미친 블러저 때문에 슬리데린에게 질 수는 없어! 어서, 주장, 형들에게 날 내버려두라고 해!'"

"너 때문이야." 조지가 우드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 '스니치를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각오를 하라' 니. 그 애에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후치 부인이 그들에게로 왔다.

"경기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니?" 그녀가 우드에게 물었다.

우드는 해리의 얼굴에 나타난 결연한 표정을 보았다.

"좋아." 그가 말했다. "프레드, 조지, 너희들은 해리가 말한 대로 해- 그 때카 혼자서 블러저를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라는 소리야.'

빗줄기는 이제 더 굵어지고 있었다. 후치 부인의 호각 소리가 나기가 무섭게, 해리는 공중으로 세게 박차고 날아갔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바로 뒤에서 획 하며 블러저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그는 공중제비를 하다가 급속히 내려오기도 하고, 나선형을 그리며 돌기도 하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날기도 하고, 데굴데굴 구르기도 했다. 현기증이 났지만 그는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스니치를 찾았다. 빗물이 안경을 타고 흘러내렸고 또 한번 맹렬히 질주해오는 블러저를 피해 거꾸로 매달리자 빗물이 콧구멍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군중 속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멍청해 보였을까. 하지만 그는 악당 블러저는 무거워서 해리만큼 빨리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스타디움 언저리에서 곡예를 부리며, 주룩주룩 내리는 은빛 빗줄기 사이로 그리핀도르의 골대를 훑듯 보았다. 에이드리언 푸시가 우드를 지나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블러저가 획 하며 다시 한번 해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곧바로 뚝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질주했다.

'너 발레 연습하니, 포터?' 해리가 블러저를 피하기 위해 몸을 책 비틀어 돌리자 말포이가 우습다는 듯 이렇게 소리쳤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블러저가 추격해오는 걸 보자 얼른 달아났다. 바로 그때, 말포이를 노려보던 해리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황금빛 스니치였다. 그것은 말포이의 왼쪽 귀 바로

위에서 맴돌고 있었다-하지만 말포이는 해리를 비웃는 데 정신이 팔려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해리는 말포이가 고개를 들어 스니치를 볼 경우를 생각해 그 쪽으로 감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잠시 공중에 떠있었다. 광.

그가 가만히 멈춰 있던 지 채 1초도 되지 않았을 때 블러저가 마침내 그의 팔꿈치를 세게 치고 지나갔다. 해리는 팔이 부러지는 걸 느꼈다. 심한 통증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지면서,몸이 빗물에 흠뻑 젖은 빗자루 옆으로 스르르 미끄러졌다. 한쪽 무릎은 여전히 빗자루에 걸쳐 있었고,오른팔은 옆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블러저가 이번에는 그의 얼굴을 겨냥하며 두 번째 공격을 시도했다-그런데 간신히 벗어났을 때,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단@잇를집ft

쏟아지는 빗줄기와 통증으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바로 밑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비웃고 있는 얼굴을 향해 돌진했다. 해리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말포이의 눈이 공포로 점점 더 커졌다.

"저게 뭐@" 그가 해리를 피해 얼른 몸을 숙였다.

해리는 다치지 않은 한 손을 빗자루에서 떼고 스니치 쪽으로 쪽 뻗었다. 손가락들이 차가운 스니치에 닿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빗자루를 잡고 있는 건 양다리뿐이었다. 그가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그 상태로 지상으로 곧장 향하자 아래 군중 속에서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는 철벽 하며 흙탕물을 치고 빗자루에서 굴러 떨어졌다. 팔이 매우 이상한 각도로 매달려 있었다. 통증 때문인지, 휘파람 소리와 우레 같은 환호소리가 아득하게만 들렸다. 그는 손에 쥐어져 있는 스니치를 보았다.

"아하.' 그가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말했다. "이겼다. " 그리고는 그는 기절해 버렸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그는 여전히 경기장에서 비를 맞고 누워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로 허리를 굽혔다. 그는 번득이는 이빨을 보았다.

"아, 안돼\_a." 그가 신음하며 말했다.

"아직 제정신이 아니군.' 걱정스런 표정으로 주위로 몰려드는 그리핀도르 학생들에게 록허트가 큰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라, 해리, 네 팔을 막 고쳐주려던 참이란다. '

"안돼요!" 해리가 말했다. "감사하지만 전 그냥 이대로 있겠어 요.....

그가 일어서 앉으려고 했지만,통증이 너무 심했다. 근처에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찰칵거리는 소리가 났다.

'난 이런 사진은 찍고 싶지 않아, 콜린." 그가 큰소리로 말했다.

"등을 대고 누워라, 해리.' 록허트가 달래며 말했다. "이건 내가 수없이 해봤던 간단한 주문이야@"

'그냥 병동으로 가면 안 될까요?' 해리가 악문 이빨 사이로 말했다

"그러는 게 좋겠는데요,교수님,' 진흙 투성이가 된 우드가 자기 팀의 수색꾼이 부상을 당했는데도 싱글거리는 걸 참지 못하고 말했다. '헛지게 잡았어, 해리, 정말로 굉장했어, 최고였어? -"

주위에 뒤엉켜 있는 다리들 사이에서, 악당 블러저를 상자 안으로 힘겹게 밀어 넣고 있는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형제가 보였다. 그것은 여전히 드세게 날뛰고 있었다.

"뒤로 물러서라,' 록허트가 옥빛 초록색 소매를 둘둘 말아 올리며 말했다.

"아니-하지 마세요" 해리가 가냘프게 말했지만,록허트는 어느새 요술지팡이를 빙빙 돌리다가 해리의 팔에다 갖다 댔다. 이상하게 불쾌한 느낌이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확 퍼졌다. 마치 팔이 오그라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차마 바라볼 수가 없어 눈을 감고 팔에서 얼굴을 돌렸다. 하지만 사람들의 긴박한 숨소리와 콜린 크리비가 미친 듯이 눌러대는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듣자 더할 수 없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팔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아니 전혀 팔처럼 느껴지지  
도 않았다.

"아.' 록허트가 말했다. '그래. 뭐랄까, 때로 이런 일이 일어  
날 수도 있지. 하지만 요점은 더 이상 뼈가 부러지는 일이 없  
을 거라는 거야. 바로 그걸 명심해야 해. 자, 해리, 이제 일어서  
서 병동으로 카거나-아, 튀출줘 쿤, 그래든지 망, 해리와 통  
행해 주겠니?- 폼프리 부인이- 어- 약간 어- 치료를 마  
무리해 주실 거야.'

일어섰을 때, 해리는 몸이 이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느꼈다. 심호흡을 한번 한 뒤 그는 오른쪽 옆구리를 내려다보  
았다. 그는 하마터면 또 한번 기절할 뻔했다.

살 색깔의 두꺼운 고무 장갑 같은 게 망토 자락 밖으로 뼈  
죽이 나와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했다. 하지만  
허사였다.

록허트는 부러진 해리의 팔뼈를 붙였던 게 아니었다. 그는  
뼈를 없애버렸던 것이었다.

폼프리 부인은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다.

'나한테 바로 왔었어야지!' 킬분쯤 전만 해도, 잘 움직이던  
팔이 비참하게 축 처진 꼴을 보자, 그녀가 마구 야단을 쳤다.  
"부러진 뼈를 고치는 거라면 순식간에 해결되지만- 뼈를 다  
시 자라게 하는 건Ⓢ'

'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지?' 해리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할 수는 있지, 물론, 하지만 좀 아플 게다. ' 폼프리 부인이  
해리에게 잠옷을 던지며 으스스하게 말했다. "오늘 밤에는 병  
동에 있어야겠구나.....

헤르미온느는 론이 해리를 도와 잠옷을 입히는 동안, 침대에  
드리워진 커튼 밖에서 기다렸다. 고무 같은, 뼈가 없는 팔을  
소매 속으로 쑥서 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건 어떻게 된 애가 이런 상황에서도 록허트를 두둔할 수  
있니, 헤르미온느, 어?' 론이 해리의 흐물흐물한 손가락들을  
소매 끝동으로 빼내며 커튼을 통해 소리쳤다. "그는 적어도 해  
리가 뼈를 붙이고 싶어하는지 뼈를 발라내고 싶어하는지 정도  
는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아프지도 않잖아, 그렇지, 해리?"

"응.' 해리가 침대 속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하지만 아프지  
만 않은 게 아니라 아무 느낌이 없어,'  
그가 침대 위에서 몸을 돌리자, 팔이 제멋대로 흐느적거렸  
다.

헤르미온느와 폼프리 부인이 다시 커튼 안으로 들어왔다. 폼  
프리 부인은 '스켈레-그Ⓢ라는 꼬리표가 붙은 커다란 병을  
들고 있었다.

"오늘 밤에 병동에 있어야 하는 건 혹시 밤사이 통증이 심  
해질까봐 그런 거란다. '그녀가 비커 같은 컵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따라주며 말했다. '배들을 다시 자라나게 하는 건  
굉장히 아프거든. '

스켈레-그로를 마시자 입과 목이 얼 얼했으므로 해리는 계속  
해서 기침을 하며 푸푸거렸다. 폼프리 부인이 위험한 스포츠  
와 선생들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대해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  
서 나가자. 론과 헤르미온느가 해리에게 약간의 물을 마시게  
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겼어.' 론이 입이 찢어지게 씩 웃으며 말  
했다. "정말 굉장히 멋지게 잡았어. 말포이의 얼굴 못 봤지...  
녀석은 완전히 사색이 되었어.....

"그런데 그 앤 블러저를 어떻게 조작한 걸까?' 헤르미온느  
가 은밀히 말했다.

"폴리주스를 만들게 되면 녀석에게 물어볼 게 또 하나 생긴  
거지 뭐." 해리가 다시 베개를 베고 누우며 말했다. '맛이나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약 속에 슬리데린 녀석들의 몸의 일부가 들어갈 텐데, 맛이

좋을 리가 있겠어?' 론이 말했다.

바로 그 순간 병동의 문이 갑자기 확 열렸다. 그리핀도르 팀의 선수들이 온몸이 폭 젖은 채로 해리를 보러 몰려온 것이었다.

"정말 굉장했어, 해리." 조지가 말했다. '따커스 플린트가 말포이에게 소리소리 질러대며 호통친 거 아니? 머리 바로 위에 스니치가 있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야. 말포이가 죽상을 하고 있더군.'

그들은 케이크와, 과자와, 호박 주스 병들을 가져 왔었는데, 해리의 침대 주변에 모여들어 멋진 파티를 시작하려는 순간, 폼프리 부인이 달려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아인 휴식이 필요해, 다시 자라야 할 뼈가 서른 세 개나 된단 말야! 당장 나가! 어서!"

그래서 해리는 혼자 남게 되었다. 흐물흐물한 팔뚝 참을 무었게 콕콕 쑤셔왔다.

몇 시간 뒤, 해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너무 아팠다. 팔 속에 조그만 조각들이 가득 찬 느낌이 들었다. 잠시, 그는 통증 때문에 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스펀지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저리 가!" 그가 큰소리로 말했다. '포빗.1"

테니스 공 만한 그 꼬마 요정의 눈이 어둠 속엔서 해리를 뵈히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 한 방울이 요정의 길고 뾰족한 코로 또르르 흘러내렸다.

"해리 포터는 학교로 돌아왔어요' 그가 불쌍하게 속삭였다. '도비가 해리 포터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아, 왜 도비의 말을 듣지 않았죠? 왜 기차를 놓쳤을 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해리는 베개 위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도비의 스펀지를 밀어냈다.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기차를 놓친 건 어떻게 알아?'

도비의 입술이 떨리는 걸 보자 해리는 갑자기 수상쩍은 생각이 들었다.

'타로 너였구나!" 그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개찰구를 지나가지 못하게 한 게 바로 너였어!"

"그래요' 도비가 고개를 세게 끄덕이자, 귀가 펠럭였다. '도비가 숨어서 해리 포터를 지켜보다가 그 출구를 막았어요 하지만 도비는 그 일로 나중에 손을 다림질해야 했어7' 그가 해리에게 반창고가 붙여진 열 개의 긴 손가락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도비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해리 포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도비는 해리 포터가 다른 방법으로 학교에 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_s\_ !"

그는 못생긴 머리를 가로 저으며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도비는 해리 포터가 호그와트로 돌아왔다는 소릴 듣고 어찌나 충격 받았던지, 그만 주인의 저녁 식사를 새카맣게 태우고 말았어요! 도비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해리는 다시 베개 위로 무너지듯이 누웠다

'너 때문에 론과 난 하마터면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어.' 그가 사납게 말했다. '내 뼈들이 다시 자라나기 전에 냉큼 꺼져 버리는 게 좋을 거야, 도비, 그렇지 않았다면 너의 목을 비틀어버릴지도 몰라.'

도비가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도비는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런 위협은 집에서도 하루에도 대 여섯 번씩 당하니까7'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베갯잇 한쪽 귀퉁이에다 코를 행 푸는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해리는 화가 저도 모르게 풀리는 걸 느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입고 있는 거니, 도비?' 그가 궁금해서



물었다.

"이거요?' 도비가 베갯잇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이건 집 요정이 노예 상태라는 표시예요 도비는 주인에게 옷을 선물로 받을 때에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족은 도비에게 양말 한 짝도 주지 않아요 도비가 영원히 자유로운 몸이 되어 그들의 집을 떠날까봐 말예요'

그런데 도비가 툭 볼거진 눈을 훑치며 볼썽 이렇게 말했다. '해리 포터는 집으로 가야만 해요! 도비는 블러저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블러저라고?" 해리가 한번 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말했다. "무슨 말이야, 블러저라니? 그럼 블러저가 날 죽이도록 한 게 바로 너였단 말야?'

"죽이려는 건 아니었어요, 절대로 해리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도비가 충격을 받고 말했다. '도비는 해리 포터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심한 부상을 받더라도 차라리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게 나아요! 도비는 그저 해리 포터가 집으로 돌려보내질 정도로만 다치길 바랐을 뿐이에요!"

"고게 다야?" 해리가 화가 나서 말했다. '도대체 왜 날 산산조각 내어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거지?'

"아아, 해리 포터는 왜 모르는 걸까요!" 도비가 누더기 같은 베갯잇 위로 더 많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신음했다. "우리에게, 천하디 천한 우리 노예들에게, 마법의 세계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그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예요! 도비는 이름을 불러선 안될 그 사람의 힘이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을 때를 생생히 기억해요! 우리 같은 집의 요정들은 기생충처럼 취급당했어요! 물론, 도비는 아직도 그렇게 취급받고 있지만요-" 그가 베갯잇에 얼굴을 닦았다. "하지만 당신이 이름을 불러선 안될 그사람을 물리친 이후 우리 종족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몰라요 해리 포터는 살아남았고, 어둠의 마왕의 힘은 파괴되었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왔어요 어둠의 시절이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해리 포터는 희망의 등대처럼 빛났어요... 그런데 지금, 호그와트에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려고 해요, 어쩌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도비는 해리 포터가 이곳에 머물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과거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밀의 방이 한번 더 열린 이상㉠' 공포에 질려서 꿈쩍 않고 서 있던 도비가 느닷없이 해리의 머리맡 탁자에서 물주전자를 잡고 자신의 머리를 쿵쿵 치더니 비틀거리며 쓰러져 버렸다. 잠시 뒤. 그는 모들뜨기 눈을 하고 다시 침대 위로 기어올라와 투덜거렸다' 7뿐 도비, 아주 나쁜 도비.....

'그러니까 비밀의 방이 있긴 있다는 커지?' 해리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게 전에도 열렸었다는 말이지? 말해 봐, 도비!"

도비의 손이 또다시 물주전자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려 하자 그가 얼른 그 요정의 앙상한 손목을 잡았다. "하지만 난 머글 태생도 아냐-난 비밀의 방이 열렸다고 해서 위험에 처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

"아아, 더 이상은 묻지 마세요, 불쌍한 도비에게 더 이상은 묻지 마세요\_오' 그 요정이 어둠 속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을 더듬었다. "이곳에서 일어날 일들은 진작부터 다 계획되어 있었어\_오 해리 포터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곳에 있어선 안돼요- 집으로 가세요, 해리 포터, 집으로 가요. 해리 포터는 이 일에 관여하면 안돼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게 누구지, 도비?" 해리는 도비가 물주전자로 다시 자학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의 손목을 꼭 잡고 있었다. "누가 그걸 열었지? 지난번에 그걸 연 게 누구냐구?'

'도비는 말할 수 없어요, 도비는 말할 수 없어요, 도비는 말해선 안돼요!" 그 작은 요정이 우는 소리로 말했다. "집으로 가요, 해리 포터, 집으로 가요!"

'난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해리가 사납게 말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가 머글 태생이야. 만약 그 방이 정말로 열렸다면 그 애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거야!'"

'해리 포터가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던지려 하다니!' 도비가 몹시 감동한 나머지 무아경에 빠져 신음하듯 말했다. '너무 고결해요! 너무 훌륭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구해야만 해요, 그래야 해요, 해리 포터는!'"

도비가 갑자기 박쥐 같은 귀를 떨며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았다. 해리도 그 소리를 들었다. 라갈 복도에서 급히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났다.

"도비는 가야해요!" 그 작은 요정이 겁에 질린 듯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리고 지끈 하며 커다란 소리가 나더니 도비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발자국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어두운 병동 입구를 바라보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잠시 뒤, 덤블도어 교수가 잠옷 위에 긴 양모 가운을 입은 모습으로 뒷걸음질치며 병동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조각상처럼 보이는 뿔뿔한 물체의 한쪽 끝을 잡고 있었고, 조금 뒤 그 발 부분을 잡은 맥고나걸 교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 물체를 침대 위로 들어올렸다.

"폼프리 부인에게 연락해요' 덤블도어 교수가 속삭이자, 맥고나걸 교수가 허둥지둥 해리의 침대를 지나 사라졌다 해리는 잠든 척하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리더니, 맥고나걸 교수가 잠옷 위에 스웨터를 걸친 폼프리 부인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

"무슨 일이에요?' 폼프리 부인이 침대 위에 있는 그 조각상에게 허리를 굽히고 있는 덤블도어 교수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다.

"습격이 또 있었소' 덤블도어 교수가 말했다. '맥고나걸 교수가 계단에서 발견했어요'

'그의 옆에는 포도 한 송이가 있었어요'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그 앤 포터를 찾아오려고 이곳으로 몰래 숨어들려고 했던 것 같아\_오'

해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 침대에 있는 조각상을 보려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것의 멍한 얼굴에 달빛이 어렸다.

그건 콜린 크리비였다.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손은 카메라를 든 채, 앞으로 쑥 내밀어져 있었다.

'둘처럼 굳어졌나요?' 폼프리 부인이 속삭였다.

"그래요"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하지만 생각만 해도 소름끼쳐요.... 만일 알버스가 코코아를 마시러 아래층으로 가던 길이 아니었다면-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들 셋이 콜린을 내려다보았다. 그 뒤 덤블도어 교수가 허리를 굽혀 콜린의 뿔뿔한손에서 카메라를 비틀어 뺐다.

"그 애가 습격자의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요?' 맥고나걸 교수가 그러길 간절히 바라는 듯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카메라의 뒷부분을 열었다.

"어머나!" 폼프리 부인이 말했다.

카메라에서 쉬쉬하며 연기가 새어나왔다. 사이에 침대를 세 개나 두고 있는데도 해리는 플라스틱이 탄 매콤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녹아버렸어요' 폼프리 부인이 이상한 듯이 말했다. "완전히 녹았어요..."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알버스?' 맥고나걸 교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건.'" 덤블도어 교수가 말했다. '비밀의 방이 정말로 다시 열렸다는 뜻이에요\_오'

폼프리 부인이 손을 입에다 갖다댔다. 맥고나걸 교수는 덤블도어 교수를 뵈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알버스... 그게... 누구죠?"

'문제는 누구냐가 아니에요' 덤블도어 교수가 콜린을 바라  
보며 말했다. "문제는 어떻게...~"  
해리가 알고 있는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맥고나걸 교수의 공허한 얼굴로 판단하건대, 그녀도 마찬가지인 듯 했다.